

PONY CHUNG FOUNDATION ANNUAL REPORT 2 0 1 5

55, Hangang-daero 23-gil, Yongsan-gu, Seoul, 140-780 Republic of Korea

Tel. 82-2-2008-9079

www.ponychung.org

P O N Y
ANNUAL REPORT 2 0 1 5
C H U N G
F O U N D A T I O N

INNOVATION IS THE FUTURE

혁신이 곧 미래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나아가다

1966년 1월, 태국의 남단 파타니에서 나라티왓을 잇는 고속도로 건설이 시작됐습니다. 시공사는 대한민국의 현대건설, 현장 지휘자는 현대건설 태국 초대 지점장이었던 30대 후반의 청년이었습니다. 덥고 습한 날씨를 이겨내고, 황폐한 불모의 터를 갈아엎어 고속도로로 완공하기까지 넘어야 했던 고비가 수십 차례. 하지만 청년은 멈추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68년 2월, 대한민국 건설 역사에 길이 남을 최초의 해외 진출 공사가 성공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선진 16개국 29개 업체와 겨뤄 공사를 수주한지 28개월만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현대건설은 이때 쌓은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주도적으로 이끌었으며, 대한민국이 해외건설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강한 도전정신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다

1973년 국산 자동차 개발을 위해 타진했던 포드와의 협상이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경쟁사인 신진자동차는 GM과의 합작이라는 쾌거를 일구어냈습니다. 하늘이 노랗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난관에 부딪칠 때마다 이를 극복하고 성장하는 기회로 삼았던 40대의 젊은 CEO는, 좁은 한국 무대를 뛰어넘어 넓은 세계 무대에서 살아남고야 말겠다는 강한 생존의지를 불태웠습니다. 그는 곧바로 술한 반대를 무릅쓰고 독자적인 고유 모델 개발에 들어갔고, 1974년 제55회 토리노 국제 자동차박람회에 당당히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뒤가 짧은 해치백 스타일의 독특한 디자인으로 세계 언론의 호평을 이끌어낸 이 차의 이름은 ‘포니’. 대한민국 최초의 고유 모델이었습니다. 또한 ‘포니’의 탄생은 우리나라를 세계 16번째 자체 차량 생산국 대열에 진입시켰고 사람들은 그를 ‘포니 정’이라는 애칭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미래는 도전하고 개척하는 것이다

1986년 미국의 유력 일간지 <뉴욕타임스>는 ‘미국 산업계의 숨은 영웅’으로 이 사람을 지목했습니다. 1995년 미국 <오토모티브 뉴스>지 또한 ‘오토모티브 올스타’로 이 사람을 선정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성공적인 미국 진출이 가져다 준 값진 성과였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전 세계를 누비며 활발한 대외활동을 펼쳤고, 바쁜 일정 중에도 그때 그때의 단상이나 기억해야 할 일들을 메모로 남겼습니다. 지독한 ‘메모광’이었던 그는, 높은 직위에 오른 후에도 늘 성실했고 솔선수범했으며 초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산업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새로운 길을 개척했습니다. ‘미래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도전하고 개척하는 것이다’라는 신념을 평생에 걸쳐 펼쳐 보였던 위대한 거인.

그의 이름은 정.세.영.입니다.

Moving forward without looking back

In January 1966, construction got underway on a highway in the south of Thailand that would run from Pattani to Narathiwat. Hyundai E&C was hired to supervise construction of the road, and the man heading up the company’s first Thai branch site was a young man in his late 30s. There were countless obstacles to overcome during construction of the highway, not to mention the hot, humid weather. Nonetheless, this confident young man never gave up and looked back; he just kept moving forward. In February 1968, Hyundai E&C became the first Korean company to successfully complete an overseas construction project. It had been 28 months since Hyundai had won the contract order after competing against 29 companies from 16 countries. Back then, Hyundai E&C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building Korea’s Gyeongbu Expressway. Part of the reason it could accomplish this had to do with its success in Thailand, which ultimately became a driving force for Korea to grow as a leader in overseas construction.

Turning challenges into opportunities with a strong pioneer spir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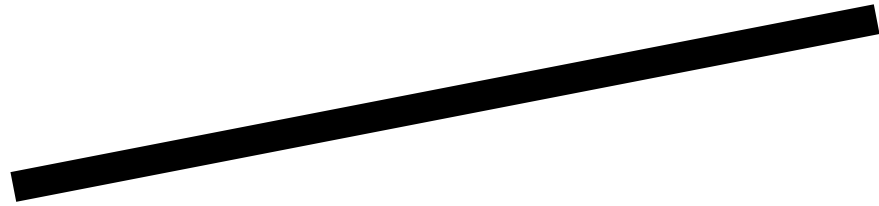
In 1973, talks about developing Korean automobiles between Hyundai Motor Company and Ford collapsed. To make matters worse, Hyundai’s competitor, Sinjin Automobiles, succeeded in signing a deal with GM. Things looked bleak for Hyundai, but the young CEO, who was only in his 40s, always tried to turn adversity into opportunity with the resolve necessary to survive in the global market. Despite countless objections, he set out to develop a unique car model for the company right away, and had Hyundai take part in the 55th Turin International Motor Fair in 1974. With its unique design and small hatchback body style, the car earned favorable reviews from the press worldwide. They called it the Pony, and it was Korea’s first independently developed automobile, making Korea the 16th country worldwide to now have its own auto industry.

The future has limitless potential and should be explored

In 1986, *The New York Times* called him a “hidden hero” of the American automobile industry. In 1995, *Automotive News* also selected this person as an “automotive all-star.” These accolades were the result of the man who had ensured Hyundai Motor’s successful entry into the U.S. automobile market. This same man worked hard all around the world to expand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other countries. Despite his busy schedule, he jotted down thoughts and ideas as they came to him, no matter where he was or what he was doing. Even after he soared up the ranks in the company, he remained as hard-working as he had been at the beginning of his career. In fact, he was constantly pioneering new roads not just for the automotive industry, but for Korea and its future as well. He was indeed a great man who once said, “The future is not something to wait around for, but something that has limitless potential and should be explored.”

His name was Chung Se-yung.





이 시대의 진정한 리더, 포니정의 꿈과 희망을 이어갑니다

정세영 명예회장이 우리 곁을 떠난 지 어느덧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일생을 통해 증명한 도전과 혁신, 정도경영의 가치는 더욱 소중하고 귀한 가르침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진정한 글로벌 리더인 정세영 명예회장의 업적을 기리고 소중한 뜻을 계승하고자 2005년에 설립된 포니정 재단은 그의 웅대한 꿈이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왔습니다. 지난 10년 간 정세영 명예회장의 뜻을 흔들림 없이 계승하려는 재단의 의지는 이제 사회 곳곳에 깊이 뿌리를 내려 하나 둘 크고 작은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먼저 창조적 사고와 불굴의 도전정신으로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킨 개인이나 단체를 포상해 모두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포니정 혁신상'을 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외교,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탁월한 업적을 남긴 아홉 분의 혁신가들을 발굴해 혁신의 가치를 널리 전파하였습니다. 혁신상 수상자들의 철학과 소신 그리고 그들의 업적은 포니정 혁신상을 통해 사회 곳곳으로 퍼져나가 또 다른 혁신가가 나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포니정 혁신상이 세계적인 권위의 상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입니다.

기업의 미래를 위해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인재양성을 강조했던 정세영 명예회장의 뜻을 기리기 위해 학술 지원 사업과 장학사업도 활발히 전개해나가고 있습니다. 국가 발전의 밑거름이 되는 기초학문 분야를 적극 지원하여 역사학과 인문학 분야 연구에 힘을 실어준 결과, 지금까지 총 13팀의 인문학 분야의 교수와 연구자들이 빛나는 연구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포니정 재단과 동행하고 있는 인문학자들이 학계에 희망찬 미래를 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미래의 주역인 국내외 우수 인재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장학사업으로 지금까지 290명의 국내 대학생과 445명의 베트남 대학생이 포니정의 꿈을 이어 받았습니다. 포니정 장학생으로 학업을 마친 많은 인재들이 세계 곳곳에서 제 2의 포니정을 꿈꾸며 자신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포니정 재단은 앞으로도 '미래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도전하고 개척하는 것'이라는 정세영 명예회장의 원칙과 소신이 더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포니정 재단 이사장 김철수

Continuing to build upon the dreams and hopes of Chung Se-young, a true leader of our time

Ten years have already passed since Honorary Chairman Chung Se-young left us. As time goes by, the values of bold initiatives, innovation, and *jeongdo* (righteous) management -- that he proved throughout his life -- become more meaningful as lessons to everyone. The Pony Chung Foundation was established in 2005 in order to celebrate a true leader of our time, Chung Se-young's achievements, and inherit his valuable ideas. The foundation has run various programs in order to continuously pursue his great dreams. For the past ten years, the foundation's strong will to sustain Pony Chung's legacy has taken deep root. Today, we are seeing the fruits of our projects all around us.

To begin, we established the Pony Chung Innovation Award and have supported people and organizations that bring about positive changes in society through their creative thoughts. To date, we have singled out nine innovators with internationally renowned achievements in various fields, including diplomacy, economics, society, culture, sports, and design; and have taken the initiative to spread the values of innovation. The award winners' philosophy, beliefs, and achievements were spread throughout society, laying the foundation for the emergence of other innovators. The foundation will continue to work hard so that the award can grow into a world-class honor.

The foundation has been actively working on academic support and scholarship programs following Pony Chung's will to continue R&D and foster talents for the future of companies. We have actively sponsored scholars in fundamental studies which are important to the development of the country, especially focusing on history and the humanities. As a result, a total of 13 teams of professors and researchers in the field of humanities have made brilliant achievements in their studies up until now. We hope that the humanities scholars supported by the Pony Chung Foundation will bring a hopeful future to academic circles. And furthermore, the foundation has helped talented people in Korea and abroad fully pursue their dreams through scholarships. So far, 290 Korean university students and 445 Vietnamese university students have inherited Pony Chung's dreams. Inspired by Pony Chung, many talented people who completed their studies through these scholarships are creating their future around the world.

The Pony Chung Foundation will do its utmost to continue carrying out Chung Se-young's legacy and his belief that the future is what we make of it.

Kim Chul-su

Chairman, Pony Chung Foundation

BOARD MEMBERS

포니정 재단 이사진

포니정의 자취를 따라, 우리는 함께 호흡하고 소통합니다. 더 풍요로운 사회,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합니다.

늘 깨어 있음으로. - 정세영 명예회장 5주기 추모집 <꿈과 희망을 남긴 선구자 포니정 그의 꿈은 계속된다> 中

Just as Pony Chung did in his own life, we work hard for a better, more enriched society, and a better future than today. - from *The Pioneer Pony Chung's Dream Goes On*, a book marking the 5th anniversary of Honorary Chairman Chung Se-yung's death



이사장 **김철수** Chairman **Kim Chul-su**

- 중앙대학교 이사장
- 무역투자연구원 이사장
- 前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차장
- 前 상공자원부 장관
- 前 세종대학교 총장
- Chairman of the Board of Directors, Chung-Ang University
- Chairman of the Board at the Institute for Trade & Investment
- Former Secretary General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 Former Minister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 Former President of Sejong University



이사 **정몽규** Director **Chung Mong-gyu**

- 현대산업개발 회장
- 대한축구협회 회장
- 前 현대자동차 회장
- Chairman of Hyundai Development Company
- President of the Korea Football Association
- Former Chairman of Hyundai-Kia Motors



이사 **이양섭** Director **Lee Yang-sup**

- 엠에스오토텍, 명신 회장
- 前 현대자동차 사장
- Chairman of MS Autotech & Myoungshin
- Former President of Hyundai Motor Company

이사 **주선희** Director **Choo Sun-hoe**

- 고려대학교 교우회 회장
- 前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재판관
- Chairman of Alumni Association, Korea University
- Former Acting Chief Justic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이사 **공병호** Director **Gong Byeong-ho**

- 공병호경영연구소 소장
- 前 재단법인 자유기업센터 초대소장
- 前 인티즌 대표이사
- President of Gong Institute
- Former Director of the Center for Free Enterprise
- Former CEO of Intizen



감사 **조성호** Auditor **Cho Seong-ho**

- 홍익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前 발텍컨설팅 사장
- Professor at Hongik University's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 Former President of Valtech Consulting



감사 **류용호** Auditor **Ryu Yong-ho**

-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前 서울행정법원 판사
- Lawyer at Kim & Chang
- Former Seoul Administrative Court Judge



THE PONY CHUNG INNOVATION 포니정 혁신상 AWARD

불가능한 꿈은 없다

혁신은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이며,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또한 기존의 낡은 고정관념을 깨고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새로운 무언가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혁신은 꿈을 현실로 만들려는 시도이며, 과거의 실패에 연연하기보다 미래에 다가올 성공을 가슴 속에 품는 일입니다. 때로는 모두의 반대를 무릅써야 하는 일이고, 어느 누구도 성공을 보장해주지 않는 외로운 길이기도 합니다. 혁신은 길고도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만 완성되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이 외로운 싸움의 동반자는 오직 창의적 사고와 불굴의 의지, 과감한 도전정신뿐입니다.

대한민국을 빛낸 혁신의 주역

포니정 정세영 명예회장은 이 같은 싸움을 평생에 걸쳐 지속해온 선구자입니다. 현대건설 태국 초대지점장으로서 대한민국 최초의 해외 진출 공사로 기록된 태국 파타나나라티왓 고속도로 건설을 진두지휘했고, 경부고속도로 건설, 현대자동차 설립, 울산공장 설립 등 중요한 순간마다 늘 현장을 지키며 무에서 유를 창조했습니다.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이를 극복하고 성장하는 기회로 삼았으며, 앞선 헤안으로 미래를 향한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해 나갔습니다.

신진자동차가 GM과 합작했을 당시, 현대자동차는 포드와의 합작이 물거품이 됐지만, 실망하기보다 한국시장뿐 아니라 수출시장까지 염두에 둔 고유모델 포니의 개발에 박차를 가했고 결국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꿈은 꿈일 뿐’이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뒤집고, 대한민국을 16번째 자동차공업국 반열에 올려놓았습니다. 포니는 대한민국의 첫 고유모델인 동시에, ‘세계 5대 자동차 강국을 향한 돛’을 활짝 펴게 만든 장본인이었습니다. 정세영 명예회장의 과감한 혁신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곧바로 독자엔진 개발에 착수했고, 자동차의 본고장 미국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이를 수 없는 꿈이라 여겼던 모든 것들이 현실로 이루어

진 것입니다. 정세영 명예회장의 혁신적 사고와 남다른 실행력은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한 원동력이었습니다.

혁신의 철학을 이어받다

혁신은 필연적으로 위험을 담보로 합니다. 그러나 위험하다고 해서 변화를 두려워한다면 절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난관과 역경이 닥친다 해도 반드시 이겨내리란 각오를 다지며 하나하나 실행해나갈 때 혁신은 가능해집니다. 포니정 혁신상은 혁신에 관한 정세영 명예회장의 철학을 고스란히 이어받은 상입니다. 또한 정세영 명예회장의 혁신적 사고와 도전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상이기도 합니다.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우리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끈 최고의 혁신가들에게 바치는 영예로운 헌사인 포니정 혁신상. 포니정 재단은 지난 2006년 4월 포니정 혁신상의 기틀을 마련한 이후, 이듬해부터 매년 불굴의 도전정신, 혁신적 창조정신으로 국가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한 개인 혹은 단체에게 포니정 혁신상을 수여해 왔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또 우리 사회에 혁신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를 널리 전파하고, 이를 실행에 옮긴 혁신가들을 발굴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와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단 하나의 영예로운 이름

포니정 혁신상은 지난 9년간 정세영 명예회장의 철학을 계승하며 최고 권위의 상으로 자리잡아 왔습니다. 포니정 혁신상의 권위는 공정하고 엄격한 선정과정, 그리고 역대 수상자의 면면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년 1월에서 2월까지 재단 임원진, 역대 수상자, 역대 심사위원, 국내외 저명인사 및 기관, 단체장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은 후, 각 부문을 대표하는 전문가 중 재단 이사장(심사위원장 겸직)이 위촉한 10인 이내의 심사위원회가 각 후보자의 자격 및 업적을 심사해 최종 수상자를

반년 만에 빈 터에 공장을 짓고 첫 차 코티나를 생산했을 때에도, 버스업자들 앞에 자존심을 내던지고 큰절을 할 때에도, 미숙한 판매 전략과 경제 불황으로 삶의 의지를 잃었을 때에도 목이 탔으므로 스스로 물을 찾았고 비움으로써 스스로 채워갔다.

포니 엑셀 30만대 생산공장 건설, 디젤엔진공장과 기어공장 준공에 이어 최첨단 30만대 승용차 공장인 아산공장과 세계 최대 상용차공장인 전주공장 건립도 정공법으로 세상에 던진 승부수였다.

- 정세영 명예회장 5주기 추모집 <꿈과 희망을 남긴 선구자 포니정 그의 꿈은 계속된다> 中

선정합니다. 수상자는 매년 4월 중 발표되며 시상식은 매년 5월~7월 중 실시됩니다.

최종 수상자들은 1억원의 상금과 상패뿐 아니라, 포니정 혁신상 수상자라는 영예로운 이름을 부여 받습니다. 제1회 수상자인 반기문 UN 사무총장을 필두로, 교육 개혁에 앞장선 서남표 KAIST 총장, 아시아 빈곤층에 교육의 중요성과 개혁정신을 전파해온 (사)가나안농군운동세계본부, 입양에 대한 뿌리깊은 편견을 깬 신애라·차인표 부부, 경제학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인 캠브리지대 장하준 교수,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한 앱 카카오톡으로 IT분야의 혁신을 이끈 김범수 (주)카카오 이사회 의장, 창조적인 여성 법학자 석지영 하버드 로스쿨 중신교수 그리고 세계 피겨스케이팅의 역사를 새롭게 쓴 김연아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등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각 분야의 리더들, 우리 사회에 혁신의 가치를 널리 전파하는 데 앞장서온 각 분야의 선구자들이 포니정 혁신상의 주인공인 셈입니다.

포니정 재단은 앞으로도 포니정 혁신상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권위의 상으로 성장,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o dream is too big

Innovation is about creating something out of nothing, and changing what is impossible into what is possible. It's also about creating something that will surprise the world, breaking the mold and existing stereotypes. Innovation is an attempt to turn dreams into reality, and to envision future success rather than think of past failures. Sometimes it means moving forward despite everyone else's opposition, a

lonely road where success is not guaranteed. Innovation is an internal fight within oneself that is only completed after a long, arduous process. This lonely fight is accompanied by creativity, an indomitable will, and a bold, revolutionary spirit.

Innovation that brought great honor to Korea

Honorary Chairman Pony Chung (Chung Se-yung) was a pioneer who carried out this internal fight his whole life. As the first director of Hyundai E&C's Thailand branch, he was responsible for building the Pattani-Narathiwat Highway, the first overseas construction project carried out by a Korean company. He went on to do other great things, like build Korea's Gyeongbu Expressway and establish the Hyundai Motor Company and its first plant in Ulsan. He consistently turned adversity into opportunity, and made his vision of the future a reality on a constant basis. While Sinjin Automobiles collaborated with GM, Hyundai Motor Company failed to collaborate with Ford. Still, Chung was not disappointed and used it as a chance to accelerate the development of the company's unique model. Chung had exports in mind—and in the end this spelled success. He overcame the pessimistic notion that a dream is just a dream, and made Korea the world's 16th country with an automotive industry. The Pony was the first all-Korean car model and the starting point of transforming Korea into one of the world's five strongest automobile producing countries. Chung's brave innovation did not stop there, though. Soon after this, he set out to

He produced the first car, the Cortina, after building a plant in just half a year. After putting his pride aside, he had to beg people in the bus business to buy Hyundai Motor's vehicles. He lost the will to go on at one point because of poor sales strategies and an economic depression. Still, whenever he faced challenges he always tried searching for solutions on his own. Then he made the bold decision to build a plant which could produce 300,000 Pony Excels a year after which he completed work on diesel engine and automotive gear factories. The cutting-edge Asan plant eventually produced 300,000 automobiles annually, with the world's largest commercial automobile plant located in Jeonju.

- from *The Pioneer Pony Chung's Dream Goes On*, a book marking the 5th anniversary of Honorary Chairman Chung Se-yung's death

develop an engine single-handedly, and eventually succeeded in entering the U.S. market. What many people thought was impossible had become a reality. Honorary Chairman Chung's innovative thinking and extraordinary executive abilities were the driving force for all of these achievements.

Inheriting a philosophy of innovation

Innovation necessarily means taking risks. However, if we are afraid of change because of risk, we will never move forward. Innovation is possible when we carry out our plans bit by bit, determined to overcome any hardships along the way. The Pony Chung Innovation Award is a testament to Honorary Chairman Chung Se-yung's philosophy about innovation, and celebrates his innovative thinking and pioneering spirit. The award is a tribute to contemporary innovators who bring positive changes to society. The Pony Chung Foundation gave out the first Pony Chung Innovation Award in April 2006. It is now awarded annually to individuals or organizations that have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Korea with their visionary spirit and innovative creativity. The award is designed to promote positive changes and growth in Korean society by singling out some of the greatest innovators of our time.

The one and only honorable name

The Pony Chung Innovation Award has established itself as the most prestigious award in Korea over the last nine years. Every January and February, nominees are recommended

by the foundation's directors, former awardees, award judges, and notable individuals or organizations in Korea and overseas. The winner of the award is selected by a judging committee consisting of fewer than 10 professionals appointed by the Chief Director (chairman of the judging committee) of the foundation. The winner is announced in April, and an awards ceremony is held sometime between May and July.

Each winner receives KRW 100 million and a medal, as well as the title of Pony Chung Innovation Award winner. Past recipients include Un Secretary General Ban Ki-moon, the president of KAIST, Suh Nam-pyo, a man who helped revolutionize education, the World Headquarters of the Canaan Farmers Movement, which has promoted the importance of education and a pioneering spirit among the poor in Asia, the couple Cha In-pyo and Shin Ae-ra, who helped Koreans overcome their deep-rooted prejudice against adoption, the internationally renowned economist Ha-joon Chang from Cambridge University, Chairman Kim Beom-su of Kakao, whose innovation in the field of IT with the smartphone-based application Kakao talk has taken Korea by storm, the creative legal expert Jeannie C. Suk from Harvard law school, and 2010 Vancouver Winter Olympics gold medalist Yuna Kim, who rewrote the history of figure skating.

The foundation will continue to do its utmost so that the award can grow into a world-class award.

INTERVIEW

2015 PONY CHUNG INNOVATION AWARD RECIPIENT - 2015 포니정 혁신상 수상자 인터뷰



I dream of design innovation beyond an era.

시대를 뛰어넘는 디자인 혁신을 꿈꿉니다

조르제토 주지아로 Giorgetto Giugiaro, Automobile designer

제 9회 포니정 혁신상 수상자는 20세기 자동차 디자인 혁신을 주도한 조르제토 주지아로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혁신적인 사고와 창의적인 감각으로 매번 새로운 디자인을 선보인 그는 지금도 자신만의 철학을 바탕으로 미래의 자동차 디자인이 나아가야 할 길을 개척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The recipient of the 9th Pony Chung Innovation Award was Giorgetto Giugiaro who took the initiative in innovating 20th century automobile design. Over a long period, he has presented brand-new designs through both innovative thinking and a creative sense, and he is still exploring new paths to automobile design for the future based on his own philosophy.



세계자동차 디자인 중심에 서다

“한국 자동차 산업의 선구자였던 정세영 명예회장의 철학이 담긴 혁신상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60여 년간 디자이너로 일하면서 정세영 명예회장만큼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과 확고한 신념으로 추진력 있게 사업을 밀어붙였던 분은 보지 못했습니다. 당시 유럽 자동차 디자인과 기술 트렌드를 파악하기 위해 수많은 모토쇼와 자동차 제조회사들을 직접 찾아 다니며 저에게 하나하나 조언을 구하셨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히 떠오릅니다. 그분의 뜨거운 열정과 노력이 오늘날 한국 자동차 산업의 눈부신 발전에 초석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조부와 부친 모두 화가인 예술가 집안에서 태어나 순수미술을 공부하던 주지아로는 제 2차 세계대전 후 이탈리아에 불었던 공업화 바람의 영향으로 산업 디자인 분야로 관심을 돌렸다. 17세 때 국립예술 아카데미 졸업작품전에 내놓은 작품이 피아트 디자인 책임자에 눈에 띄어 바로 스카우트된 이후, 20대에는 이탈리아 자동차 디자인의 거장 누치오 베르토네에게 발탁됐다. 수석 디자이너로 입사한 그는 업계에 ‘주지아로’라는 이름을 각인시킬 만한 혁신적인 작품들을 만들기 시작했다. 1963년 데뷔작이자 최초의 드림카인 알파로메오 테스투도를 비롯해 줄리아 GT, 페라리 250 등 1965년 베르토네사를 퇴사할 때까지 27대의 차를 디자인했고, 그 중 13대가 양산에 성공했다.

이후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카로체리아(Carrozzeria:자동차 소규모 공방)였던 기아(Ghia)로 옮겨 스타일링 센터와 프로토타입 부문 책임자로 일하다 마침내 1967년, 유능한 엔지니어였던 알도 만토바니와 함께 이탈 디자인을 설립했다. 이후 세계 자동차 디자인의 역사는 일대 변혁을 맞았다. 주지아로는 이탈 디자인을 통해 BMW, 피아트, 아우디, 부가티, 캐딜락, 페라리, 포드 등 세계 유수의 자동차 브랜드의 디자인을 하면서 세계 자동차 디자인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1974년 폭스바겐의 골프를 비롯해 1980년대 유럽 최고의 디자인을 입혔다는 피아트의 판다와 우노 등 수많은 역작들을 빚어내며 그는 산업 디자인계의 최고 영예인 골든 콤파스 상을 비롯해 수많은 상을 휩쓸었다. 1984년에는 영국 전통대학인 황실 예술대학이 주는 명예 예술박사 학위를 받으며 전 세계적으로 당당히 실력을 인정

받은 그는 지금까지도 세계 자동차 디자인의 혁신을 주도하며 높은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 자동차 산업과의 깊은 인연

“1971년 도쿄 모터 쇼에서 정세영 명예회장을 처음 만났습니다. 첫인상만으로도 현명하면서도 확고한 신념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었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막상 한국에 들어와 보니, ‘과연 이 상태에서 고유모델 개발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에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저의 이런 모습을 보고 정 명예회장은 거대한 규모의 현대 조선소로 데려갔습니다. 평범한 해변이었던 곳이 단기간에 세계적인 조선소로 탈바꿈한 현장을 직접 보여주며 한국의 자동차 산업의 혁신 역시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손잡고 위대한 혁신을 이루자고 진심으로 설득하셨고, 결국 꿈을 향한 그분의 신념과 열정에 마음을 열어 포니라는 고유모델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정세영 명예회장의 전폭적인 믿음과 협업으로 주지아로는 포니와 포니 쿠페 디자인 개발에 성공했다. 포니와 포니 쿠페는 1974년에 토리노 모터쇼에서 화려한 스포트 라이트를 받으며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고, 1975년 포니가 시판되며 한국은 자동차 고유 모델을 생산하는 16번째 나라로 위상을 드높일 수 있었다. 이후 그는 현대자동차의 스텔라와 엑셀, 쏘나타를 디자인하며 인연을 이어나갔다. 또 대우차의 레간자, 마티즈, 매그너스, 쌍용자동차의 코란도C를 디자인하며 한국이 자동차 강국으로 발돋움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저의 디자인 철학은 단순히 아름다움만을 위한 게 아닌, 직선과 곡선을 최대한 조화롭게 살려 활용도를 높이는 것에 있습니다. 그만큼 대량생산이 쉽고 부품값도 덜 들어 서민들이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지아로는 실용성과 공간 활용도, 접근성 등 다양한 관점에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배려의 미학을 펼쳐며 자신만의 디자인 철학을 확립해 나갔다. 그는 자동차 분야뿐만 아니라 니콘 카메라, 애플 컴퓨터, 전화, 가구 등 다양한 분야의 산업 디자인에도 적극 참여하여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였다. 직선과 곡선의 마술가로서 세계 디자인의 혁신의 바람을 몰고 온 그의 미적 감각과 스타일은 지금도 계속 혁신 중이며, 전 세계 많은 디자이너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

Standing at the center of the global automobile design

“I am honored to receive the Pony Chung Innovation Award which follows the philosophy of Honorary Chairman Chung Se-young, who was a pioneer in the Korean automobile industry. Working as a designer over the past 60 years, I have never seen a person who did business with a firm belief and

such an insight into the future like him. I vividly remember him asking for advice while personally visiting countless motor shows and automakers in order to figure out European car designs and technological trends in those days. His enthusiasm and efforts laid the foundation for the brilliant development of the Korean automobile industry today.”

He was born to an artist family where his grandfather and father were both painters. He was also studying fine art when he turned to industrial design influenced by the industrialization trend in Italy after World War II. At the age of 17 Giugiaro was instantly scouted by the head of Fiat’s design division, who paid attention to Giugiaro’s work displayed at the graduation exhibition of the National Art Academy. Later, he was singled out by Italian automobile design master Nuccio Bertone in his 20s. After he entered Bertone as a senior designer he started to make innovative works that would mark the name “Giugiaro” on the industry. Until he left the company in 1965, he designed 27 cars of which 13 were successfully mass-produced including his debut work Alfa Romeo Testudo in 1963, Alfa Romeo Giulia Sprint GT, and Ferrari 250.

Later, he moved to Ghia, a leading carrozzeria (small-scale car workshop) in Italy to work as the head of its styling center and prototype division. Finally in 1967, he founded Italdesign together with the talented engineer Aldo Mantovani. And after that, the history of the world’s automobile design drastically changed. Giugiaro entirely changed the global trend of car design as he designed for the world’s leading automakers such as BMW, Fiat, Audi, Bugatti, Cadillac, Ferrari, and Ford at Italdesign. Giugiaro designed many masterpieces such as the Volkswagen Golf in 1974 and Fiat’s Panda that is considered as the best design in the 1980’s Europe. He has won numerous design awards, one of which is the Compassod’Oro Award, the most prestigious award in industrial design circles. In 1984, he was recognized for his ability once again as the Royal College of Art in London awarded him an honorary degree in design. Up until now, he has maintained his fame while taking the initiative in innovating the world’s automobile designs.

Close ties with the Korean automobile industry

“I met Honorary Chairman Chung Se-young for the

first time at the Tokyo Motor Show in 1971. Just from the first impression, I could see that he had wisdom and a firm belief. And also, I became interested in the country Korea. However, when I actually visited Korea I was not sure. I wondered if they could develop their unique car models in such conditions. Then, he took me to the Hyundai Heavy Industries’ huge-sized shipyard. He showed me the site where a simple beach had been transformed into an internationally renowned shipyard in a short time, saying that the innovation of the Korean automobile industry was also possible. He sincerely persuaded me to cooperate for great innovation and my heart was opened to his belief and enthusiasm for his dream. And that is how I set out to develop the unique model called the Pony.”

With wholehearted faith and collaboration, Giugiaro succeeded in developing the design of the Pony and the Pony Coupe, which were paid attention to by the world at the Torino Motor Show 1974. When the Pony was released in 1975, Korea became the 16th country in the world to produce its own car model. Later, he continued to work with Hyundai Motor Company by designing Stella, Excel, and Sonata. Also, he designed Daewoo’s Leganza, Matiz, and Magnus; as well as Ssangyong’s Korando C; contributing to Korea’s growth as a power in the automotive industry.

“My design philosophy is not just simply for beauty but also lies in improving utilization by maximizing the harmony of straight lines and curves. It should also facilitate mass-production and lower costs of parts so that common people can use it without a big burden.”

Giugiaro established a design philosophy of his own while he paid attention to the details from various points of view -- considering practicality, space utilization, and accessibility, as well as being aesthetically considerate. He also demonstrated his excellent ability as he actively participated not only in car design but also in other areas of industrial design including the Nikon camera, Apple computer, telephones, and furniture. He brought innovation into the world of design as a magician of straight lines and curves; and yet his aesthetic sense and styles are still undergoing innovation. And meanwhile, he still provides inspiration for numerous designers around the world.

ACADEMIC GRANTS

학술지원

기본이 바로 서야 경쟁력도 커진다

자동차의 기본은 엔진입니다. 때문에 정세영 명예회장은 대한민국 최초의 고유 모델인 포니 개발이 성공리에 마무리되고, 1976년 에콰도르를 시작으로 1986년 자동차의 본고장 미국에 이르기까지 해외 진출이 나날이 확대되던 시기에도, 자동차 엔진 국산화의 꿈만은 절대 미뤄두지 않았습니다. 1984년 ‘알파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독자엔진 및 트랜스미션 개발이 마침내 완성된 게 1991년. 8년 여에 걸쳐 300여 대의 엔진, 200대의 트랜스미션, 15대의 시험차량이 투입되었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프로젝트였지만, 정세영 명예회장은 포기를 모르는 도전정신으로 순수 독자기술 완성차 생산에 성공했습니다. 이어 ‘수출만이 살 길이고, 기술 개발 없이는 수출도 요원하다’는 신념으로 기술 혁신을 독려했고, 이는 1996년 10월 첨단 자동차 기술의 산실인 남양 자동차 종합기술연구소 준공으로 이어졌습니다. 기초가 탄탄하고 기본이 바로 서야 차별화 된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다는 정세영 명예회장의 신념이 우리 자동차 산업의 양적, 질적 성장을 가져온 것입니다.

기초학문에 대한 남다른 애정

정세영 명예회장은 ‘학문도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기초학문의 발전 없이는 실용학문의 발전도 없다’고 믿었습니다. 고려대 정치학과에서 수학하는 동안 각종 교양서적을 섭렵하며 인문학에 매료되었던 그는, 기초학문이야말로 국가 발전의 밑거름이 되는 기본 중의 기본이라 생각했습니다. 가난한 가정형편으로 뒤늦게 책을 접했고, 열 살이 되어 서야 간신히 소학교에 입학했지만, 정세영 명예회장은 책에서 좀처럼 손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열정적인 자세로 학문에 전념했고, 전공이든 교양이든 가리지 않고 부지런히 학문에 매진했습니다. ‘독서광’, ‘메모광’이라 불렸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1953년 고려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한 후 이듬해 미국 유학길에 올

랐던 것 또한 학문에 대한 불타는 열정 때문이었습니다. 학비 문제로 명문 뉴욕 콜롬비아대학교 석사과정을 떠나 1955년 전액 장학금을 받는 조건으로 오하이오주 마이애미대학으로 이적했을 때도 학문에 대한 열정은 그를 지탱하는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정세영 명예회장이 외국인 졸업생으로는 처음으로 마이애미대학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 받을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세영 명예회장은 학문, 특히 기초학문에 대한 투자야말로 국가 경쟁력을 굳건히 하는 기반이라 생각했고, 그 믿음을 다양한 지원책으로 구현했습니다. 이화여대 아산공학과, 고려대 이화관 등을 설립해 기증한 것이 그 좋은 사례입니다.

신념이 투자로 이어지다

포니정 재단은 정세영 명예회장의 이 같은 뜻을 이어받아 지난 2009년부터 인문학에 대한 학술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위해선 모든 학문의 기본인 기초학문에 보다 긴 안목과 호흡으로 더 많은 투자와 지원을 해야 한다는 정세영 명예회장의 신념이 학술지원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특히 지난 2012년부터는 역사 분야에 한정되었던 기존의 학술지원을 인문학 전체로 확장하고, 지원 대상 또한 교수에서 학위 취득 5년 이내의 인문학 박사로 대폭 수정함으로써 보다 많은 인문학 연구자들이 포니정 재단의 학술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문호를 넓혔습니다. 포니정 재단의 학술지원 수혜자는, 매년 6월 학술지원 연구과제 공모를 통해 우수 박사 연구자들로부터 연구계획서를 접수 받은 후, 타 대학 전공교수의 교차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최종 심사를 맡은 교수 3인의 1대1 심층면접평가를 통해 선발됩니다. 단, 연구자는 문학 박사학위 취득 5년 이내인 자로 전임강사 이상은 제외하며, 연구계획서에는 본인이 연구하고 싶은 분야와 목적, 세부 계획 등이 표기되어야 합니다.

1984년 ‘알파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본격적인 독자엔진 및 트랜스미션 개발에 착수한 이래, 테스트를 위한 엔진 시제품만 300여 대, 트랜스미션 200대, 시험차량 15대 등이 투입되었다.

1991년 마침내 우리는 자동차의 기본인 스타일링뿐만 아니라 엔진 및 트랜스미션 설계의 자체 개발에 성공했고 이로써 순수 독자기술에 의한 완성차를 생산하게 된 것이다.

– 1991.01. 정세영 명예회장

인문학의 미래를 밝히다

포니정 재단은 앞으로도 꾸준히 매년 2~3명의 연구자를 선정해 총 4,000만원의 연구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연구 결과에 따라 별도의 심사를 거쳐 출판지원금 1,000만원을 지원하고 ‘포니정 학술총서’로 발간해 보전할 계획입니다. 문학, 사학, 철학 등 기초학문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으로 학계의 찬사를 한 몸에 받고 있는 포니정 재단의 학술지원, 그 성과가 ‘포니정 학술총서’로 차곡차곡 쌓여 인문학의 희망찬 미래를 밝혀나가길 기대합니다.

A solid foundation will improve competitiveness

The most basic part of an auto-mobile is the engine, which is why Honorary Chairman Chung Se-yung did not stop pursuing his dream of building engines in Korea—and not importing them—even in the days when Hyundai Motor Company was selling cars overseas. After successfully completing work on Korea’s first independently built automobile model, the Pony, Hyundai started selling automobiles in Ecuador in 1976 and then moved on to the U.S. in 1986. However, the engine and transmission—built entirely using Korean technology—were produced later as part of the Alpha Project, which was launched in 1984 and completed in 1991. Although things were difficult and demanding for more than eight years, Chung succeeded in producing truly Korean automobiles as a result of his relentless pioneering spirit. He then encouraged even greater technological innovation with the belief that exports are critical for a country’s survival, and Hyundai could not

export anything without further developing its technology. This kind of thinking led to the completion of the Namyang Technical Research Center, the cradle of cutting-edge automotive technology, in October 1996. Chung’s belief in the necessity of a solid foundation to ensure unique competitiveness brought about the growth of Korea’s automotive industry both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A special affection for fundamental studies

Chung believed that studying was no different than automobiles, and that without developing a basic ability to study, one could not carry out any kind of meaningful, practical studies. While a student at Korea University’s Department of Politics, he was fascinated by the humanities and liberal arts, so read a wide variety of books in those fields. He also thought that understanding the basics to studying was a very important element for a country to become more developed. Although he started reading relatively late because of his family’s financial situation (and didn’t start elementary school until the age of 10), Chung was always hungry to learn more about everything, not just his field of study at university.

Out of such a passion for learning, Chung went to the U.S. a year after graduating from Korea University in 1953 to continue his studies. In 1955, he changed schools, going from Columbia University in New York to Miami University in Ohio, because Miami of Ohio offered him a full scholarship for his master’s degree. Due to financial constraints, he

Since we set out to develop the company's very own engine and transmission as part of the Alpha Project in 1984, 300 engine prototype units, 200 transmission units, and 15 test vehicle units have been used in tests. In 1991, we finally succeeded not only in developing our very own styling of a vehicle, but we also single-handedly designed an automobile engine and transmission without any external assistance that same year, marking the first time a Korean car company had ever produced an automobile using purely independent technology.

- Chung Se-yung, January 1991

had to leave his school of choice in 1955, at which time his passion for learning became a pillar of hope for him. Later, Chung was given an honorary Ph.D. degree from Miami of Ohio University, the first time it had conferred such a degree on a foreign graduate. Chung Se-yung believed that an investment in one's basic studies formed a solid foundation for a country's competitiveness. Indeed, Chung embodied this belief in various ways by supporting numerous schools, like when he donated the money necessary to build Asan Hall at Ewha Womans University and the Natural Science Hall at Korea University.

Beliefs lead to investments

The Pony Chung Foundation has supported liberal arts and the humanities since 2009, following Honorary Chairman Chung Se-yung's belief that we should invest more money in fundamental studies, the foundation for further studies and the continuous growth and development of Korea. In 2012, the Pony Chung Foundation expanded the number of fields it supported, from only history to all of the humanities and liberal arts, and expanded the number of potential recipients to Ph.D. holders who earned their degree five years ago or later so that more researchers in the humanities and liberal arts could receive academic support from the Pony Chung Foundation.

The beneficiaries of this academic support are selected through in-depth one-on-one interviews with three professors (judges) after the foundation has had a chance to

review each highly qualified candidate's study plans through an open invitation to the public, and after they have been screened through cross-evaluations by professors from different universities. However, if a Ph.D. holder earned their degree five years ago or later and is now a full-time university lecturer, he or she is excluded. Furthermore, each study plan should specify the field in which the applicant wants to study, the goal of the study, and a detailed plan on how to accomplish their goal.

Brightening the future of the humanities and liberal arts

The Pony Chung Foundation will continue to support two or three researchers every year from a fund that totals KRW 40 million. Depending on the final study results, a publication grant of KRW 10 million will be provided to select applicants through a separate screening process, with the study results published as part of the Pony Chung Academic Series. As more books are published through this unique series, it will have a greater ability to brighten the future of the liberal arts and humanities.



Discovering new meaning in history by studying the changes and relations of 19th century American regionalism and abolitionism

미국 지역주의와 노예제 폐지론의 변화와 연관성을 연구하여 새로운 역사적 의미를 찾습니다.

허현 Hur Hyun, Ph.D. (History,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2015년 포니정 학술지원의 첫 번째 대상자는 19세기 미국의 지역주의와 노예제도의 변화와 연관성을 연구하고 있는 허현 박사입니다. 이번 연구를 통해 허현 박사는 한국 지역주의에 대해 냉철한 평가는 물론 지향점도 함께 생각해볼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The first recipient of this year's academic grant from the Pony Chung Foundation is Dr. Hur Hyun, who studied the changes and relations of 19th century American regionalism and slavery. Hur hopes that his study will provide an opportunity for a cool-headed assessment of Korean regionalism and its goals.

역사 속에서 가장 낮은 목소리에 주목하다

“기초학문 분야의 발전과 세계 학문의 선진화를 모토로 인문학 진흥을 위해 힘쓰고 있는 포니정 재단의 관심과 지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그만큼 책임감을 느낍니다. 국내의 척박한 인문학 연구 환경에 대한 웬만한 관심이 없다면 이어나가기 힘든 지원 사업이라는 점에서 포니정 재단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허현 박사는 연세대학교에서 학·석사과정을 마치고 풀브라이트 장학생으로 위스콘신주립대학에서 「Radical Antislavery and Personal Livery Laws in Antebellum Ohio(1803-1857)」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허현 박사가 처음 역사를 연구하기로 결심했을 때 어렵פות이 세웠던 방향성은 역사 속에서 가장 낮은 목소리에 주목해 보자는 것이었

다. 역사 속에서 목소리가 낮았다고 해서 그 반향이나 울림이 작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박사 학위 논문에서 노예제 폐지론이나 노예제 폐지론자들을 학문적 주제로 삼았던 것도 당시에는 국민적 지지를 받지 못하고 소수 광신자들의 급진적 이념으로만 취급 받았던 노예제 폐지론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됐다. 1789년 이후로 헌법이 한 번도 바뀐 적 없는 미국에서 도망 노예에 관계된 구체적인 법이 있다는 점도 흥미로웠고 추가되는 수정 조항들을 통해 가장 낮은 위치에 있었던 노예에 대한 법과 인식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사회로 변화해가는 과정에 주목하게 됐다. 이번 학술지원 연구 주제 또한 「19세기 미국의 지역 및 지역주의 그리고 노예제폐지론 및 노예제폐지운동의 변화」로 그 동안 연구했던 주제를 확장해 구체화 한 것이다.

미국 정체성 형성에 바탕인 지역주의

“한국 사회에서 지역주의란 지역간 대립, 파괴적이고 망국적인 속성이 짙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지역주의는 좀 독특합니다. 일반적으로 남북 전쟁에 대한 단순한 이해로 인해 미국의 지역주의가 1861년 미국 내전을 일으킨 주범이라고 인식되지만 이것은 오해입니다. 미국의 내전을 일으킨 주 요소는 남북간의 지역적 갈등이 아닌 노예제 문제였습니다.” 허현 박사는 역사적으로 볼 때 미국이 국가적 정체성을 형성하고 발전하는데 건실한 바탕이자 도약대가 되어 준 것이 바로 지역주의라고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출신 도를 밝히는 것이 분열적인 논란의 바탕이 될 때가 많지만 미국에서는 미국 연방을 이루는 각 주에 대한 소속감이 미국의 독특한 내셔널리즘 그 자체를 형성하고 국민적 혹은 국가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렇게 건실적이었던 미국의 지역주의에 대한 보다 더 엄밀한 연구를 통해 한국 지역주의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더불어 지향점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지역주의는 내셔널리즘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충돌되기는커녕 그 자양분이 되었다는 점 자체만으로도 역사적인 연구가치가 충분하지만 역설적으로 미국 내에서는 지역주의가 별 갈등을 일으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슈가 되지 않았고 연구 자체도 미약한 실정이다. 지역주의를 통해 시도해 볼 수 있는 미국사의 연구 방향은 다양하지만 허현 박사는 연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고려해 이번 연구를 통해 지역 및 지역주의와 노예제 폐지론의 연관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새로운 관점으로 미국의 지역주의를 바라보다

“일반적으로 미국 내전 이전 19세기 전반기 미국 사회를 북부의 자유주의와 남부의 노예주의로 도식적으로 이분화해 무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노예제를 둘러싼 오명을 남부에 씌우고 있을 뿐 아니라 북부 사회에 만연해 있던 인종주의와 각종 인종차별법 및 도망노예법으로 반인권적 역사를 왜곡하고 있죠. 이러한 문제의식으로 북부 사회에서 유지되었던 흑인들에 대한 반인권적 사회 관행과 인종차별법을 새롭게 고찰함으로써 지역적 성격을 재규정하고 평가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허현 박사는 이번 연구에서 주의해야 할 점으로 지역주의에 중층성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영어로는 ‘Localism Regionalism’, ‘Sectionalism’ 등 다양한 층위에 대한 용어가 있고 실제로 지역별로 독특한 하위지역주의가 존재하지만 우리 말로 번역을 하면 ‘지역주의’라는 단일개념에 갇히게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심스런 접근으로 연구의 질을 높일 예정이다.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인문학

먼 나라 이웃나라 미국의 역사를 전공하고 있는 허현 박사에게 국경을 뛰어넘는 인문학의 본질에 대해 묻자 ‘보편성’에 대해 강조했다. “인문학의 힘은 인간의 보편성을 이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며 결국에는 인간과 삶에 대한 예의를 배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인간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조차 하나의 보편성이고 서로 다르지만 하나의 인류라는 사실 또한 보편성입니다. 이해와 포용에 바탕을 둔 공존의 힘으로 인간과 삶에 대한 예의를 갖추고 우리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인문학은 철저히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Paying attention to the smallest voices in history

“I’m very honored by the fact that I came to be supported by the Pony Chung Foundation where they work hard to promote the humanities with the motto of developing the field of fundamental studies and advancing the world’s academia. Therefore, I feel even more responsible for my work. I would like to express my deep respect and gratitude to the foundation.” Hur completed his bachelor and master courses at Yonsei University before he received his Ph.D. at the University of Wisconsin with a Fulbright scholarship for the thesis titled “Radical Anti-Slavery and Personal Liberty Laws in Antebellum Ohio (1803-1857).” When Hur first decided to study history, he vaguely aimed at paying attention to the smallest voices of history. It was because he thought that the smallest voices were not always of the least influence or reflection in history. He chose the academic themes of abolitionism and abolitionists for his doctoral thesis; where he began with his interest in abolitionism -- which advocated Afro-Americans’ rights and universal freedom -- although it was not widely supported by the entire country and was considered radical fanaticism at the time. It was also interesting that some specific articles regarding runaway slaves were included in the federal constitution, which had

never been changed since it was established in 1787. And thus, he examined the abolition of slavery and how American society seriously dealt with the issue of human dignity, through the devotion of abolitionists to correct the regressive conditions and constitutional order regarding racial issues. The theme of this year’s study “19th Century Regions and Regionalism in the U.S., and Changes in Abolitionism and Abolitionist Movements” has also been expanded and comprehensively examined since previous studies.

Regionalism at the Base of American Identity

“In Korean society, regionalism has a strong image of something destructive and ruinous to the state, not a simple confrontation between regions. However, American regionalism is rather unique. Generally, a simple interpretation of the American Civil War leads to the conclusion that American regionalism was the major cause of the civil war in 1861, but this is a misunderstanding. The major cause of the civil war was not regional conflict between the North and the South but the slavery issue.” The U.S. went through nation-wide controversies and division because of unprecedented racial, economic, and cultural conflicts; as well as class division and religious confrontation. Regional conflicts have also been considered major reasons for such social conflicts and divisions. However, Hur Hyun says it was nothing but regionalism that provided a solid basis and launch pad for the U.S. to form its national identity and develop from a historical point of view. “In Korea, revealing one’s home province often starts a divisive controversy but in the U.S., people’s sense of belonging to each state or a certain region as part of the federation forms a unique nationalism in itself and plays a key role in forming their national identity. I hope that we can give a cool-headed evaluation of Korean regionalism and its goals through a more serious study on such a constructive aspect of American regionalism.” American regionalism is worthwhile enough to study, given the fact that it provided fertile soil for the formation of nationalism instead of causing conflicts; but paradoxically, regionalism did not become a big issue because it did not cause significant conflicts in the U.S. And this is not actively being studied, either. Although there are many different

ways to approach American history through regionalism, Hur Hyun intends to focus on the relations between regionalism and abolitionism through this study for a more efficient and specialist understanding of the subject.

Looking at American regionalism from a new perspective

“Generally, there is an uncritical awareness of dividing American society in the first half of the 19th century into the North without slavery and the South with slavery. This is also chronic in academic circles. This view distorts the North’s history against human rights as seen by the rampant racism in society and the various laws based on racism in the North. Furthermore, it tars the South with all the dishonor around slavery. Commencing from such a critical mind, I expect to redefine and evaluate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by freshly contemplating on the social practices used and the segregation laws against Afro-Americans’ rights, which were maintained in Northern society.” Hur Hyun says that in regards to this study, we need to recognize that regionalism is multilayered. In English, there are many layers of terms such as localism, regionalism, and sectionalism; and actually unique sub-regionalism can also exist in each region. However, when translated into Korean those terms are limited to just one concept *jiyeokju* (regionalism), so Hur plans to improve the quality of his study through a careful approach to the subject.

Realistic and future-oriented humanities

When asked about the essence of the humanities that goes beyond territorial borders -- as he is studying American history -- he emphasized “universality.” “The power of the humanities lies in understanding the universality of humans, creating common awareness, and finally being able to learn the respect for human beings and life. The fact that people are different from one another is an aspect of universality, and the fact that we belong to the same humankind, although we are different, also means universality. I think the humanities are thoroughly realistic and future-oriented disciplines in that they can enrich our lives with respect for human beings and human lives -- through the power of coexistence based on understanding and acceptance.”



I interpret reactionism in East Asian literary circles in a new way from a balanced perspective.

균형적인 시각으로 근세 동아시아 문단에서의 복고론을 새롭게 재해석합니다.

하지영 Ha Ji-young Ph.D.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Ewha Womans University Graduate School)

2015년 포니정 학술지원의 두 번째 대상자는 근세 동아시아 문단에서의 복고론을 연구하고 있는 하지영 박사입니다. 하지영 박사는 균형적인 시각으로 3개국 비교 연구를 통해 동아시아 문단에서의 복고론의 새로운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찾고 있습니다.

The second recipient of the 2015 Pony Chung Academic Grant is Dr. Ha Ji-young, who studies modern East Asian reactionism in a literary way. Ha is exploring new historic value and meaning of reactionism in East Asian literary circles by comparing three countries from a balanced perspective.

연구생활에 디딤돌이 된 포니정 학술지원

“박사 졸업 후 연구를 시작하는 상황에서 포니정 재단의 지원을 받게 되어서 기쁩니다. 박사 논문을 바탕으로 연구 주제를 보다 더 확대할 계획이었는데 학술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바로 현실화 시킬 수 있었습니다. 제 연구생활에 큰 디딤돌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영 박사는 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한문학으로 동 대학원에서 박사과정까지 공부했다. 8월에 졸업하고 12월에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소식을 접해 주위의 축하를 한 몸에 받은 하지영 박사는 선정 과정에서 세밀하게 진행됐던 학술지원 심사가 인상 깊었다고 전했다.

“인문학 분야는 연구 성과와 글로 표현하기 때문에 이렇게 꼼꼼한 1:1 면접이 진행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제게는 큰 경험 이 되었습니다. 인문학계에 유명한 교수님들 앞에 앉아서 30분 동안 연구에 대해 말

씀 드리자니 혹여 말실수를 할까 긴장이 됐습니다. 제 연구가 오늘날 사회에서 고전의 가치와 의미를 모색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지 등 날카로운 질문을 많이 하셔서 연구를 많이 보완해야겠다고 반성했습니다. 반면 여성이 학문을 지속하기 어려운 현실을 이해하시면서 따뜻한 격려를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훌륭한 교수님들과 연구에 대해 대화할 수 있어 영광스러운 자리였고, 바로 답하지 못했던 질문에 대해서는 스스로 계속해서 답을 구하고 조언 주신 부분들은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복고론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해석 그리고 평가

하지영 박사는 「근세 동아시아 문단에서의 이상적 축과 그 회기 - 문학에서의 복고론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올해 두 편의 논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근대 동아시아 문단에서의 고전의 가치를 회복하자는 논의가 대두되고 공감되는 양상에 주목해보고, 각 국의 실현 양상을 비교 검토하며 그 의미를 모색하는 것이 목적이다. 「18세기 진한고문록의 전개와 실현 양상」이라는 주제로 18세기 중국을 중심으로 연구했던 하지영 박사에게는 이번 연구가 시대 뿐 아니라 한, 중, 일 3국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기존 연구 내용을 보완하고 폭을 넓히는 의의가 있다.

“복고론은 16~18세기 동아시아 문단을 관류하는 핵심 담론이지만 그 동안 형식적으로 옛 것을 흉내 내는 것으로 인식되어 저평가되어 왔습니다. 저는 당대 문인들이 고전을 통해 문학과 사유, 정치 현실이 봉착한 한계를 돌파하고자 한 의도를 가진 것에 주목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동일선상에서 논할 수는 없지만 그 지향성만큼은 서구의 르네상스 운동에 비견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후세의 평가에 대해서도 한, 중, 일이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문학적 사유 자체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복고론이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는 흉내에 가깝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에는 복고론을 일본의 주체적 사상의 근본으로 높이 평가하고 있죠.”

균형있는 시각으로 과거를 되돌아보다

비슷한 논의에서 시작했지만 이렇게 시각이 달라지는 이유는 각 나라가 근대를 맞이하는 양상과 문학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 일 것이다. 하지영 박사는 이번 비교연구를 통해 거대포장 되어 온 것에 대해서는 비판적 시각으로, 주목 받지 못했던 연구에 대해서는 관심을 환기시킴으로써 시각과 평가의 균형을 맞추고자 한다. 국내에서 비슷한 시기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연구성과를 발표하고 있는 연구자들이 있지만 16세기부터 18세기에 걸쳐 중국에서 한국, 일본으로 유행이 옮아간 복고론에 대한 해석과 관심이 조금씩 다르다고 한다.

“국내에 발표되고 있는 연구성과들은 17세기에는 이미 조선에서 복고론이 끝났다고 보기 때문에 복고론 비교연구는 조선의 16세기와 일본의 18세기를 비교하는 식으로 시간 축이 뒤틀려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른 생각입니다. 박사 논문에서 저는 여러 자료를 바탕으로 18세기까지 조선에서도 복고론이 유지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나아가 이 시기까지도 여전히 조선문인과 일본문인이 만나서 이 담론에 대해 논의했던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복고론이 한일간에 주요 관심사로 지속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두 문단의 자료를 비교 검토하여 18세기라는 시점에서 복고론이 가진 의미는 무엇인지 고찰해 보고 싶습니다. 연구를 진행하면서 중국과 일본 쪽 논문을 검토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진척된 연구결과를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중국과 일본에서 마련하고 있는 동아시아 담론에는 각국의 중화론, 탈아론 등 역사적, 정치적 입장이 내재되어 있고 이러한 근거들은 문학을 포함한 모든 분야의 연구 성과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국내 연구도 분발하지 않으면 각국에서 마련한 동아시아 담론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겠다는 위기감이 들었습니다.”

하지영 박사는 특히 첫 번째 논문에서 조선과 에도 문단의 복고론의 전개 배경과 그 향방에 대해서 살펴봄여 전후철자의 복고 담론을 어떻게 변용시켜 수용하는지 그 동이점에 주목할 예정이다. 연구를 이미 상당히 진척시켰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 발표할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이를 바탕으로 16~18세기 동아시아 각국에서 복고론에 주목했던 시대적 배경과 그 의미를 보다 폭넓게 조망할 예정이다.

The Pony Chung academic grant that provided a stepping stone for research

“I’m honored to receive support from the Pony Chung Foundation when I was starting research after completing my Ph.D. degree. I was planning to expand my research theme based on my Ph.D. thesis, and I was able to realize this as I was selected as a recipient of the academic grant. This will be a great stepping stone for my research.”

Ha graduated from Ewha Womans University’s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and did her Ph.D. in Chinese classics at the graduate school of the same university. After graduating in August 2014, she was selected as a recipient of a Pony Chung academic grant in December. She says the detailed screening process was impressive to her.

“As scholars in the field of humanities express research results in writing, it was rare to have such a detailed one-on-one interview, but it was a very meaningful experience to me. I was nervous about making mistakes as I was talking to famous professors in the field for 30 minutes. They asked me many detailed questions, including how my research can specifically help today’s society explore the value and

meaning of classics. On the other hand, they understood how difficult it is for women to pursue an academic career and provided me a lot of encouragement. It was an honor for me to have a conversation with such great professors, and I will seek answers to the questions I could not answer right away. Furthermore, I will do my best to improve my work by heeding their advice.”

A new view, interpretation, and evaluation about reactionism

Ha is planning to publish two researchpapers this year under the theme of “The Ideal Axis of East Asian Literary Circles during Modern Times and Its Reappearance: Focusing on Reactionism in Literature.” They will focus on emerging discussions and awareness to restore the value of classics that they had in East Asian literary circles in modern times, and also aims to comparatively examine the situations of different countries. Ha mainly studied 18th-century China under the theme of “The Development and Realization of Qin and Han Dynasties’ Classical Literature during the 18th Century.” This year’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complements and expands the time period and content of the existing study by examining three countries: Korea, China, and Japan.

“Although reactionism was the core discourse that penetrated the East Asian literary circles during the 16th to 18th centuries, it has been devalued as the simple imitation of the old styles. I pay attention to the fact that those in the literary world back then intended to break—through classics—the limits that literature, thoughts, and politics people faced. Although we can not see the results of their efforts at the same level with the West’s Renaissance, I think it is comparable to a Renaissance at least in terms of their goal. In fact, later generations in Korea, China, and Japan evaluate reactionism in different ways. Scholars in China and Korea are interested in literary thought itself, so they think reactionism is more of mimicking without vision about the future, but Japanese scholars highly regard reactionism as the essence of an independent idea.”

Looking back at the past from a balanced perspective

Although reactionism began from similar discussions, three

countries have different views because each country had different ways of facing modern times and perspectives towards literature. Ha tries to take a balance between views and evaluations by creating a critical view of what has been overestimated and by drawing attention to what has been taken out of the picture in the study of this topic. Although there are researchers who release their study results with an interest in the same time period, their interpretation and interest in reactionism changed from China to Korea to Japan from the 16th to the 18th centuries, she says.

“The study results being released in Korea show the view that reactionism already ended in Joseon during the 17th century. However, I have a different idea. In my doctoral thesis, I revealed that reactionism was still maintained in Joseon until the 18th century based on many different materials. Furthermore, there is a record of literary people in the Joseon dynasty and Japan meeting together to discourse in that period, so I think reactionism was a continuous matter of interest between the two countries. Now, I would like to study the meaning that reactionism had during the 18th century by comparatively examining materials from literary circles of the two countries. I am examining research papers from China and Japan where they have a considerable number of study results. The two countries’ discourses about East Asia include historical and political positions, such as Sinocentrism and “Leaving Asia” ideology. Such evidence is inherent in the study results of many areas, including literature. I felt a sense of crisis: if Korean scholars do not work harder, we could not respond to East Asian discourses provided by other countries.”

In the first paper, Ha will examine the background of reactionism developed in the literary circles of Joseon and Japan, and the direction it developed while paying attention to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how those literary people modified it to accept the earlier and later the Seven Ming Masters’ reactionary discourses. Having already worked a lot on the study, she will release the first paper in the first half of 2015 and in the second half of the year she will shed light on the historic background when each East Asian country paid attention to reactionism from the 16th to 18th centuries, and its meaning from a wider perspective.

PONY CHUNG

포니정 장학금

SCHOLARSHIPS

미래를 만드는 건 사람이다

사람의 능력은 참으로 무궁무진합니다. 절대 안 될 것 같은 일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불굴의 의지, 저돌적인 추진력으로 밀어붙이면, 결국은 이루어지고야 맙니다. 정세영 명예회장이 추진했던 모든 일들이 그러했습니다.

또한 정세영 명예회장의 이 같은 확고한 신념은 인재 양성에서도 빛을 발했습니다. 그는 사람의 능력, 화합의 힘을 누구보다 잘 아는 리더였고, 인재에 대한 애정 또한 남달랐습니다. 술한 해외 출장과 대내외 활동으로 바쁜 일정 속에서도 매년 실시하는 신입사원 연수는 절대 놓치는 법이 없었고, 외국 기업과 기술 제휴를 할 때도 우리 인력의 연수 기회 조건을 반드시 부가해서 넣었습니다. 인재 역량을 키워 경쟁력을 확보하는 한편, 미래를 향한 비전을 공유하고 함께 실현시켜 나가자는 굳은 의지의 표현이었던 셈입니다.

가능성의 힘을 믿다

정세영 명예회장의 이 같은 인재 중시 철학은 비단 사내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세계 일류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인재 양성이 중요하다는 신념은, 직원 교육뿐만 아니라 미래의 인재 양성을 위한 투자로도 이어졌습니다. 서울대와 울산대 등에 기계공학 기술자를 파견해 전자공학 기술을 습득케 하는 메카트로닉스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1983년 외국인 졸업생으로서 처음으로 모교인 마이애미 대학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을 때도 한국어 강좌 개설을 요청, 모교에 미국 내 대학 최초로 한국학 강좌가 개설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한 정세영 명예회장은 1955년 미국 유학 당시,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이 중단될지도 모르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겪으며 장학금의 소중함을 체험했습니다. 며칠 밤을 새워가며 학업에 대한 의지를 편지에 담아 여러 대학으로 보냈고, 마침내 마이애미 대학으로부터 전액 장학금 지

급 결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꿈이 있는 인재들의 학업에 대한 열정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믿음과 함께, 미래 인재들을 위한 지원으로 이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의 내일을 후원하다

지난 2006년 12월부터 계속되어온 포니정 장학금은 이 같은 정세영 명예회장의 인재 중시 철학을 계승, 발전시켜 대한민국의 풍요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포니정 재단의 노력입니다. 2015년 현재까지 총 290명의 대학생이 포니정 장학금의 수혜를 받아 학업을 지속할 수 있었고, 그 전공 분야 또한 토목, 건축에서 인문학 등으로 나날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포니정 재단의 국내 장학금 수혜자 선정 작업은, 매년 9월 포니정 재단에서 지정하는 대학에 재학 중인 2~3학년 학생을 공개 모집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학업 성적은 우수하나 학자금 조달이 어려운 학생 중 30명을 최종 선발해 1년간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합니다. 더불어 장학생들은 1년간 동계 워크숍, 하계 현장답사, 현대산업개발 임직원과 함께하는 멘토링 제도를 통해 정기적으로 만나 서로의 비전을 공유하고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한 포니정 재단은 지난해부터 장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외학술탐방단을 선발해 학생들에게 깊이있는 전공분야 탐구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5월 초, 해외학술탐방단 모집 공지에 따라 2인 1조로 전공 심화 주제를 선정해 학술탐방 계획서를 제출하면 서류심사와 면접 PT를 거쳐 5월 말에 최종 2팀을 선발합니다. 탐방 계획대로 6주 이상 해외에 머무르며 중간보고서와 최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탐방비로 팀 당 1천 만원이 지원됩니다. 이루고 싶은 꿈과 이 꿈을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굳은 의지만 있다면 누구나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개발과 나라를 위하는 길은 스스로 실력을
배양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이며
따라서 더욱 끝없는 자기 혁신과 개발을
이룩해야 할 것입니다. ...
눈물에 젖은 빵이 실한 영양소가 되는 것처럼
땀과 인내로 이룩하는 소망이야말로
더더욱 값진 역사창조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현실은 냉엄하고 삭막하기조차 하지만 상당히
정직한 편이기도 합니다.
더디거나 빠른 차이는 있을지언정
여러분의 노력에 대한 사회적 보답은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 제86회 고려대학교 후기졸업식 교우회장 축사 中

베트남의 빛나는 미래를 앞당기다

포니정 재단의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노력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해외 장학사업의 첫 대상 국가로 베트남을 선정, 지난 2007년부터 현재까지 베트남 대학생 총 445명의 1년간 대학등록금 전액과 생활비를 지원해 왔습니다. 포니정 베트남 장학금은, 매년 9월 베트남 호치민 국립대학 과 베트남 하노이 국립대학에서 국제적 감각, 성적, 가정 형편 등을 기준으로 1차 후보자를 선발한 후, 10월 초 재단의 최종 심사를 거쳐 각 학교별로 30명씩, 총 60명의 장학금 수혜자 명단을 최종 확정합니다. 장학금 수여식은 각 학교별로 10월 말 혹은 11월 초에 개최되며, 1년간 대학 등록금 전액 및 생활비가 지원됩니다.
포니정 재단은 지난 2012년부터 기존 베트남 장학생 중 성장잠재력이 탁월한 졸업생들을 추천 받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에 입학해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베트남 초청 장학금 제도로 운영 중입니다. 기존 포니정 베트남 장학생 중 졸업 후 석사과정 유학을 준비 중인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고려대학교 대학원의 입학 심사를 거쳐 프로그램에 적합한 학생을 초청 장학생으로 선발하게 됩니다. 최종 장학금 수혜자 2명은 6월 말에 확정돼 9월에 입학하며, 입학금과 등록금은 고려대학교 대학원과 포니정 재단에서 분담해 전액 지원합니다. 또한 포니정 재단은 이와 별도로 2년간 매월 생활비 90만원, 왕복항공권, 50만원 한도의 논문인쇄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People make up the future

Our abilities as humans are boundless. What seems impossible today is eventually accomplished by those who seek to achieve their goals with confidence, an unshakeable will, and the strength to pursue daring initiatives. Honorary Chairman Chung was just such a man.
Chung also applied this set of beliefs to fostering talented people. He was a leader who understood the limitless potential of man's abilities better than anyone, and had extraordinary trust and affection for people. Despite his busy schedule and his commitments both inside and outside Hyundai—not to mention countless business trips overseas—he never missed the company's annual new employee training session. In addition, he made sure he personally signed every technology partnership agreement with foreign companies, each of which was always accompanied by an additional clause that stipulated Hyundai employees be properly trained.

Believing in the power of potential

Chung's belief that it is important to foster talented people in order for a company to thrive as a world-class company was connected not only to employee training but also to investing in today's students. He sent professional mechanical engineers to schools like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the University of Ulsan to teach mechatronics courses. When he received an honorary Ph.D. from Miami of Ohio (his alma mater) in 1983—the first time a foreigner had been granted a doctorate from the university—Chung asked that the school offer a Korean language course to students and fund America's first university-level Korean studies program.
Chung knew firsthand how hard it was to continue one's studies without the necessary funds. In 1955, he was forced to drop out of school because he could not afford the tuition any longer. After writing a number of different universities incessantly, day after day, he eventually got word from Miami of Ohio that they were willing to give him a full scholarship to continue his studies. He never forgot the joy and gratitude he felt in that moment. This experience only strengthened his firm belief that students with a lot of ambition and high ideals should be able to pursue their studies even when they face seemingly insurmountable difficulties.

We can never achieve self-development and contribute to making our country better without cultivating skills on our own. Thus, we need to constantly be innovating and seeking self-development...If you make your dreams come true through hard work and resilience, those same attributes will prove invaluable as you move forward in life. What goes around comes around. You have to believe that your efforts will be appreciated by society, even if it takes some time for this to happen. - from Chung Se-yung's speech at Korea University's 86th commencement ceremony

Supporting Korea's future

The Pony Chung Foundation has been giving out scholarships to students since December 2006 in an effort to keep Honorary Chairman Chung's philosophy alive of valuing talented people in preparation for Korea's future. In its first ten years, 290 students received scholarships, with eligibility broadening from civil engineering to the humanities and liberal arts. The Pony Chung Foundation's screening process for Korean students starts with an announcement inviting university sophomores and juniors from select schools (as designated by the foundation) to apply for a scholarship in September every year. Ultimately, 30 outstanding students who are having financial difficulties are provided with a year's worth of tuition fees. In addition, scholarship students receive opportunities to share their vision and have various experiences over the course of a year through several programs, such as the winter workshop, summer field trip, and mentoring programs run by Hyundai Development Company executives and employees.
In addition, the Pony Chung Foundation has provided select students with a chance to further explore their academic majors via the Global Research Trip Group since 2012. According to an announcement made at the beginning of every May, applicants in pairs submit their research trip plans, with two final teams chosen in late May through document screening, interviews, and presentation tests. Each team is given KRW 10 million and needs to submit two reports while they are overseas for their planned six-week stay. This

program is proof that anyone can make their dreams a reality if they have the will to make it happen.

Lending a helping hand to ensure Vietnam a brilliant future

The Pony Chung Foundation does even more to assist future talents. Since 2007, it has provided a total of 445 Vietnamese students with scholarships that cover tuition and basic living expenses for a year. Every September, the Pony Chung Vietnam Scholarship Program selects first-stage candidates from Vietnam National University (Ho Chi Minh and Hanoi campuses) based on their ability to see the world in a broader perspective, academic achievements, and financial status. That group is then shortened to a total of 60 recipients (30 from each school) through the foundation's final screening process in early October. Scholarship ceremonies are then held from late October to November at both schools.
Since 2012, the Pony Chung Foundation has run an Invitation Scholarship program for those same Vietnamese students chosen to receive a scholarship to take a master's degree at Korea University. After reviewing applications from present Pony Chung Scholarship students, two recipients are confirmed in late June. They can then enroll at Korea University in September, with entire entrance & tuition fees covered by Korea University and the Pony Chung Foundation. The foundation also helps students with their monthly living expenses (KRW 900,000 per month), round-trip airfare, and a stipend to cover the cost of printing their thesis (within KRW 500,000) as funds separate from the actual scholarship.

BOUNDLESS DREAMS AND THE PROMISE OF A BETTER FUTURE

간절한 꿈,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약속

찬란한 역사와 미래는 누가 거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창조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 일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1996.01.03 현대그룹 회장 이임사 中-

포니정 재단의 장학사업은 정세영 명예회장의 인재 존중 철학에서 출발합니다. 정세영 명예회장은 인재야말로 대한민국의 꿈이자 희망이며, 미래라고 믿었습니다. 수많은 외국출장과 대내외활동으로 바쁜 와중에도 신입사원 연수는 반드시 참여했고, 서울대와 울산대 등에 기술자를 파견해 전자공학 기술까지 습득케하는 메카트로닉스 교육과정을 운영했던 것도 세계 일류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인재 양성이 중요하다는 신념 때문이었습니다.

정세영 명예회장은 또한 나라가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선 더 많은 인재들이 자신의 꿈을 과감하게 펼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같은 정세영 명예회장의 믿음을 이어받아 포니정 재단은, 어떠한 역경과 난관이 닥친다 해도,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젊은 인재들의 간절한 꿈이 꺾이지 않도록, 이들의 꿈과 희망을 지원하고 격려하는 일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2006년부터 뿌려온 작은 희망의 씨앗이 거대한 희망의 푸른 숲을 이루는 그날까지, 포니정 재단은 멈추지 않겠습니다.

The Pony Chung Foundation’s scholarship program has its roots in Honorary Chairman Chung Se-yung’s philosophy of respecting talented people. For him, talented people represented a nation’s dreams, hopes and future. Despite his busy schedule and his commitments both inside and outside Hyundai—not to mention countless business trips overseas—he never missed the company’s annual new employee training session. He sent professional mechanical engineers to schools like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the University of Ulsan to teach mechatronics courses. These tasks were due to his belief that it was important to foster talented people in order to make an organization grow into the world’s leading company. Chung also thought that the increasing number of talented people should be allowed to pursue their own dreams boldly in order for Korea to grow and develop. Following his belief, the Pony Chung Foundation will continue to support and encourage young people to dream big so that they do not become frustrated, even in the midst of adversity. The foundation is committed to working hard until the little seeds of hope it has planted since 2006 become a huge forest of hope.

A brilliant history and future are not things that are given to us free of charge but are things that we should create for ourselves. Making a powerful country is your duty.

- from Chung Se-yung’s farewell speech as Chairman of the Hyundai Group (January 3, 1996)

2015 PONY CHUNG SCHOLARSHIP STUDENTS, DOMESTIC (30 STUDENTS)

2014년 선발 / 2015년 장학금 지급

계형준 한양대학교 건축학과. **고관영** 서울대학교 건축공학과.
고지원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곽보미** 서강대학교 철학과.
곽호정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김석현** 한양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김은혜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김종승** 고려대학교 건축학과.
류진우 고려대학교 건축사회환경공학부. **문석주** 이화여자대학교 철학과.
박준형 연세대학교 토목환경공학부. **박현우** 서울대학교 철학과.
심수진 연세대학교 건축학과. **안드레** 연세대학교 철학과.
열지수 한양대학교 사학과. **유은서**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이건영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이소라 서울대학교 철학과. **이수민** 서강대학교 사학과.
이예지 연세대학교 철학과. **이예지** 한양대학교 철학과.
이인원 한양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이재성** 고려대학교 건축학과.
이한나 이화여자대학교 사학과. **정승곤** 고려대학교 건축학과.
조성진 고려대학교 건축사회환경공학부. **조유영** 서강대학교 사학과.
최성호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최수민** 이화여자대학교 사학과.
황재진 연세대학교 기계공학부.

2014 GLOBAL RESEARCH TRIP (2 TEAMS / 4 STUDENTS)

박준형 연세대 학교토목환경공학과. **황재진** 연세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김은혜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고민정** 이화여자대학교 사학과.

2014 PONY CHUNG SCHOLARSHIP STUDENTS, VIETNAM (60 STUDENTS)

Vietnam National University, Ho Chi Minh City

Do Thi Thao Nguyen Environment. **Do Thi Thu Hien** Literature and Linguistics. **Do Van Tien** Computer Science. **Hoang Xuan Duc** Civil Engineering. **Huynh Manh Khang** Math&Computer Science. **Huynh Minh Khoi** Biomedical Engineering. **Huynh Thao Tai** Business Administration. **Mai Thi Huyen Trang** Economics. **Ngo Tan Binh** Talented Engineer – Computer Science. **Nguyen Duc Phuc** Microelectronics. **Nguyen Hong Diem** **Phuong** Finance and Banking. **Nguyen Huu Tai**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Nguyen Huynh Thanh Xuan** Korean Studies. **Nguyen Ngoc Phuong Trinh** Tourism. **Nguyen Phi Hung** Information Systems – UIT. **Nguyen Thanh Long** Applied Sciences.

Nguyen Van Ho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Pham Quang Truong** Business Administration. **Pham Thi Minh Trang** English Linguistics and Literature. **Pham Thi Truc Phuong** English. **Pham Thuong Hai** Information Technology. **Phan Khoa Thuong Trieu** VNU, School of Medicine. **Phan Ngoc Thien** Telecommunications. **Tran Doan Binh Duong** Mechatronics Engineering. **Tran Hoai Tan** Chemical Engineering. **Tran Minh Nhut** Biotechnology. **Tran Nguyen Minh Tri** Faculty of Civil Engineering. **Tran Thi Nhu Hoa** Materials Science. **Tran Thi Tuong Vy** Environmental Resources Management. **Truong Quoc Hung** Industrial Management.

Vietnam National University, Hanoi

Bui Hai Yen International Studies. **Bui Thi Thuy** Mathematics Education. **Dang Linh Chi** Hydrology. **Dang Minh Hang** Management Science. **Do Thi Thu Ha** English Language Teacher Education. **Duong Quang Vu** Information Technology. **Duong Tat Thanh** History. **Ha Thi Dung** Law. **Hoang Trong Loc** Information Technology. **La Thi Nga** Archive and Office Management. **Le Hong Quang** Information Technology. **Le Thi Ngoan** International Economics. **Le Thu Ha** Engineering Physics and Nanotechnology. **Le Trung Thanh** Information Technology. **Nguyen Danh Toan** Physics. **Nguyen Hoang Anh** Economic Relations. **Nguyen Huyen Trang** Occidental Languages and culture. **Nguyen Manh Hung** Information Technology. **Nguyen Phuong Anh** French Languages and culture. **Nguyen Thi Cam Van** Information Technology. **Nguyen Thi Huyen** Biology Education. **Nguyen Thi Mai** Geography. **Nguyen Xuan Bac**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Pham Thanh Ha** Hydrology Meteorology and Oceanography. **Pham Thi Thu Hien** Korean Languages and culture. **Tran Phuong Thao** English Language Teacher Education. **Tran Quoc Dat** Engineering Physics and Nanotechnology. **Tran Thi Cam Van** Biology. **Tran Thi Huong** Literature. **Tran Thi Viet** Mathematics Mechanics Informatics.

2014 PONY CHUNG INVITATION SCHOLARSHIP, VIETNAM (2 STUDENTS)

Korea University Graduate School

Bui Thien Sao English Education.
Le Dinh Khai Civil, Environment and architectural Engineering.

I will create a new culture of viewing exhibitions.

새로운 전시관람 문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이수민 Lee Soo-min (History, Sogang University)



“9기 포니정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재단으로부터 여러 지원과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진취적이고 모험심이 강한 성격으로 역사와 여행을 좋아하는 역사학도입니다. 보다 더 체계적으로 미술사학을 공부하기 위해 대학원에 진학할 계획이었는데 포니정 재단의 지원 덕분에 제 꿈을 향해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고등학생 시절 읽었던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를 읽고 세계사에 흥미를 갖게 되어 사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책으로 공부한 역사 지식들이 본격적으로 매력을 발산하게 된 것은 여행을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터키의 아야 소피아, 이집트의 람세스 신전 등 책에서만 읽고 봐오던 역사적 현장을 직접 가보고 발로 디디며 많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특히 역사를 근간으로 한 문화예술을 두 눈으로 보기 위해 미술관과 박물관에 중점을 두고 세계 여행을 하다 보니 지역, 문화에 따라 전시관람 문화가 다양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모로코와 이집트 같은 북아프리카 지역은 상당히 제한적인 반면, 몇몇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참여적이고 개방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술관과 박물관 내에 의자가 구비되어 있어 관람객들이 마음에 드는 작품 앞에 한참을 앉아 있거나 바로 앞에서 자신의 그림을 그리는 모습이 신기하면서도 무척 인상 깊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전시관람 문화는 제한적에서 개방적으로 넘어가는 과도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모두가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대학원에 진학하여 미술사를 심도있게 공부하고, 미술관과 전시관을 기획하는 큐레이터로 진로를 정했습니다. 그러나 제 꿈은 단순히 무엇을 공부하고 무엇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술사의 지식과 역사적 이해를 바탕으로 큐레이터로서 좋은 관람 문화를 형성하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우선 개방적이고 친밀한 관람 문화가 한국 예술 문화에 자연스럽게 정착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미술사를 공부하고 예술경영에도 보다 더 관심을 가지면서 기존 관람 문화의 틀을 깨고 새로운 전시관람 문화를 만들어나가는 게 저의 최종 꿈입니다. 정세영 명예 회장님이 미래는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 역시 저만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I am honored to have support from the Pony Chung Foundation as one of the 9th scholarship students and to be able to join many related activities in Korea. Being forward-looking, adventurous, and a history student, I like history and

traveling. In the past I had planned to enter a graduate school to study art history more systematically, and thanks to the Pony Chung Foundation's support I have got closer to my dream than ever.

My interest in world history began after reading ShionoNanami's Roma-jin no Monogatari (Stories of the Romans), which led me to major in history. It was when I started traveling that knowledge from history books became more attractive to me. I felt deeply moved while personally visiting historic sites written in books such as the Aya Sophiamuseum in Turkey and the Abu Simbel Temples in Egypt.

As I traveled the world focusing on museums in order to observe arts and culture based upon history, I felt the style of viewing exhibits was diverse by region and culture. In North Africa including Morocco and Egypt it was quite limited, while most of European countries showed a participatory and open culture around exhibitions. It was very impressive that there were benches at exhibition halls and people sat for a long time in front of artworks they liked or even they did their own sketches there.

Today, Korea's exhibition viewing culture is going through a transition period from a limited one to a more open one. I hope it will change into an atmosphere where everyone can naturally participate in enjoying exhibitions. Because of this, I have decided on my career path to study art history in an in-depth way at graduate school and then become a curator. However, my dream is not just about studying a specific field and having an occupation. Based on knowledge learned about art history and historical understanding, I would like to help the formation of a great exhibition viewing culture here as a curator. First, my aim is to make a more open, friendly viewing culture naturally settle in Korea, and my ultimate dream is to create a new exhibition viewing culture beyond the existing framework of viewing exhibitions, whilst further studying art history and art management. As Honorary Chairman Chung Se-yung has said that the future is what we make of it, and I will do my utmost to create my own future.”

I aim to become a global talent to benefit both Korea and Vietnam.

한국과 베트남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글로벌 인재가 되겠습니다

Huynh Thao Tai (Business Administration Faculty, Vietnam National University, Ho Chi Minh City)



“처음 장학금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드디어 저에게도 좋은 기회가 왔음을 깨달았습니다. 어려운 집안 형편에 도움이 되고 지원해주신 장학금으로 제 꿈을 향해 학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포기하지 않고 더 노력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현재 베트남은 AEC, TTP 등 다양한 국제 조약과 협정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가 발전을 위해 국제 비즈니스를 잘 수행할 고학력 인재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제가 국제경영학을 학부 전공으로 하고, 또 초청장학생 프로그램에 도전해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 과정에서 ‘국제경영과 전략’을 공부하고 싶은 이유입니다. 글로벌 대학에서 공부하고 기업에서 일하며 지식과 경력을 쌓고 싶습니다. 세계의 상황과 그 상황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이 역경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새로운 전략과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특히 한국은 베트남 제일의 투자자로 일본을 앞질렀고 앞으로 수년간 그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엔터테인먼트부터 FMCG 분야까지 점점 더 많은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에 설립되고 있습니다. 대학원을 마치고 국제경영과 전략 분야의 지식과 기술로 베트남에서 현지 법인이나 지사, 유통 시스템 등을 둔 한국 기업에 지원하여 효율성과 수익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전문성과 경영 지식, 리더십을 쌓은 후 다시 학계로 돌아와서 대학에서 강의하며 지식 기반의 사회를 살아가는 차세대를 교육하고자 합니다.

정세영 명예회장은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늘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 더 큰 성과를 내신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성공하기까지 많은 장벽이 있었지만 신념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여 큰 업적을 이뤄내신 점이 저에게는 무척 감명 깊었습니다. 저 역시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베트남과 한국 양국을 잇는 인재로 성장한다면 한국의 포니정 재단에서 제게 주신 기회를 키우고 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저의 꿈입니다. 제 꿈을 펼칠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When I first heard about the Pony Chung scholarship, I realized that a new opportunity opened up for me. It helped ease the burden my family had to support me financially while I studied. I deeply appreciate this. Thus I am determined to work harder without giving up my dreams. Currently, Vietnam is proceeding toward various international treaties and agreements such as AEC and

TTP, which will require a highly educated workforce to conduct international business well for national development. That is why I majored in International Business Administration as my undergraduate program and then wanted to take a master's course in International Business Management and Strategy offered by Korea University Graduate School. I would like to work at an international company after studying at the global university. I want to understand about the current global political and economic environment and how it affects the business situation for companies, and also to suggest new strategies and ideas to help companies overcome challenges faced.

Especially as Korea has overtaken Japan as the biggest foreign investor in Vietnam and it is likely to retain this position for years to come. More and more Korean companies are established in Vietnam in a variety of industries, from entertainment to FMCG (Fast moving consumer goods). After the postgraduate program, with knowledge and skills obtained from the International Business Management and Strategy program, I will apply for a Korean firm that has operation, division or distribution systems in Vietnam to contribute to its efficiency and profitability. After accumulating business expertise, management knowledge, and leadership skills, I would like to go back to the academic environment as a university lecturer to educate a new knowledge based generation.

Honorary Chairman Chung Se-young has a reputation as a man who created major achievement by turning a crisis in life and business into an opportunity. It was very impressive to me that although there were certainly a lot of barriers on his way to success Honorary Chairman Chung eventually realized his achievements through trust and sustained effort. I hope to be a person like him, who never gave up their dreams. If I grow as a talent that connects Vietnam and Korea, I will use the opportunity Pony Chung Foundation gives me and return the favor. This is my dream. Thanks again for giving me the chance to pursue my dream.”

Suggestions for Aging Transport Infrastructure

교통 인프라 노후화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제안



박준형, 황재진 Park Joon-hyeong, Hwang Jae-jin

(Civil Engineering, Yonsei University)

‘동사’의 순 우리말인 ‘움직씨’라는 독특한 팀명으로 2014년 해외학술탐방 대상자로 선정된 박준형 학생과 황재진 학생이 ‘교통 인프라 노후화 문제에 대한 제안’이라는 주제로, 지난 여름 유럽 7개국으로 해외탐방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들이 제출한 해외학술탐방 보고서를 소개합니다.

Two students, Park Joon-hyeong and Hwang Jae-jin, were selected for the Global Research Trip Group in 2014 with the unique team name “Oomjik-Si,” which is a pure Korean word meaning “verb.” Last summer, they visited seven European countries under the theme: “Suggestions for Aging Transport Infrastructure.”

교통 인프라 노후화 문제에 주목하다

‘움직씨’팀의 박준형, 황재진 학생이 2014년 해외학술탐방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생각했던 것은 ‘공공성’이었다. 토목공학도로서 도시에 거주하는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교통 인프라에 관심이 갔고, 교통 인프라가 노후화 되고 있는 요즘, 같은 고민을 먼저 시작한 유럽에서는 어떻게 문제를 개선해 나가고 있는지 탐구하는 방향으로 주제를 발전시켰다. ‘교통 인프라 노후화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제안’이라는 주제로 2014년 해외학술탐방 대상자로 선정된 두 사람은 지난 해 여름 영국,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총 7개국을 방문했다. 전반부에 기존 인프라의 효율적인 유지보수 및 관리상황을 알아보고, 후반부에는 노후화된 인프라를 대체할 신축 인프라의 건축방향을 모색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이번 탐방을 통해 두 사람은 오랜 시간 사회 인프라를 유지, 보수해오고 있는 대부분 유럽 국가들은 교통 인프라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었고 각국의 지리와 특성에 맞게 터널과 도로, 수상교통 체계를 보완하며 신기술 개발을 위해 힘쓰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사전에 위험요소를 방지하는 유로터널 관리시스템

전반부 탐방에서는 먼저 영국과 프랑스 사이를 연결하는 유로터널을 방문하여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견해 대처하고 있는 유로터널의 관리 시스템을 살펴봤다. 유로터널은 프랑스 칼레와 영국 포크스톤 간 연장 50.3km터널을 만들 때 2개의 철도터널과 그 사이에 서비스터널을 만들어 관리하고 있었다. 서비스터널은 비상시 대피통로 및 유지보수 루트로 이용한다. 버스와 유사한 모양의 유지보수용 차량은 평소에 항상 양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선로를 순찰하고, 주말에는 청소를 하는 등 사전에 위험요소를 방지하고 있었다.

인간중심적이고 친환경적인 스트라스부르

프랑스 스트라스부르는 인간중심적이고 친환경적인 교통 인프라 개선은 물론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돋보였던 곳으로 꼽았다. 이곳은 6개의 트램이 운용되고 있는데, 트램이 달지 않는 곳은 손쉽게 자전거로 이동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두 사람은 대중교통을 직업 이용해 보며 다양한 교통 수단이 도시를 촘촘하게 이어주어 편리함을 느꼈고 무엇보다 시민의식에 놀랐다고 한다. 시청과 시민의 끊임없는 소통으로 다양한 정책에 대한 신뢰를 쌓고 있는데, 시민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도시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서로 이어진 것은 인프라의 개선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실제 활용과 애정에서 온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친환경과 안전을 위한 새로운 도전들

벨기에는 최근 넓은 인프라를 개·보수하는 공사가 다수 진행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친환경과 안전을 위해 새로운 도전이 이뤄지고 있었다. 대표적으로 고속도로에서 선도 차량과 후속 차량 간 무선통신 관리 체계를 도입하여 기차처럼 일정 간격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하고 있었다. 또 작은 규모의 도로에서는 영하의 온도에서도 얼지 않는 아스팔트를 사용하거나 태양열을 이용한 열선을 깔아 동파를 방지하는 등 인프라의 손상을 막고 그 기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게 하고 있었다.

새로운 교통 인프라를 위한 아이디어

후반부 탐방에서는 신축 인프라의 건축방향 모색을 위해 먼저 네덜란드를 방문했다. 현재 네덜란드는 ‘Sustainable Opportunities, Sustainable Future’라는 슬로건 아래 2020년까지 거대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라 암스테르담 메인 도로가 모두 공사 중이었다. 두 사람은 조선소에서 골리앗 크레인이라고 불리는 겐트리 크레인(Gantry Crane)이 도로 공사에 사용되고 있는 점을 주목하여 운반 속도로 빠르고 현장 인부와의 소통이 용이한 겐트리 크레인을 국내 도로 공사에도 도입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이탈리아에서는 베네치아의 수상버스에 주목했다. 섬 내 유일한 이동수단이자 필수적 교통 인프라인 수상교통을 직접 이용해보며 국내 교통체계에 적용할 만한 점을 모색했다. 인프라의 종류가 다양해진다면 그만큼 교통체계가 분산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편의를 높이고 노후화를 늦출 수 있기 때문이다.

친환경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와 관심

독일에서는 독일 연방 교통부 산하 연구기관인 BAST를 인상적인 곳으로 꼽았다. 독일의 교통관리국의 역할을 하며 신기술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BAST를 방문하여 이 곳의 연구와 그 성과가 현재 독일의 교통 체계에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지 알 수 있었다. 2014년 여름, 우정과 학구열로 뭉쳐 알차게 이번 해외학술탐방을 마무리한 ‘움직씨’. 박준형 학생은 얼마 전 학·석사 연계과정에 합격하면서 대학원 수업을 미리 듣고 있으며, 취리히 공과대학에서 박사과정을 마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취업준비를 하던 황재진 학생도 이번 학술탐방을 통해 좀 더 넓은 시야로 미래를 볼 수 있었다고 한다. 두 학생 모두 ‘움직씨’ 이름처럼 한층 더 넓어진 마음과 시야로 꿈을 향해 끊임없이 움직이며 나아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Paying attention to aging transport infrastructure

When they were preparing for the 2014 overseas academic visit program, Park and Hwang first thought about publicness. As civil engineering students, they were interested in the influences of transport infrastructure on urban residents and developing this theme by exploring how European countries - where they started to think about the issue previously - had been solving these problem. The two students were selected for the 2014 overseas academic visit program by the Pony Chung Foundation and visited seven countries during the summer the same year: UK, France, Belgium, Netherlands, Germany, Switzerland, and Italy. In the first half of the trip, they examined the efficient maintenance and management of existing infrastructure, while exploring possible directions for building new infrastructure to replace aging infrastructure. Through this visit, Park and Hwang found that most of European countries that have maintained social infrastructure for a long time are taking new initiatives in order to solve the fundamental problems of transport infrastructure, and also that they are working hard to develop new technologies while complementing tunnel/road/water transport systems according to each country's geography and characteristics.

Eurotunnel management system that prevents the accumulation of dangerous elements

In the first part of their trip, Park and Hwang visited the Eurotunnel that connects the UK and France to observe how its management system detects dangerous elements in advance and responds to them. Eurotunnel made a service tunnel between two railway tunnels -- the extended tunnels of 50.3 kilometers -- connecting Calais in France and Folkestone in the UK. A service tunnel is used as an emergency escape and maintenance route. A maintenance car that looks like a bus routinely moves in both directions to patrol the railway and cleans up the tunnels on weekends, preventing dangerous elements from accumulating in advance.

Human-centered, eco-friendly Strasbourg

The students considered Strasbourg in France a place where transport infrastructure was improved in a human-centered and eco-friendly way, while at the same time, citizens actively participated in its improvement. There were six trams in operation, and where trams did not reach easily, people could easily move by bicycle. While personally using the public transportation, the two students felt the convenience of these various types of public transportation that closely connected many places across the city; and most of all, they were surprised at the level of civic awareness. The city authority constantly communicated with citizens and built trust in various public policies. When Park and Hwang conducted interviews with citizens, they realized that the city connected results in an organized way, not only from improved infrastructure but also from actual use and affection by users.

New initiatives for eco-friendliness and safety

Recently in Belgium, many construction projects to renovate old infrastructure are being done, and new initiatives for eco-friendliness and safety are being taken into the process. An interesting example was to make cars move in a regular distance like trains by adopting a wireless communications management system between cars on the expressway. Also, for small-scale roads, they used asphalt that would not freeze even below zero degrees; or installed hot wires to prevent roads from freezing and bursting. In that way they

were preventing damage to infrastructure and helping it function fully.

Ideas for new transport infrastructure

In the latter part of the trip, Park and Hwang visited the Netherlands in order to find an alternative direction for building new infrastructure. Currently, the Netherlands is conducting a huge project under the slogan "Sustainable Opportunities, Sustainable Future" until 2010, so when the two students went there most of the major roads in Amsterdam were under construction. The students paid attention to the fact that the Gantry crane -- which is also called the Goliath crane at shipyards -- was being used for road construction, and suggested an idea that it should be introduced to Korea's road construction because it works fast and facilitates better communication between workers on the construction site. They took note of the water bus in Venice, Italy. While personally using the water transportation, which is an essential transport infrastructure on the island, they thought about what could be applied to the Korean transport system. If the types of infrastructure become diverse, the transport systems will be diffused; and ultimately it will increase citizens' convenience and delay the aging of infrastructure.

Interest in the development of eco-friendly technology

In Germany, BAST, a research organization under the Federal Ministry of Transport was very impressive, Park and Hwang noted. The two students visited BAST, which plays a role of Germany's transport management bureau and is in charge of new technology development.

In the summer of 2014, the team Oomjik-Si successfully completed their overseas academic visit, being united through friendship and a desire to learn. Recently, Park Joon-hyeong passed the exam to enter a BS/MS integrated program and is taking some graduate courses in advance with the aim of completing his Ph.D. course at the Swiss Federal Institute of Technology Zürich. Hwang Jae-jin, who had been preparing for getting a job, was also able to see the future from a bit wider perspective. The two students said now they will constantly move towards their dreams with a broader outlook on the world.

My aim is to be a creative engineer with a firm foundation in basic knowledge and skills.

탄탄한 기본기를 갖춘 창조적인 공학자가 되겠습니다

Le Dinh Khai Master's student (Civil, Environment and Architectural Engineering, Korea University Graduate School)

2014년 포니정 재단의 초청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현재 고려대학교 건축사회환경공학에서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르 딘 카이. 창조적 공학자를 꿈꾸는 그의 열정과 포부에 대해 들어왔습니다.

Le Dinh Khai was selected as an invitation scholarship recipient by the Pony Chung Foundation in 2014 and he is currently taking a master's course in Civil, Environment and Architectural Engineering at Korea University Graduate School. He talks about his passion and ambition to be a creative engineer.



포니정 재단과의 소중한 인연

“최근 많은 베트남 학생들이 해외로 유학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졸업 후 산학연계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일본에서 3주간 공부를 한 후, 호치민에 지사를 두고 있는 일본 건설사에 취직을 했지만 공부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4학년 때 포니정 장학생으로 지원받으면서 알게 됐던 포니정 초청 장학금의 기회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결국 퇴사하고 포니정 초청 장학생에 지원하면서 제 인생이 바뀌게 됐습니다. 포니정 재단과의 인연이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 셈입니다.”

2014년 포니정 초청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현대 고려대학교 건축사회 환경공학과에서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르 딘 카이는 베트남 국립 호치민 대학에서 지질자원공학을 전공했다. 학부시절 리서치 그룹을 구성해 각종 실험을 수행하며 연구원으로서의 꿈을 키운 그는 연구 논문으로 입상하는 등 실력을 인정받았다. 졸업과 동시에 직장에 입사했지만 결국 짧은 회사생활을 뒤로하고 고려대학교 대학원에 입학했다. 회사 그룹장도 공부를 더 하고 싶다는 르 딘 카이의 결정을 지지해주었고 추천서까지 써주며 응원했다. 인편으로 도움을 받은 덕분에 유학을 준비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었다. 무엇보다 르 딘 카이는 지도교수님의 친절 한 도움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제가 공부하길 원하는 실험실을 찾아 지도 교수님께 입학 절차와 허가에 대해 문의하는 이메일을 보냈는데 정말 친절하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실험실의 낮은 환경에 제가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은 조언을 주고 계십니다. 교수님도 미국에서 공부하신 적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래서인지 외국인 학생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잘 이해해 주십니다.”

꿈을 이루기 위한 열정과 노력

2015년 봄 첫 학기에 르 딘 카이가 가장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수업은 다름 아닌 한국어 수업이다. 포니정 초청 장학생으로 선정되고 한국 유학 행이 결정되자 바로 한국어 공부를 시작한 덕분에 현재 동료들과 간단한 대화 정도는 가능하다. 그가 한국어 공부에 매진하는 이유는 한국어 공부가 재미있기도 하지만 한국어를 능숙하게 해야 현지인과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3개의 전공 수업에 교양 필수과목과 한국어 수업까지 5과목을 이수하고 있어 사실 개인적인 시간은 거의 가질 수 없을만큼 분주하게 보내고 있는 르 딘 카이. 모든 전공 수업에서 컴퓨터 모델링과 실험실 실험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평일에는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실험실에 머물고 토요일에는 실험실 동료들과 세미나에 참석한다. 유일하게 실험실로 출근하지 않는 일요일에는 평일에 쌓아뒀던 과제를 해결하다 보면 일주일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알지 못할 정도다. 다행히 늘 친절하고 유쾌한 친구와 선배가 있어 즐겁게 생활하고 있다고 한다.

“실험실에는 총16명이 있는데 한국 친구들은 대부분 친절하고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망설이지 않고 도움을 줍니다. 또 뜨거운 열정

을 가지고 공부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번 학기에 저와 같은 주제로 실험을 수행하고 있는 은진 씨와 석재 씨와 실험이야기를 할 때에는 친구들의 학구열과 지식에 항상 놀랍니다.”

창조적인 공학자를 꿈꾸다

실험실 동기들 중에서도 르 딘 카이와 가장 많은 대화를 나누고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은 같은 베트남 출신 박사 과정생인 칸이다. 이제 막 박사과정을 시작한 칸은 형으로서 실험실 선배로서 르 딘 카이에게 많은 조언을 주고 있다.

“칸 선배는 저에게 많은 도움을 줍니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선배가 한 실험실에 있다는 것은 정말 행운이죠. 덕분에 연구에 더 매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한국어 공부와 전공 공부에 매진할 생각입니다. 한국어 공부는 시험 점수에 연연해하기 보다는 일상 생활에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실력을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언어에서 자유로우면 그만큼 공부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번 학기에 전공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나면 다음학기부터는 제 스스로 연구를 수행할 생각입니다. 탄탄한 기본기를 갖춘 창조적인 공학자가 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A fortunate encounter with the Pony Chung Foundation

“Recently, many Vietnamese students are going overseas to study. Among them there are many who want to study in Korea. After graduating from university, I did a three-week internship program in Japan. Even though subsequently I got a job at a Japanese construction company that has a branch in Ho Chi Minh, I still wanted to study further. A fortunate chance of a Pony Chung invitation scholarship continuously lingered in my thoughts. Upon leaving the company I applied for the invitation scholarship, which changed my life. A surprising karmic encounter with the Pony Chung Foundation became a turning point in my life.”

Le Dinh Khai studied geology & resource engineering at Vietnam National University - Ho Chi Minh City. He organized a research group and conducted many experiments while cultivating his dream to be a researcher. He was recognized for his ability by winning awards with his research papers. He entered a construction company right after graduation but he only spent a short time there before entering Korea University Graduate School. The head of his team at the company supported Le Dinh Khai's

decision and even provided a letter of recommendation. As a result of such assistance in both Vietnam and in Korea there were no major difficulties in preparing to study in Korea. And most of all, he was deeply impressed with the help from his thesis advisor.

“After I found a lab that I wanted to join, I emailed my advisor to ask about the joining process and approval procedure, and he gave me a really kind reply. He still provides a lot of advice for me so that I can adapt myself to the unfamiliar environment of the lab in Korea. I heard that he had studied in the U.S. and probably because of this, he understands the difficulties that a foreign student may experience.”

Passion and efforts to make his dream a reality

In the spring semester of 2015, Le Dinh Khai is passionate about Korean classes more than any other class. He started to learn Korean as soon as he was selected as the invitation scholarship recipient and decided to come to Korea, so nowadays he can have simple conversations with his classmates. He works hard on studying Korean language not only because it's interesting but also because he can actively communicate with local people and experience various cultural aspects by being fluent in Korean. Currently, he takes five courses including three in his major, as well as the required liberal arts courses and the Korean classes. Actually, he is so busy that he doesn't have any leisure time. As he conducts computer modeling and lab experiments for every major course, he stays at the lab from 9 am to 10 pm during the week days and participates in a seminar together with lab colleagues on Saturdays. On Sundays when he does not go to the lab, he does assignments that he didn't have time for during the week. And thus a week flies by. Fortunately, he still feels his life is enjoyable because there are always kind, cheerful friends and older students.

“There are around 16 students in my lab. Most of my Korean friends are very kind and help others without hesitation when necessary. Also, it was impressive that they studied with so much passion. When we discuss our experiments with Eun-jin and Seok-jae, who are working on experiments

under the same theme as mine, I am always surprised at their knowledge and passion for study.”

Dreaming to be a creative engineer

Among classmates at the lab, Le Dinh Khai is most impressed by Khan, a doctoral student from Vietnam. Khan just started his Ph.D. course and offers a lot of advice for Le Dinh Khai like an older brother.

“Khan helps me a lot. I am very lucky to have a true friend to communicate with at the same lab. It helps me to study harder. This year, I will focus on Korean and other major courses. As for the Korean language, I am trying to be fluent enough to have no difficulty in daily life. If I am free from the language barrier I can concentrate on studying even better. After I get basic knowledge of my major during this semester, I will conduct research on my own from next semester onwards. My goal is to be a creative engineer with firm foundation in basic knowledge and skills.”



I want to develop technology for a better future for everyone.

아름다운 미래를 여는 행복한 기술을 개발하겠습니다

이현경 Lee Hyun-kyung, Ph.D.(Environmental Engineering, Korea University)

포니정 재단 5기 장학생으로 선정된 이후, 공익을 위해 어떻게 성장하고 노력할 것인가 진지하게 고민하며 인생의 목표를 정했다는 이현경 선생. 꿈과 포부를 향해 매진하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After being selected as one of the 5th scholarship recipients, Lee Hyun-kyung set her goal in life, while thinking seriously about how to grow and make further effort for the public interest.



공익에 기여하는 성장을 고민하다

“포니정 장학생이 된 후 제 인생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개인 재단으로 부터 아무런 대가 없이 도움을 받는다는 게 신선한 충격이었죠. 저도 미래에 어떻게 하면 사회에 도움이 될 것인가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포니정 재단 5기 장학생으로 고려대학교 건축사회환경공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통합과정에 진학해 환경공학자의 길을 걷고 있는 이현경 선생. 학부 시절에 만났던 포니정을 통해 공익에 기여하는 삶에 대해 깊이 고민했고, ‘가고 싶은 직장’을 넘어 ‘되고 싶은 사람’을 결정하게 됐다.

“UN이나 UNESCO, UNDP 등 국제 기구의 일원으로서 환경 기술을 적재적소에 적용시켜 소외되는 지역을 돌보고 환경 교육을 통해 세계 인들이 건강한 환경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답이 아닌 좋은 답을 찾는 노력

이현경 선생은 환경 공학 중에서도 분리막(멤브레인)을 이용한 수처리 과정을 공부하고 있다. 분리막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게 된 계기를 묻자, 물 부족 사태에 대한 ‘좋은 답’을 찾고 싶다는 평범한 대답이 돌아왔다. 하지만 ‘좋은 답’에 대한 이현경 선생의 정의는 남다르다.

“물 부족 사태에 대해 어떤 기술도 ‘정답’을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좋은 답’은 있다고 믿습니다. 학부시절 조경을 이중전공으로 공부하며 깨달은 점은 다양한 이용자들, 공간의 역할과 설계자의 의도 등 수많은 요소가 들어가는 설계 안에 정답은 없지만 분명 좋은 답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좋은 답은 뭐냐고요? 충분히 연구한 뒤에 얻은 스스로 만족할 수 있을만한 결론, 멈출 수 있는 곳에서 구하는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에서 연구자로 지식 창출의 주체가 되다

분리막은 특정 성분을 선택적으로 통과시킴으로써 혼합물을 분리하고 정제시키는 데에 사용되는 것이다. 식품 산업의 원료 분리 및 농축, 보일러 및 반도체 세척 공정에 응용되는 초순수의 제조, 폐수 내 유해물질 회수 및 재활용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되고 있다. 분리막 공정은 집적도가 높고 약품 사용이 없으며 운영이 쉽기 때문에 그 적용 가능성 또한 점점 높아지는 추세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기장에 RO 플랜트가 완성되어 바닷물을 식수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런 분리막 기반의 담수화 공정에서 중요한 것이 분리막의 오염과 교체 비용을 줄이는 것이다.

이현경 선생은 분리막 오염을 예측하고 적절한 전처리를 적용해서 막 오염 발생을 최소화 하고 공정 효율을 높이는 데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있다. 실험을 동반하는 연구는 결과를 위해 긴 기다림을 요구할 때도 있지만 분석하고 예측하는 즐거움으로 그리고 새로운 이론을 배우

는 과정으로 하루하루가 숨 가쁘게 흘러간다고 한다. 학부-석사-박사 과정의 차이점을 묻자, ‘연구’라는 것은 지식 창출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공부’와 다르다고 답했다.

“무엇인가를 배우는 일은 즐겁고 재미있죠. 지식을 내 것으로 만드는 데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요. 그런데 새로운 것을 찾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일이라 공부에서 연구의 단계로 적응하는데 힘들었습니다. 특히 실용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데에 의미를 두는 공학분야는 빠른 시간 안에, 경제성을 갖춘, 트렌드에 맞는 성과를 개발해야만 합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새로운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감과 도태되지 않기 위해 늘 긴장하며 노력해야 하죠.”

행복한 연구자의 색다른 계획

긴장과 중압감 속에서 이현경 선생이 터득한 노하우는 ‘스스로를 다스리는 것’이다. 주변 눈치 보지 말고,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내 자신이 만족할 수 있는 생활을 하는 것이다. 비교의 늪에 빠저드는 순간 더 빨리 더 멀리 가기 위해 내 자신은 사라지기 때문이다. 스스로를 위한 이현경 선생의 올해 목표가 색다르다.

“매일 저녁 뉴스도 보고 책도 읽고 음악도 듣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주변도 둘러보며 마음의 성장을 느끼고 싶습니다. 행복하게 연구해야 행복한 것을 만들어 내지 않을까요? 올해는 건강하고 행복한 내가 되기로 했습니다. 행복한 연구자로 성장해 아름다운 미래를 열어가는 기술을 개발하고 후배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꿈을 갖고 도전하라는 정세영 명예회장님의 생각이 이렇게 긍정 바이러스가 되어 지금 이순간에도 우리 사회 곳곳에 퍼져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Growth that benefits the interest of the public

“My life has changed after I became a Pony Chung scholarship recipient. It was a pleasant shock to be supported by a private foundation without any conditions. I started to think seriously about how to be of help to society in the future.”

Lee Hyun-kyung graduated from Korea University's Department of Civil, Environmental and Architectural Engineering. Currently, she is taking the MS/Ph.D. integrated program as an environmental engineer at the graduate school of the same university. Through the Pony Chung Foundation she encountered during her undergraduate days, Lee came to think more deeply about a life that contributes to the public interest. Her realization helped her to decide what she wanted to be like in the future, and not just a future organization she wanted to work for.

“My aims are to apply environmental technology to the right places as a member of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like UNESCO and UNDP, and help people around the world to have sound environmental awareness through related education.”

Efforts to find a good answer, not just a correct answer

Lee Hyun-kyung is studying water treatment processes using membranes in the field of environmental engineering. When asked about what made her study membranes, she gave a rather common response -- she wanted to find a “good answer” to the lack of available water in today’s world. On closer inspection however, Lee’s definition of a good answer was extraordinary.

“No technology can offer a correct answer to the lack of water. Instead, I believe there are only good answers. In my undergraduate days I did a double major in landscape architecture. Then, I realized that there are certainly good answers -- although there is no correct answer in designing that can include countless elements such as diverse users, the role of spaces, and the architect’s intention. What is a good answer? It is the conclusion that you get after fully researching something which you can be satisfied with for yourself. I think it is the answer you get when you stop working on a task.”

From a student to a researcher who creates knowledge

A membrane is a selective barrier used to separate the constituents of liquid mixtures and refine them. It is applied in a variety of areas including the separation/concentration of ingredients in the food industry; the manufacture of ultra-pure water; and wastewater recycling. As the membrane process is intensively conducted without using chemicals – with relatively easy operation – its potential for wider use is also increasing.

Recently, a reverse osmosis (RO) plant was completed in Gijang, Korea, so sea water can be turned into drinking water. What is important in the membrane-based desalination process is the reduction of membrane pollution and replacement costs. Lee Hyun-kyung’s research is about minimizing membrane pollution by predicting it and applying appropriate preprocessing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the membrane-based process. Research with experiments sometimes require a lot of waiting but her days pass by very fast, giving her the pleasure of analyzing and predicting results while learning new theories. With regards to the differences between undergraduate, masters and Ph.D. courses, Lee pointed out that it was like the difference between learning and research: in that one needs to be a creator of knowledge when involved in research.

“It is fun and interesting to learn something, even though to accumulate my own knowledge needs a lot of effort. Yet, finding something new through research is a totally different level of work, so I had difficulty in adapting myself to research at first. Especially in the field of engineering, where it is meaningful to create practical value and we should develop economic, trendy achievements within a short space of time. In order not to be left behind by competitors, I should always work hard under the pressure of needing to show something new within a limited time frame.”

A happy researcher’s unusual plans

What Lee Hyun-kyung learned in the midst of tension and pressure is how to control herself. She tries to have a life that she can be satisfied with, while not worrying about what other people think of her or comparing herself with others. Upon falling into a swamp of comparisons, a person can lose themselves in order to go faster and farther than their competitors. The goal she has set for herself this year is remarkable.

“I would like to feel the growth of my mind while I watch TV news, read books, listen to music, have nice food, and look at my surroundings every evening. Don’t you think a happy researcher can create something that would make people happy? This year, I decided to make myself healthy and happy. I hope to grow as a happy researcher to develop new technology for a better future for everyone and share my research results with younger researchers in the field. As such, I think Honorary Chairman Chung Se-young’s ideas about dreams and bold initiatives can become positive energy that spreads into every corner of our society, even at this very moment. And so, I always appreciate it.”

FINANCIAL STATUS OF THE PONY CHUNG FOUNDATION

포니정 재단 주요 재무 현황

Handing down a lifelong philosophy to the next generation

평생의 철학을 내일로 잇다

회사가 잘 되기 위해선 ‘좋은 머리’, 즉 훌륭한 인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훌륭한 인재를 확보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건 아닙니다.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창의적인 노력의 기회를 주는 경영자의 역할 또한 중요합니다. 정세영 명예회장이 1987년 2월 현대그룹 회장 취임사에서 “회장은 지휘자요, 사장은 반주자, 각급 임원은 파트장이며, 모든 사원은 노래하는 단원입니다”라고 강조했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 해낼 때, 비로소 잘 되는 회사, 부강한 나라가 완성될 수 있다는 생각. 포니정 재단은 그 평생의 철학을 내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포니정 재단은 이를 위해 재단에 출연해 주신 기부자 여러분의 뜻을 소중히 여기고, 공익법인으로서의 공공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포니정 혁신상, 학술지원, 장학금 등 재단에서 수행하는 모든 사업이 영구히 지속될 수 있도록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포니정 재단은 정세영 명예회장의 철학을 계승하고, 기부자 여러분의 뜻을 받들으로써 우리 사회의 창조적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To ensure a company is successful, you need intelligent, talented people. However, success is not guaranteed just because a company has these kinds of employees. Management’s role is to create an atmosphere where

people cooperate with each other and work hard, allowing for opportunities to spark creativity. That is why Honorary Chairman Chung Se-yung emphasized, “The chairman is a conductor; the president is an accompanist; executives are the heads of respective musical sections; and employees are the choir members” in his inaugural speech as the CEO of the Hyundai Group in December 1987. He believed that a successful company—or a powerful country, for that matter—only comes about when everyone does their utmost. Today, the Pony Chung Foundation is instilling this lifelong philosophy in tomorrow’s leaders.

To accomplish this, the foundation values opinions from everyone and continues to work hard in order to secure openness and transparency as a nonprofit organization. The foundation is also working hard to manage its funds efficiently so that its programs, including the Pony Chung Innovation Award, academic support, and scholarships will be around for many years to come. The Pony Chung Foundation will continue to promote Chung Se-yung’s philosophy and respect the thoughts and opinions of others as it lays the foundation for the creative growth of Korean society.

01. 출연금

출연자	금액
경신공업, 세종공업, 세지솔로텍, 아이서비스, 아이앤콘스, 아이콘트롤스, 정몽규, 정상영, 한국프렌지, 한무쇼핑, 한일이화, 현대미포조선, 현대백화점, 현대산업개발, 현대삼호중공업, 현대시멘트, 현대중공업, 현대해상, 현대DSF, 현대EP (가나다順)	26,895,770
(단위: 천 원, 2014년 12월 31일 기준)	

02. 재단 자산 보유 현황

항목	금액
기본 자산	26,000,000
보통 자산	376,376
합계	26,376,376
(단위: 천 원, 2014년 12월 31일 기준)	

03. 주요 사업 실적

03-1. 2014년 부문별 수입 내역

항목	금액
금융 수입이자	729,009
이자소득세 환급	145,298
목적사업용 출연금	3,010,000
합계	3,884,307
(단위: 천 원, 2014년 12월 31일 기준)	

03-2. 2014년 주요 지출 내역

구분	2014년 실적	누계
목적사업비	679,454	4,236,225
포니정 장학금	424,939	2,436,194
국내 대학 장학금	247,427	1,786,461
베트남 대학 장학금	33,791	253,608
베트남 초청 장학금	46,011	83,629
해외 학술탐방	20,111	85,628
예술 장학금	49,457	154,957
새터민 학생 지원	28,140	71,910
학술지원사업	109,140	425,380
포니정 혁신상	100,000	800,000
기타 목적사업비	45,375	574,651
지원사업비	38,743	531,434
합계	718,197	4,767,659
(단위: 천 원, 2014년 12월 31일 기준)		

01. CONTRIBUTIONS

Contributors	Amount
Kyungshin Corp, Sejong Industrial, SEJI, I-Service, I&CONS, I-CONTROLS, Chung Mong-gyu, Chung Sang-yung, Korea Flange, Han Moo Shopping, Hanil E-wha, Hyundai Mipo Dockyard, Hyundai Department Store, Hyundai Development Company, Hyundai Samho Heavy Industries, Hyundai Cement, Hyundai Heavy Industries, Hyundai Marine & Fire Insurance, Hyundai DSF, Hyundai EP	26,895,770
(Unit: KRW 1,000, as of December 31, 2014)	

02. STATUS OF ASSETS

Section	Amount
Underlying assets	26,000,000
Common assets	376,376
Total	26,376,376
(Unit: KRW 1,000, as of December 31, 2014)	

03. FINANCIAL PERFORMANCE

03-1. Revenue, Gains, and Other Support

Section	Amount
Financial revenue	729,009
Interest tax refund	145,298
Donations for programs	3,010,000
Total	3,884,307
Unit: KRW 1,000, as of December 31, 2014)	

03-2. Major Expenditures

Section	2014 Expenditures	Accumulated Expenditures
Programs	679,454	4,236,225
Pony Chung Scholarships	424,939	2,436,194
Domestic scholarships	247,427	1,786,461
Vietnamese scholarships	33,791	253,608
Invitation scholarships	46,011	83,629
Overseas academic travel	20,111	85,628
Art scholarships	49,457	154,957
Support for students from North Korea	28,140	71,910
Academic Grants	109,140	425,380
Pony Chung Innovation Award	100,000	800,000
Other programs	45,375	574,651
Other support	38,743	531,434
Total	718,197	4,767,659
(Unit: KRW 1,000, as of December 31, 2014)		



HISTORY

OF THE PONY CHUNG FOUNDATION



정세영 명예회장의 뜻을 기려 세워진 포니정 재단은 미래와 과거가 평면으로 이어진 뫼비우스의 띠, 개척과 혁신의 가치가 끝없이 이어지는 무한궤도의 공간이다.

미래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도전하고 개척하는 것, 뫼비우스의 띠를 타고 위대한 가치로 확대 재생산되는 불멸의 신념은 지금도 Scholarship으로, Innovation Award로 연연히 계승되어 미래의 리더와 동량을 예견하고 자리매김한다.

— 정세영 명예회장 5주기 추모집 〈꿈과 희망을 남긴 선구자 포니정 그의 꿈은 계속된다〉 中

꿈은 곧 미래다

“지난 세월 동안 나는 가급적 원칙을 지키고자 노력해왔으며 공평하고 곧은 길을 지향하는 정도경영을 소신으로 삼아왔다. 원칙을 지키는 경영을 지향한다면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고 믿는다. 돌아보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았던 길, 그 길이 곧았다면 앞으로도 나는 곧은 길을 걸을 것이요, 그 길을 달리는 내 차 또한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00년 11월 발간된 자서전 〈미래는 만드는 것이다〉에 수록된 정세영 명예회장의 말입니다. 평생 혁신을 추구하며 기업 경영과 국가 발전에 헌신했던 그는, 원칙에 어긋나는 일엔 처음부터 발을 디디지 않았고, 아무리 어려운 역경에 처해도 다른 데 눈 돌리는 법 없이 정도경영의 길만을 고집했습니다.

또한 “깊은 통찰과 예지력으로 혁신적인 목표를 정하여 원칙을 지켜 매진한다면, 어느덧 세상은 우리를 중심으로 움직일 것”이라 생각했고, “미래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도전하고 개척하는 것”이란 믿음을 몸소 실천했습니다. 불가능한 꿈조차도 이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고민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며, 과감하게 실행해 나간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꿈과 미래는 그에게 다른 말이 아니었습니다. 가슴에 품었던 간절한 꿈, 웅대한 포부가 마침내 실현되는 때가 바로 미래였습니다. 그렇게 정세영 명예회장은 평생에 걸쳐 꿈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거듭하며 미래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의 꿈은 계속된다

2005년 설립된 포니정 재단은 이와 같은 정세영 명예회장의 원칙과 소신을 굳건히 지키고, 그의 웅대한 포부와 꿈을 널리 실현하는 곳입니다. 포니정 재단의 모든 활동은 정세영 명예회장의 철학에서 출발합니다. 매년 혁신의 꿈을 과감한 도전정신으로 현실에 옮긴 우리 시대의 혁신가에게 포니정 혁신상을, 기초학문인 인문학의 발전에 헌신하고 있는 젊은 학자들에게 포니정 학술지원의 혜택을, 역경과 난관을 딛고 자신의 꿈을 향해 날갯짓 하는 학생들에게 포니정 장학금을 수여해 온 것도, 정세영 명예회장이 그토록 강조했던 혁신과 도전, 미래를 향한 꿈을 응원하고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 총 9팀의 혁신가가 포니정 혁신상을, 총 13팀의 인문학 분야 교수 및 연구자들이 포니정 학술지원을, 총 290명의 국내 대학생과 총 445명의 베트남 대학생이 포니정 장학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포니정 재단은 우리 사회, 그리고 지구촌 곳곳에서 한 톨의 밑ाल이 되어 주변을 환하게 밝혀 나가고 있는 이들 혁신가와 학자, 대학생들을,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또한 이들이 만들어 나갈 밝은 미래를 믿고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포니정 재단은 정세영 명예회장이 뿌리고 간 혁신과 도전의 꿈, 원칙 중심의 리더십과 정도경영의 소신, 미래의 동량인 인재 양성의 철학을 지키고 계승하며, 널리 전파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포니정의 꿈이 살아있는 한, 포니정 재단의 꿈도 계속됩니다.

2005. 10.	주무관청 설립 허가	2011. 07.	제5회 포니정 혁신상 시상 (수상자: 정하준 University of Cambridge 교수)
2005. 11.	관할법원(서울지방법원 삼성등기소) 등기 완료	2011. 11.	베트남 대학 장학금 수여(60명)
2006. 04.	포니정 혁신상 협약식 개최(매일경제신문사)	2011. 12.	2012 장학증서 및 학술지원증서 수여식 개최 (장학생 30명, 학술지원교수 2팀)
2006. 05.	고 정세영 명예회장 추모집 발간	2012. 05.	제6회 포니정 혁신상 시상 (수상자: 김범수 (주)카카오 이사회 의장)
2006. 05.	고 정세영 명예회장 흉상 제막식	2012. 11.	베트남 대학 장학금 수여(60명)
2006. 12.	2006년 장학증서 수여(장학생 52명)	2012. 12.	2013 장학증서 및 학술지원증서 수여식 개최 (장학생 30명, 학술지원연구자 1명)
2007. 09.	제1회 포니정 혁신상 시상(수상자: 반기문 UN사무총장)	2013. 06.	제7회 포니정 혁신상 시상 (수상자: 석지영 하버드 로스쿨 종신교수)
2007. 10.	베트남 장학사업 MOU 체결 및 장학금 수여(20명)	2013. 11.	베트남 대학 장학금 수여(60명)
2007. 12.	2007년 장학증서 수여(장학생 33명)	2013. 12.	2014 장학증서 및 학술지원증서 수여식 개최 (장학생 30명, 학술지원연구자 2명)
2008. 05.	포니정홀 개관	2014. 07.	제8회 포니정 혁신상 시상 (수상자 : 김연아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
2008. 05.	제2회 포니정 혁신상 시상(수상자: 서남표 KAIST 총장)	2014. 11.	베트남 대학 장학금 수여(60명)
2008. 10.	베트남 대학 장학금 수여(60명)	2014. 12.	2015 장학증서 및 학술지원증서 수여식 개최 (장학생 30명, 학술지원연구자 2명)
2008. 12.	2008년 장학증서 및 학술지원증서 수여 (장학생 24명, 학술지원교수 2명)	2015. 05.	제 9회 포니정 혁신상 시상 (수상자: 조르제토 주지아로 자동차 디자이너)
2009. 05.	제3회 포니정 혁신상 시상(수상자: 가나안농군운동세계본부)		
2009. 11.	베트남 대학 장학금 수여(60명)		
2009. 12.	2009년 장학증서 및 학술지원증서 수여 (장학생 24명, 학술지원교수 2명)		
2010. 05.	제4회 포니정 혁신상 시상(수상자: 차인표, 신애라 부부)		
2010. 11.	베트남 대학 장학금 수여(60명)		
2010. 12.	2011 장학증서 및 학술지원증서 수여식 개최 (장학생 30명, 학술지원교수 2팀)		



Founded in memory of Honorary Chairman Chung Se-yung and his unrelenting spirit, the Pony Chung Foundation is like a Möbius strip, connecting the future and the past so that the value of innovation remains endless. His quintessential belief that the future is not something to wait around for, but something that has limitless potential and should be explored is constantly growing and being reproduced through the Pony Chung Foundation. Today, this same belief is also fostering future leaders and talents through scholarships and the annual Pony Chung Innovation Award.

- from *The Pioneer Pony Chung's Dream Goes On*, a book marking the 5th anniversary of Honorary Chairman Chung Se-yung's death



DREAMS REPRESENT THE FUTURE

In his autobiography, *The Future is What We Make of It* (2000), Honorary Chairman Chung Se-yung wrote: "For the past few years I've tried to carry out my work in a principled fashion, and have believed in *jeongdo* [righteous, uncorrupt management] to pursue the correct way of doing business. I believe that we can overcome any adversity if we pursue principled management." Indeed, Chung devoted himself to the management of companies and the development of Korea, while also pursuing innovative initiatives throughout his life. At the same time, he never started anything that went in violation of principled management, and instead stuck to *jeongdo* management no matter how great the challenge or adversity he was facing. Chung also thought that if we strive to achieve innovative goals and make use of profound insight and a clear vision—while also following a principled management philosophy—we will succeed. Thus, Chung personally put his own belief—that the future should be explored—into practice. He believed that no dream was too big. For him, the words "dream" and "future" were no different from each other, as the future was the very time when one's dreams came to life. Chung continued to shape his own future through hard work and determination over the course of his entire life.

THE DREAM LIVES ON

Established in 2005, the Pony Chung Foundation was established to preserve Honorary Chairman Chung Se-yung's beliefs and business philosophy, and to make all of his ambitious dreams a reality. Every year, the foundation presents the Pony Chung Innovation Award to a select innovator who has turned innovative dreams into reality. We also provide academic support for young scholars who are devoted to the humanities and liberal arts, and offer scholarships to students who are making their dreams come true while overcoming adversity and constant challenges. All of these measures are being taken to support and encourage innovation, a pioneering spirit, and a dream of the future that Chung emphasized his whole life. Since 2005, a

total of nine individuals/groups of innovators have received a Pony Chung Innovation Award, thirteen groups of professors and researchers have received academic support, and 290 Korean university students and 445 Vietnamese university students have received scholarships from the Pony Chung Foundation.

The Pony Chung Foundation will continue to build on Honorary Chairman Chung Se-yung's dream as an innovator and as a pioneer, his belief in principle-oriented leadership and Jeongdo management, and his philosophy concerning the fostering of talented people for the future.

AS LONG AS HONORARY CHUNG'S DREAM REMAINS ALIVE, THE PHONY CHUNG FOUNDATION'S DREAM ALSO LIVES ON.

- 2005. 10. Establishment authorized by the required authorities
- 2005. 11. Completion of registration in court (Seoul District Court, Samsung Registry Office)
- 2006. 04. Held an agreement convention for the Pony Chung Innovation Award (Maeil Business Newspaper)
- 2006. 05. Published a memorial booklet to commemorate the late Chairman Chung Se-yung
- 2006. 05. Held the unveiling ceremony for a bust sculpture of the late Chairman Chung Se-yung
- 2006. 12. Held an awards ceremony for 1st scholarship recipients (52 students)
- 2007. 09. 1st Pony Chung Innovation Award given out (Honoree: Ban Ki-moon, UN Secretary-General)
- 2007. 10. Signed an MOU with Vietnam National University on scholarship programs, with the school's first scholarships then given out (20 students)
- 2007. 12. Held an awards ceremony for 2nd scholarship recipients (33 students)
- 2008. 05. Opening of Pony Chung Hall
- 2008. 05. 2nd Pony Chung Innovation Award given out (Honoree: Suh Nam-pyo, President of KAIST)
- 2008. 10. Awarded scholarships to students at Vietnam National University (60 students)

- 2008. 12. Held an awards ceremony for 2008 scholarship and academic grant recipients (24 students, 2 professors)
- 2009. 05. 3rd Pony Chung Innovation Award given out (Honoree: World Headquarters of Canaan Farmers Movement)
- 2009. 11. Awarded scholarships to students at two Vietnamese national universities (60 students)
- 2009. 12. Held an awards ceremony for 2009 scholarship and academic grant recipients (24 students, 2 professors)
- 2010. 05. 4th Pony Chung Innovation Award given out (Honorees: Cha In-pyo and Shin Ae-ra Couple)
- 2010. 11. Awarded scholarships to students at two Vietnamese national universities (60 students)
- 2010. 12. Held an awards ceremony for 2011 scholarship and academic grant recipients (30 students, 2 professors)
- 2011. 07. 5th Pony Chung Innovation Award given out (Honoree: Chang Ha-joon, Professor, University of Cambridge)
- 2011. 11. Awarded scholarships to students at two Vietnamese national universities (60 students)
- 2011. 12. Held an awards ceremony for 2012 scholarship and academic grant recipients (30 students, 2 professors)
- 2012. 05. 6th Pony Chung Innovation Award given out (Honoree: Kim Beom-su, Chairman, KAKAO Inc.)
- 2012. 11. Awarded scholarships to students at two Vietnamese national universities (60 students)
- 2012. 12. Held an awards ceremony for 2013 scholarship and academic grant recipients (30 students, 1 Ph.D. graduate)
- 2013. 06. 7th Pony Chung Innovation Award given out (Honoree: Jeannie C. Suk, tenured Professor, Harvard Law School)
- 2013. 11. Awarded scholarships to students at two Vietnamese national universities (60 students)
- 2013. 12. Held an awards ceremony for 2014 scholarship and academic grant recipients (30 students, 2 Ph.D. graduates)
- 2014. 07. 8th Pony Chung Innovation Award given out (Honoree: Yuna Kim 2010 Vancouver Winter Olympics Gold Medalist)
- 2014. 11. Awarded scholarships to students at two Vietnamese national universities (60 students)
- 2014. 12. Held an awards ceremony for 2015 scholarship and academic grant recipients (30 students, 2 Ph.D. graduates)
- 2014. 05. 9th Pony Chung Innovation Award given out (Honoree: Giorgetto Giugiaro Automobile designer)

PONY CHUNG INNOVATION AWARD RECIPIENTS

포니정 혁신상 역대 수상자 소개

참 무섭게 경쟁합니다. 포드, 지엠, 크라이슬러 하는 걸 좀 보세요. 서로 뭐 죽기 살기로 하잖아요. 다 그래요. 여기에서 그 목적을 성취함으로 해서 보람이 있다고요. 어렵기 때문에 좋은 거라고요. 쉬운 거야 누가 못해요? 아무나 다하는 건데.

- 정세영 명예회장

쉬운 건 혁신이 아니다

혁신이란 세상에 없던 길을 만들어 나가는 일입니다. 아무도 가능할 거라 예상치 못했던 일을 기어이 해내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쉬울 리 없습니다. '그건 절대 안돼', '괜히 안 되는 일에 힘 빼지 마' 같은 부정적인 말들이 횡행하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하지만 어렵다고 해서 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스스로 될 거라, 할 수 있을 거라 확신하면, '이 일을 어떻게 하면 해낼 수 있을까?' 열심히 골몰하면, 방법은 생깁니다. 완벽한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정세영 명예회장은 언제나 "깊은 통찰과 예지력으로 혁신적인 목표를 정하여 원칙을 지켜 매진한다면, 어느덧 세상은 우리를 중심으로 움직일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했고, 더 과감히 도전했으며, 마침내 혁신을 이루어냈습니다. 어려운 일이라 더 좋아했고, 더 혁신에 매진했으며, 평생 혁신의 꿈을 놓지 않았습니다. 포니정 혁신상은 이 같은 정세영 명예회장의 혁신에의 의지와 꿈을, 현재에서 미래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포니정 혁신상 역대 수상자들과 함께.

INNOVATION IS NEVER EASY

Innovation is about building a road where no such road existed before. We call it innovation when someone succeeds in doing what everybody else thought was impossible. In short, innovation is never easy. However, the fact that it is difficult does not mean you cannot do it. If you believe that you can do it, and devote yourself to finding a way to make it a reality, you will indeed find a way to make it happen. Nothing in this world is completely impossible. Chung always believed that if we strive to achieve innovative goals, while making use of profound insight, a clear vision and a principled philosophy, we will succeed. Honorary Chairman Chung Se-yung enjoyed working hard on challenging tasks, which is how he achieved so many new innovations. To this day, the Pony Chung Innovation Award continues to develop such a strong determination in others, especially young people.

The competition is truly frightening. Look at Ford, GM, and Chrysler. They're working with a do-or-die attitude and only feel a sense of achievement when they fulfill their goals. I think it's good when something is difficult to do. Anyone can do something that's easy.

- Chung Se-yung

세상에 없던 혁신을 현실로 만든 이들

2007

제1회 수상자

반기문 UN사무총장

세계 평화와 번영의 수호자가 되다 - 충청북도 음성
의 시골마을에서 태어나 전 세계를 대표하는 UN사무
총장의 자리에 오른 반기문 UN사무총장의 삶은, 혁신 그 자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외교관이 되겠다는 꿈을 놓
지 않았고, 고등학교 시절 단 4명만 뽑는 '외국학생의 미국 방문 프로
그램(VISTA)'에 선발돼 케네디 대통령을 직접 접견할 정도로 출중한
외국어 실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세계를 무대로 인류를 위해 봉사하
겠다는 꿈을 이루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1970년 서울대 외교학과 졸업과 동시에 외무고시에 합격, 그토록 바
라던 외교관의 꿈을 이룬 그는, 37년 동안 아시아, 미주, 유럽 등의 외
교 요직을 두루 거치며 외교 활동을 펼쳤고, 대통령 외교안보수석 비서
관, 외교통상부 장관 등을 역임하며 우리나라의 외교 선진화에 크게 공
헌했습니다. 또한 2006년 10월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
하고 있는 상황에서 UN사무총장에 선출됨으로써, 대한민국 외교사에
큰 이정표를 남겼을 뿐 아니라, 한국인의 저력을 세계 만방에 떨쳤습
니다. 2011년 UN사무총장에 다시 한 번 선출됨으로써 자신의 탁월한
역량을 입증한 반기문 사무총장.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 중인 그의 혁신은 지금도 현재진행형입니다.

2008

제2회 수상자

서남표 KAIST총장

대한민국 학계의 혁신적 변화를 이끌다 - 서남표
KAIST총장은 우리 학계에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킨
혁신의 대표주자입니다. 그는 미국 MIT대학교 기계공학 석사, 케네기
멜론 대학교 기계공학 박사를 거쳐, 사우스 캐롤라이나 대학교 교수와
모교인 MIT대학교 교수를 역임한, 한국을 대표하는 과학자이기도 합
니다. 공리를 이용한 생산·설계이론의 창시자로 기계공학 분야의 혁신
을 이루었으며, 이후 플라스틱 제조공정, 금속 제조공정, 마모이론, 설
계이론 등에서 탁월한 연구업적을 쌓음으로써, 1987년 미국과학재단
에서 수여하는 올해의 국가공학자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1991년
부터 2001년까지 10여 년간 MIT대학교 기계공학과 학과장을 지내면
서 시도했던 다양한 변화들을, 2006년 KAIST총장 부임 이후 적극적
으로 도입한 그는, 10년 이내에 KAIST를 세계 10위권 대학으로 진입
시키겠다는 확실한 목표 하에 대대적인 교육 혁신을 이끌었습니다. 이
는 수십 년간 유지되어온 교육 공급자 중심의 대학 조직 틀을 깨는 혁
신적인 변화를 유도했으며, 우리 학계에 변화와 세계화라는 발전적인
화두를 던졌습니다. 세계적인 석학으로 한국인의 우수성을 몸소 보여
줬으며, 우리나라 대학 선진화의 기틀을 마련한 혁신의 대명사. 서남표
KAIST총장입니다.

2009

제3회 수상자

가나안농운동세계본부(총재 김범일)

전 세계에 생활밀착형 혁신운동을 전파하다 - 가나
안농운동세계본부는 한국의 농촌 부흥과 근대화, 의
식개혁운동을 아시아와 아프리카까지 확대한 생활밀착형 혁신운동의
대명사입니다. 1967년 일가(一家) 김용기 선생이 설립한 가나안농군
학교가 모태이며, 근로, 봉사, 희생의 교육 이념을 바탕으로 근검 절약

하는 생활자세와 강인한 개혁정신 등을 강조하는 의식개혁운동을 지구
촌 곳곳에서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1991년 방글라데시를 시작으로 필
리핀, 미얀마, 중국 등 현재까지 총 8곳에 가나안농군학교를 설립한 가
나안농운동세계본부는, 빈곤층에 척박한 땅을 옥토로 개간하는 방
법을 전수하는 등 자립정신과 개혁정신을 전파해 나가고 있으며, 인도,
라오스, 캄보디아, 가나, 우간다 등에도 농군학교 설립을 추진 중입니
다. 또한 가나안농운동세계본부는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 특히 가난
과 기아로 고통 받는 개발도상국에 희망과 꿈의 가치를 일깨우고 있으
며, 한국인의 박애정신을 전 세계에 알리는 통로로도 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포니정 혁신상 수상 당시, “1989년 가나안운동 창시자인 김
용기 선생의 타계 1주년 무렵, 원주 제2가나안농군학교를 방문해 전달
했던 정세영 명예회장의 조의금이 방글라데시 농군학교가 세워지는 종
착돈으로 쓰여졌다”고 밝혔던 가나안농운동세계본부. 이들의 세계
속 생활혁신운동은 지금도 지구촌 곳곳을 희망으로 환하게 밝히고 있
습니다.

2010

제4회 수상자

차인표, 신애라 부부

나눔의 가치를 몸소 입증하다 - 1995년 부부의 연
을 맺은 차인표, 신애라 부부는 왕성한 연기활동과 더
불어 우리 사회에 나눔의 아름다운 가치를 전파하는 나눔의 대명사이
자 례 모델입니다. 에티오피아, 케냐, 우간다, 아이티, 볼리비아, 필리
핀 등 아프리카, 중남미, 동남아의 불우한 어린이 24명, 대학생 8명과
1대1 결연을 맺고 이들의 삶에 희망을 불어넣고 있을 뿐 아니라, 굿네
이버스, 한국컴패션, 대한사회복지회 등 대표적인 아동후원기관의 흥
보대사로 활동하며 아이들의 소중한 꿈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또한 한
국컴패션을 통해 우간다 태아·영아 생존 프로그램 지원금 1억원, 인도
오릿사 지역 피해복구금 5,000만원을, 아이티 지진 긴급 복구기금으
로 1억원을 기탁하는 등 꾸준한 기부 및 후원 활동으로 많은 이들의 귀
감이 되고 있습니다. 2005년과 2008년, 봉사활동을 통해 만난 두 명
의 아이를 공개 입양해 자신들이 낳은 아들과 함께 사랑으로 키우고 있
는 이들 부부는, 입양에 대한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편견을 없애는 데
도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변함 없는 봉사와 기부 활동으로 우리 사
회에 나눔의 가치를 전파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하고 있는 차인표,
신애라 부부. 이들의 나눔은 건강하고 풍요로운 사회를 앞당기는 변화
와 혁신의 시작입니다.

2011

제5회 수상자

장하준 University of Cambridge 교수

세계 경제학의 지평을 넓히다 - 장하준 케임브리지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실사구시적인 관점에서 세계
경제 위기의 원인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경제학 분야의 혁신
을 이끌고 있는 세계적인 석학입니다. 고등학교 시절 리카도의 비교우
위론을 접하면서 경제학에 관심을 갖게 된 그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에서 수학한 후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석사와 박사 과정을 이수했으
며, 1990년 스물 일곱의 나이에 모교인 케임브리지 경제학과 교수로
임용되었습니다. 이후 현재까지 20여 년간 100여 편의 논문과 13권
의 저서를 집필하고, 10권의 책을 엮어내는 등 탁월한 학문적 성과로
한국인의 위상을 전 세계에 드높여 왔습니다.

특히 그는 과거 한국 정부가 성공적으로 시행했던 산업정책과 보호무
역, 수출 드라이브 정책 등이 어떻게 기업과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했는
지를 이론적으로 규명했으며, 이를 통해 '보호무역이나, 자유무역이나'
와 같은 양자택일의 관점을 거부하고 개발도상국 또는 후발공업국들은
자신의 경제 성장 단계에 맞는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2003년 '신고전학과 경제학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경
제학자'에게 수여하는 뮌헨달상에 이어, 2005년 '경제학의 지평을 넓
힌 경제학자'에게 수여하는 레온티에프상을 최연소로 수상한 것은, 모
두 이 같은 학문적 성과를 세계가 주목한 덕분입니다. 또한 그는 세계
은행, 아시아개발은행, 국제연합(UN) 산하의 11개 국제기구와 브라
질, 아르헨티나, 베트남 등의 정부기관과 시민단체의 자문 역할을 하며
후발 개발도상국들의 경제 성장에 도움을 주는 등 실천하는 지식인, 자
랑스런 한국인의 례 모델이 되었습니다.

2012

제6회 수상자

김범수 (주)카카오 이사회 의장

IT강국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다 - 김범수 (주)카카
오 이사회 의장은 PC 기반 웹 시대의 도래를 예측, 온
라인 게임과 포털 사이트 등의 영역을 석권했을 뿐 아니라,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한 앱 '카카오톡'의 개발을 통해 커뮤니케이션 대중화에 앞장
서는 등 IT 분야의 혁신을 이끌고 있는 IT 업계의 대표적인 혁신가입니
다. 1998년 한게임을 설립해 바둑, 장기, 포커, 고스톱 등 남녀노소 누
구나 즐길 수 있는 게임을 온라인에 적용시켰으며, 네이버를 대한민국
최고의 검색 포털 사이트 반열에 올려놓았습니다. 또한 스마트폰 기반
의 카카오톡을 개발, 출시 2년 만에 전 세계 사용자 4,200만 명을 돌

파하는 폭발적인 성장세로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버금가는 글로벌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김범수 의장이 PC 기반의 웹 시대와 모바일 시대를 석권한 대한민국 최초의 인물, '한국의 스티브 잡스'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후에도 신개념 기업 마케팅 창구인 카카오플러스 친구, 카카오톡을 활용한 다양한 게임 등 새로운 서비스를 속속 개발, 스마트폰 기반의 혁신적 수익 모델을 창출하고 있는 김범수 의장. 그는 앞선 해안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정신을 겸비한, 능력 있는 벤처 기업인을 발굴해 후원하는 등 IT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공고히 하는 데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2013

제7회 수상자

석지영 Harvard Law School 종신교수

도전하고 융합하다 - 석지영 교수는 학문에 대한 열정과 끊임 없는 도전으로 아시아계 여성 최초의 하버드 로스쿨 종신교수로 선출되는 등 이 시대 최고의 여성 법학자로 존경받고 있습니다. 줄리어드 예비학교에서 피아노를, 예일대에서 영문학과 프랑스문학을 전공한 석지영 교수는 옥스퍼드대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은 후 하버드 로스쿨에 진학해 미국 대법원 법률 서기, 뉴욕 맨해튼 검찰청 검사로 재직하는 등 늘 새롭게 도전하며 범상치 않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특히 2006년 한국계 최초로 하버드 로스쿨 교수에 임용된 석지영 교수는 임용된 지 4년만인 2010년, 아시아계 여성 최초로 종신교수로 선출되며 전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또한 저서 <법의 재발견>으로 2010년 '허버트 제이콥 상'을 수상한 석지영 교수는 학문에 대한 열정과 혁신적인 사고로 우리 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예술 분야와 법을 접목시킨 참신한 강의 내용과 교수법으로 호평 받고 있는 석지영 교수는 세계의 석학들이 모여드는 곳 하버드에서 젊은 혁신가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4

제8회 수상자

김연아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세계 피겨스케이팅의 역사를 다시 쓰다 - 도전과 희망의 아이콘인 김연아 선수는 피겨 스케이팅의 불모지였던 우리나라에서 불굴의 의지로 최고에 도전하여 세계 피겨 스케이팅 역사를 새롭게 썼습니다. 일곱 살 때 처음 스케이팅을 접한 김연아 선수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한 결

과, 세계 정상에 우뚝 서며 각종 신기록을 세워나갔습니다. 2009년 세계 피겨 선수권대회에서 여자 선수로는 처음으로 최고점인 합계 점수 207.71점을 기록한 그녀는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합계 점수 228.56점을 받으며 세계 신기록을 세웠고 이 기록은 아직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여자 선수로는 최초로 동계올림픽, 세계선수권, 4대륙 선수권, 그랑프리 파이널에서 모두 우승해 그랜드슬램을 달성했으며, 출전했던 모든 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해 '올포디움(All Podium)'의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또한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에도 큰 공을 세운 공로로 훈장인 모란장을 수여 받으며 스포츠 외교관으로서의 실력과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2010년에는 타임 선정,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으로 뽑힌 그녀는 올림픽 홍보대사로도 맹활약하는 등 전세계 어린 선수들에게 꿈과 희망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PEOPLE WHO MADE UNKNOWN INNOVATIONS A REALITY

2007

1ST RECIPIENT

Ban Ki-moon, UN Secretary General

A bulwark of world peace and prosperity - Ban Ki-moon was born in a small village in Eumseong and became UN Secretary General in 2007.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his life is the very definition of innovation. Despite growing up in poverty, he chose a path not many people can imagine, working hard over the years to become a successful diplomat. When he was in high school, he was selected to participate in a program to visit the United States (VISTA) with three other applicants to meet President Kennedy due in no small measure to his excellent command of English. This experience gave him the resolve to make his philanthropic dream a reality and to one day serve the world. In 1970, Ban passed Korea's Foreign Service Examination, which corresponded almost exactly with his graduation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s Department of Diplomacy. Over the next 37 years, Ban contributed to the advancement of Korea's foreign affairs as a diplomat in various parts of the world, including the U.S. and Europe, while also serving in important positions over that time such as the president's Chief Secretary for Foreign Security and Minister of Foreign Affairs. With a strong understanding about conflicts among the world's super powers, he was named the 8th UN Secretary General in October 2006, an unprecedented milestone in the history of Korean diplomacy. Reelected to his post in 2011, Ban has not stopped working tirelessly for global peace, prosperity, and security, thereby continuing with his own innovation efforts.

2008

2ND RECIPIENT

Suh Nam-pyo, President of KAIST

Bringing innovative changes to Korean academia - Dr. Suh Nam-pyo served as president of the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KAIST) from July 2006 to February 2013 and is a well-known innovator in Korean academia. He is also one of Korea's leading scientists. After earning his master's degree in mechanical engineering at MIT and his Ph.D. at Carnegie Mellon University, he served as a professor at the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and at MIT. As the methodology developer of axiomatic design, he helped innovate the field of mechanical engineering and later made notable achievements with the plastic manufacturing process, metal manufacturing process, wear and tear theory, and design theory. In 1987, Suh was named Federal Engineer of the Year by the U.S. National Science Foundation. From 1991 to 2001, he was head of MIT's Department of Mechanical Engineering. Later, when he became president of KAIST in 2006, he introduced various changes to the school by drawing on his experience at MIT. This ultimately brought about large-scale educational innovation at KAIST, with the goal of making Korea's top post-secondary science university into one of the world's top 10 universities within 10 years. This led to innovative changes that broke the mold in Korea's

university system, which had put education providers at the center of learning efforts—and not students—for several decades, while also shedding light on changes in Korean academia and its subsequent globalization.

2009

3RD RECIPIENT

World Headquarters for the Canaan Farmers Movement (President Kim Bum-il)

Promoting innovation in everyday life across the world - The world headquarters for the Canaan Farmers Movement represents an innovative movement which grew from a Korean movement to revive and modernize rural villages to one which spread throughout Asia and Africa. The headquarters was founded on the principles of the Canaan Farmers School, which was first established in 1967 by Kim Yong-ki. The organization promotes a spirit of frugality and a regional pioneering effort based on hard work, volunteerism, and sacrifice. Since then, the organization has established a total of eight overseas Canaan Farmers Schools, starting with Bangladesh in 1991, and later moving on to countries such as the Philippines, Myanmar, and China, all the while teaching local residents how to transform barren wastelands into fertile pastures. The organization has further plans to establish schools in India, Laos, Cambodia, Ghana, and Uganda. Today, the organization promotes awareness connected with the value of hope and dreams in underdeveloped countries suffering from poverty and starvation around the world. A representative from the world headquarters for the Canaan Farmers Movement once said, "When Honorary Chairman Chung Se-yung visited us in 1989 and made a donation to our organization in memory of our late founder Kim Yong-ki, we used it as seed money to build a Canaan Farmers School in Bangladesh." To this day, the organization's innovation of the everyday life movement is providing hope to people around the world.

2010

4TH RECIPIENT

Cha In-pyo & Shin Ae-ra Couple**Highlighting the value of sharing** - Cha In-

pyo and Shin Ae-ra got married in 1995 and

have since become role models who take pride in spreading the value of sharing. By establishing one-on-one support relationships with 24 underprivileged children and eight university students in Ethiopia, Kenya, Uganda, Haiti, Bolivia, and the Philippines, the couple helped provide hope to all these people and their families. Cha In-pyo and Shin Ae-ra are making dreams come true for many children around the world by serving as honorary ambassadors in programs such as Good Neighbors, Compassion South Korea, and Social Welfare Society Inc. They have also been more than generous financially, donating KRW 100 million to fetus and infant survival programs in Uganda, KRW 50 million to recovery aid in Orissa, India (both via Compassion South Korea), and KRW 100 million for recovery aid to Haiti after the devastating earthquake in 2010.

While raising two daughters whom they adopted in 2005 and 2008, the couple has continued to carry out volunteer work alongside their son. This has also helped eliminate the previously held stigma against adoption and adoptees in Korea. Cha In-pyo and Shin Ae-ra's consistent volunteering and donations have inspired Korean society and brought positive changes throughout the world, providing a starting point of change and innovation for a healthier, more enriched society.

2011

5TH RECIPIENT

**Ha-joon Chang, Professor,
University of Cambridge****Innovating economics on an international level**

- Professor Ha-joon Chang of the University of Cambridge is an internationally renowned scholar who analyzes the causes of global economic crises from an empirical perspective, while providing solutions to these challenges at

the same time. He became greatly interested in economics after learning about David Ricardo's theory of comparative advantages in high school. After earning his bachelor's degree through Seoul National University's Department of Economics, he completed his master's and Ph.D. degrees at the University of Cambridge. In 1990, he was appointed professor of economics at Cambridge at the age of 27. Since then, he has published more than 100 papers and 13 books, and served as a contributor to another 10 books.

Over the years, Chang has theoretically defined how the Korean government's successful industrial, protectionist, and export-oriented development policies have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Korean companies and industries. Based on this, he came up with a new point of view, one in which developing countries (or newly industrialized countries) should reject choosing between protectionism and free trade, and instead pursue specific strategies fit for their specific economic growth. His academic achievements have led to him being awarded the European Association for Evolutionary Political Economy's 2003 Gunnar Myrdal Prize and the 2005 Wassily Leontief Prize for Advancing the Frontiers of Economic Thought from the Global Development and Environment Institute (for which he was the youngest recipient ever). Chang has also served as a consultant to the World Bank, the Asian Development Bank, and 11 international organizations under the UN, as well as government agencies and civic groups in Brazil, Argentina, and Vietnam, helping developing countries grow economically.

2012

6TH RECIPIENT

Kim Beom-su, Chairman, KAKAO Inc.**Expanding Korea's IT prowess** - Kakao Corporation chairman Kim Beom-su is a

leading innovator in the IT industry. He not only predicted how influential the Internet would become in people's lives earlier than others, with a business that now covers online games and portal sites, but also took the initiative in popularizing easy communication by developing a smartphone-based application called Kakao Talk. In 1998, Kim established Hangame, offering

users numerous different games online before coming up with the idea for the portal site Naver, which is today Korea's most popular web portal. With Kakao Talk, Kim has seen an explosive growth in users, surpassing 42 million people in two years, and creating a social media sensation in Korea. The country's very own Steve Jobs, Kim is seen by many as the first person who conquered both Korea's Internet and mobile markets. In the meantime, Kim has continued to develop new services, including a marketing tool called Kakao Talk Plus Friend, and a wide variety of games using Kakao Talk, which has helped bring about an innovative revenue stream through smartphones. Kim has also increased Korea's IT prowess by supporting talented venture businesspeople with forward-looking insight and a pioneering spirit.

2013

7TH RECIPIENT

**Jeannie C. Suk, Tenured Professor at Harvard
Law School****Confronting Challenges and Pursuing**

Convergence - Professor Jeannie C. Suk is highly respected as one of the most preeminent legal experts today. She studied piano at Juilliard, English Literature and French Literature at Yale before she received her Ph.D. in French Literature at Oxford. Then, she attended Harvard Law School, clerked for Justice on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and worked as a prosecutor in Manhattan, New York. She has been an innovator throughout her life. Especially, she was paid great attention to by the world when she became the first Korean American appointed as a professor at Harvard Law School in 2006 and was also the first Asian woman to become tenured there just four years later. Also, she is the author of *At Home in the Law*, which won the 2010 Herbert Jacob Book Prize. Professor Suk became a great example for our society with her passion for studies and innovative way of thinking. Her classes are acclaimed for creative contents and methods to combine law with various fields of art, and she is working hard to educate young innovators at Harvard where great scholars gather from around the world.

2014

8TH RECIPIENT

**Yuna Kim, 2010 Vancouver Winter Olympics
Gold Medalist****Rewriting the history of figure skating** -

Yuna Kim, is a true icon of both hope and a pioneering spirit. Kim singlehandedly put Korea on the world figure skating map and excelled on the international stage with her indomitable willpower. Kim started skating at 5 (7 in Korean age) when there were just a few ice rinks for training in Korea. However, she never gave up and continued to pursue her dream. Eventually, she would go on to become a world and Olympic champion in figure skating, setting many new records. At the 2009 World Championships, she scored a total of 207.71 points, becoming the first female skater to ever score such high points. At the 2010 Vancouver Winter Olympics, Kim set a world record by scoring 228.56 overall and she is still the record holder. She also achieved a veritable 'Grand Slam' by winning the Olympic Winter Games, World Championships, Four Continents Championships, and Grand Prix Final and she never finished a competition off the podium throughout her career. In addition, Yuna Kim displayed her ability as a sports diplomat. She received the Order of Civil Merit (Peony Medal) from the Korean government for her contribution to PyeongChang's winning the right to host the Winter Olympics. In 2010, Kim was selected as one of TIME magazine's 100 most influential people. She also works as an honorary ambassador of the Youth Olympic Games, presenting hope for young athletes around the world.

PONY CHUNG ACADEMIC GRANT RECIPIENTS

자동차 회사의 본질은 좋은 차, 즉 품질이다. 품질이 제일 좋으면 전통은 물론 결국 세계에서 제일 좋은 자동차 회사가 되는 것이다.

- 정세영 명예회장 자서전 <미래는 만드는 것이다> 中

기초학문이 미래를 만든다

좋은 차를 가름하는 기준은 품질입니다. 그리고 좋은 품질은 기본이 제대로 갖추어졌을 때 비로소 탄생합니다. 정세영 명예회장은 이 단 순 불변의 법칙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동차 회사의 본질은 품질이고, 품질이 제일 좋으면 세계에서 제일 좋은 자동차 회사가 된다”고 굳게 믿었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좋은 집을 짓기 위해선 기초를 다지는 일이 필수입니다. 기초가 부실하면 아무리 좋은 집도 소용이 없습니다. 학문 역시 그러합니다. 기초학문의 발전 없이 응용학문의 발전이 있을 수 없습니다. 기초부터 하나씩 차곡차곡 쌓아나갈 때 비로소 더 넓은 학문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포니정 재단의 학술지원이 주목한 것도 바로 이 지점입니다. 기초학문은 모든 학문과 국가 발전의 기본으로, 기초학문의 발전은 곧 응용학문의 발전,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 것이라는 믿음, 긴 호흡에서 기초학문 분야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는 믿음에 따른 것입니다. 지난 7년 여 동안 쌓아온 이 같은 믿음은 역사학 및 인문학 분야의 빛나는 성과로 학계의 주목을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포니정 재단은 기본에 충실하고 인재를 중시했던 정세영 명예회장의 철학 그대로, 기초학문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FUNDAMENTAL STUDIES ENSURE A SUCCESSFUL FUTURE

The standard of a good car is quality. And high quality is acquired only when the fundamentals are properly dealt with in the production process. Honorary Chairman Chung Se-yung knew this truism better than anyone else. The same rule of valuing fundamentals can be applied to studies. If you do not develop rock-solid fundamental studies, you will never bring about applied studies. When people accumulate fundamental knowledge on a step-by-step basis, they can successfully advance into the wider world of academia. The Pony Chung Foundation understands this point very well and believes that we should invest more resources on a long-term basis into fundamental studies, providing a foundation for further studies and the continuous growth and development of Korea. Over the past seven years, this belief has translated into brilliant achievements in the fields of history and the humanities. In line with Honorary Chairman Chung Se-yung's philosophy of valuing fundamentals and talented people, the Pony Chung Foundation will continue to fully support the development of fundamental studies in a bid to make Korea even stronger in the future.

기초학문의 발전을 이끈 사람들

2009

제1회 수상자

연세대학교 사학과 최윤오 교수

동아시아 역사적 도시공간의 형성과 변화에 관한 연구

18~19세기 중세 말 한국 농촌의 해체와 서울 도시로의 집중이 한국 근대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장기적으로 추적한 연구입니다. 조선 후기 전통 시장이 제국주의 열강의 상품 침투에 직면하면서 맞이하게 된 자본과 시장의 재편 과정을, 장기 유통망과 연안 포구 유통망의 확대와 쇠락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도시 발달이 가져온 농민층의 몰락과 이들이 노동자로 변화하는 과정을 지역별로 비교·분석했으며, 다양한 사례를 통해 도시와 농촌의 존재 형태와 중세 말 농촌 해체 양상을 검토했습니다. 이를 통해 하층 농민의 대량 확산 문제는 새로운 근대 도시 건설과 체제 개혁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으며, 도시는 한국적 시장 특성에 따라 형성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

이화여자대학교 사학과 정혜중 교수

근대 동아시아 여성들의 해외 유학과 사회적 역할

19세기 말 20세기 중반 한국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여성들의 해외 유학과 그들의 사회적 활동을 비교사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여성 유학생들의 기초조사를 함께 진행한 연구입니다. 일본 제국주의와 서양 열강의 영향을 받은 당시 한국과 중국의 여성 유학생들은, 전통적 질서에서의 여성해방, 교육권·참정권 확보라는 보편적 요구 외에도 당면과제인 민족해방이라는 요구에 부응해야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따라서 한국과 중국 여성 유학생들의 해외 유학의 동기 및 배경, 유학 장소에서의 학습 내용과 귀국 후의 사회 활동연구를 통해 당시 여성들의 지위 향상 및 구국에 대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번 연구는 동아시아 여성 유학생에 대한 전면적 연구가 부재한 상황에서, 근대 동아시아 여성들의 일본 및 미국 유학에 대한 기초연구와 더불어 여성 유학생 개개인에 대한 기초조사를 했다는 점에서 연구사적으로 커다란 의의가 있습니다.

2010

제2회 수상자

서강대학교 사학과 최기영 교수

1920~30년대 유기석의 재종독립운동과 아나키즘

1920~30년대 중국에서 활동한 한인 아나키즘 운동의 선봉 유기석의 일생을 중심으로, 일제강점기 재종독립운동과 아나키즘의 상관계를 새로운 관점에서 재조명한 연구입니다. 본명보다 유서, 유수인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졌으며 국내보다 중국에서 명성이 높았던 유기석은, '재중국조선무정부공산주의자연맹', '남화한인청년연맹'과 같은 아나키즘 운동 단체를 조직하고, 한·중·일 아나키스트 연대에도 적극 참여했습니다. 해방 이전에는 한국 독립 운동을 위해 헌신했고, 해방 이후에는 강소 사법학원 역사계 교수로 재직했던 그는, 조국과 민족, 국가의 독립과 자유를 위해 투쟁했던 '민족적 아나키스트'이자 출중한 독립 운동가였습니다.

●

이화여자대학교 사학과 함동주 교수

다이쇼기 일본의 근대적 생활 경험과 이상적 여성상

- <주부지우(主婦之友)>를 중심으로

다이쇼 시대(1912~1926)는 정치적으로는 민주화, 경제적으로는 산업화가 폭넓게 진전되면서 일본이 본격적인 근대사회의 면모를 갖추게 된 시기입니다. 당시 산업화와 더불어 도시화가 두드러지게 진행되면서 여성들의 삶도 전통적 가정생활과는 다른 형태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시 가정'의 출범과 더불어 새로운 생활 체계가 형성되고 서양 문화의 유입이 확산되면서 일본 주부들의 롤 모델로 서양 주부가 전면에 등장한 것입니다. 이번 연구는 이 같은 도시화와 여성상의 변화를 <주부지우>라는 주부대상 잡지를 통해 짚어봄으로써, 다이쇼 시기 일본의 근대적 생활 경험의 다양한 실태와 역사·문화적 의미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2011

제3회 수상자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구범진 교수

조선과 명·청의 외교문서 독법 연구

당시 외교 상황을 짐작할 수 있는 방대한 규모의 외교 사료가 전하고 있음에도 특수 용어가 많아 그 정확한 내용을 추론하기가 어려웠던 데 착안한 연구로, 조선과 명·청의 외교문서 독법 연구를 통해 조선이 중국의 명·청 두 왕조와 주고 받은 외교문서들을 정확히 독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향후 조선시대 국제 관계를 연구하는 외교사·한국사 연구자들이, 현존 외교 사료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는 데 중요한 토대로 자리매김할 전망입니다. 또한 <이문(吏文)>, <사대문궤(事大文軌)> 등에 게재된 명·청의 외교문서를 업선하고, 선정된 자료들을 기존의 문장 해석 형태가 아니라 문서 구조에 맞춰 해석함으로써 외교문서 독법의 새로운 장을 여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

고려대학교 사학과 민경현 교수, 조명철 교수

러일전쟁의 종결과 한국 문제

러일전쟁으로 이어지는 국제 정세의 격변 속에서 일본의 침탈을 받아 보호국 신세로 전락하고 마는 한국의 상황을, 러시아사 전공 교수와 일본사 전공 교수의 공동 연구를 통해 국제적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조망한 연구입니다. 기존의 연구가 일본의 침략주의를 밝힘에 있어 한국과 일본의 관계에만 치중해왔던 데 반해, 한국을 둘러싼 동아시아라는 국제사회의 정황을 토대로 당시 역사를 새롭게 재해석함으로써 한국을 둘러싼 동아시아의 역사상을 새롭게 구축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당시 한국을 둘러싼 국제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구미 열강의 한국에 대한 인식을 객관적으로 알아보는 데 귀중한 자료가 될 뿐 아니라, 일본의 침략 정책을 국제적 관점에서 논의하는 데도 보다 높은 객관성을 획득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The essence of an automobile is quality, and quality comes from sincerity. All of this responsibility concerning quality lies with top management. The essence of a successful automaker comes down to excellent automobiles, or, put another way, quality. When a car company achieves the highest quality, there is no doubt it will become the world’s leading automaker. - from Chung Se-yung’s autobiography, *The Future is What We Make of It* (2000)

2012

제4회 수상자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남동신 교수
〈금석청완〉연구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금석청완〉 10권은 조속(趙速)이 17세기 중반 우리나라의 역대 금석문 탁본을 모아 편찬한 것으로, 현존하는 탁본첩 중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합니다. 특히 〈금석청완〉은 고대와 고려의 금석문 연구뿐 아니라 조선 후기 사대부 문화 연구에 탁월한 사료적 가치를 갖고 있는 사료로, 이번 연구를 통해 〈금석청완〉과 직접적인 영향관계에 있는 〈대동금석첩〉(일본 천리대 도서관 소장) 7권을 비교·검토하고, 〈금석청완〉에 수록된 탁본을 〈조선 금석총람〉 등과 비교함으로써, 한국 고대 및 중세 금석문의 전체 목록 및 판독문 내용을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목록도 없고, 서발문도 따로 전하는 〈금석청완〉의 체계를 재구성함으로써 향후 관련 분야 연구자들이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닦았습니다.

●

이화여자대학교 사학과 조지형 교수, 백옥경 교수
강리도, 세계 현존 최고의 아프로유라시아 지도 연구
1402년 조선에서 제작된 ‘훈일강리역대국도지도’(이하 ‘강리도’)는 아프로유라시아를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지도라는 점에서 중대한 세계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는 ‘강리도’(일본 류큐쿠대학 소장본)를 직접적인 연구대상으로, 현지 조사를 통한 구체적인 지명 확인 및 실제적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새로운 차원의 ‘강리도’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특히 ‘강리도’에 표시된 아프리카 최남단 지역에 비교사적·지구사적 연구를 적용, 근대의 시작을 ‘대항해시대’에서 찾는 유럽중심주의적 시각을 비판적으로 성찰하였습니다. 또한 ‘강리도’와 ‘대명혼일도’의 비교를 통한 현존 최고성 확인과 아프리카 최남단을 표기한 15~16세기 다른 세계지도와 ‘강리도’의 비교 연구를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국제적 수준의 연구 성과를 산출하고, 그 성과를 국내외 학자들에게 널리 알리고 공유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2013

제5회 수상자

중국 국립 푸단(復旦)대학교 중국어학 강은지 박사
상하이 지역 이민사를 통해 본 언어문화 변천 모델 연구
상하이 지역은 역사적으로 이민, 특히 식민지화를 통한 이민이 많았고, 지금도 경제중심도시로의 이주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다민족, 다언어 사회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상하이 방언과 언어 사용자들의 복잡성까지 더해져 언어문화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상하이 지역의 이민사와 언어문화의 변천 과정과 그 관계에 대해 주목했습니다. 연구는 3년간 진행되며 첫 해에는 상하이 지역의 근, 현대 이민사와 언어변천, 생활문화의 변동에 관한 자료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에는 상하이에서 실제 언어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1:1면접과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데이터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언어 사용과 태도 연구를 진행합니다. 이번 연구는 다문화 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도 곧 겪게 될 다문화 사회의 커뮤니케이션 문제에 대비하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14

제6회 수상자

중국 칭화(淸華)대학교 중국 현대문학 전공 이보고 박사
19세기 서구의 대 중국 지식 체계화 과정 연구
19세기는 서구의 중국에 대한 태도가 ‘선망과 동경’에서 ‘경시와 비하’로 전환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의 동양학, 특히 서구에서 바라본 동양학 연구는 많지 않기 때문에 중국 최초의 영문잡지인 『Chinese Repository(1832-1851)』와 『The Middle Kingdom(1848)』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본 연구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1832년부터 20여 년 간 중국에 와있던 선교사들이 발간한 중국 최초의 영문잡지인 『Chinese Repository』 텍스트에 반영되어 있는 당시의 중국 변방의 사회사뿐 아니라 필자들의 중국에 대한 시선 변화를 분석할 예정입니다. 『Chinese Repository』 편집자 상당수가 서구 명문대학에서 중국학 연구를 시작한 연구자가 되었는데 그 중 한명인 Wells가 『Chinese Repository』의 내용을 기반으로 쓴 당시 중국에 대한 대표적인 서적 『The Middle Kingdom』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번 연구는 중국에 대한 지식이 서구에서 어떻게 체계화되며 변화

했고 서구 지식의 체계 속으로 편입해 들어갔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는 좋은 경료가 될 것입니다.

●

중국 국립 베이징(北京)대학교 당·송사 전공 최해별 박사
동아시아 법제사 분야 연구
동양 최초의 법의학서인 『세원집록』은 서양이 법의학서보다도 300여 년 앞선 것으로 지방관이 살인사건을 재판함에 있어 지켜야 할 검험 매뉴얼을 상세하게 정리한 고서입니다. 송대에 정리된 『세원집록』은 원대 『무원록』으로 발전되며 중국 법제사 기틀을 잡았고, 이 책이 조선으로 건너가 당시 상황에 맞게 『신주무원록』으로 정리됐으며 이는 또다시 18세기에 일본으로도 전해졌습니다. 본 연구는 법의학 서적과 지식의 전파, 번역을 통해 당시 공통의 역사를 공유하고 있던 ‘동아시아’라는 역사공간을 증명할 계획입니다. 본 연구를 위해 먼저 중국과 일본을 방문하여 각국의 법제 사료와 그에 대한 연구를 먼저 살펴볼 예정입니다. 조선의 법제사 사료는 풍부한 편이고 이미 높은 수준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비교 연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동아시아의 공존과 연대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 동아시아의 공통점을 인식하고 그 연구의 폭을 넓히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중국의 영향을 받은 한국과 일본이라는 단절적인 시각을 넘어 문화체계, 가치체계를 공유하는 하나의 생활권으로 바라보고, 동아시아라는 지역사를 복원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사례가 될 것입니다.

PEOPLE WHO PLAYED A KEY ROLE IN THE DEVELOPMENT OF FUNDAMENTAL STUDIES

2009

1ST RECIPIENT

Prof. Choi Yoon-oh, Dept. of History, Yonsei University
A Study on the Formation of and Changes in Historical East Asian Urban Areas
This study looked at how the long-term devolution of Korean farming villages and the subsequent population increase in Seoul (then known as Hanyang) influenced the modernization of the country in the 18th and 19th centuries. Specifically, it examined how Seoul and its markets were reorganized in the late Joseon era, when traditional markets faced competition from products made by Western imperial powers. This was done through the expansion/decline of distribution networks among markets and seaports. In addition, the study comparatively analyzed the inverse relationship between the declining number of farmers and the increasing number of manual laborers due to the development of urban centers, while also examining what cities and farming villages used to be like and how farming villages began devolving in the late Middle Ages.

●

Prof. Chung Hye-jung, Dept. of History, Ewha Womans University
Women Who Studied Abroad and Their Social Impact on Modern East Asia
This study looked at East Asian (mainly Korean) women who studied overseas and the effect they had on society upon their return to their native country from the late 19th to mid-20th century from a comparative perspective. Basic information and statistics on East Asian women who had the opportunity to study in another country were also presented through this study. By investigating these women’s motives and background, as well as where and what they studied while abroad and what kind of social activities they took part in after returning home, it became possible to examine how those women tried to improve their own status and/or provide assistance for their countries. Up until Professor Chung’s study, there had been no full-scale study on females from East Asia who studied in other countries. This is one of the reasons the study was so unique, in that it detailed the basic research carried out on individual female students who studied abroad in addition to basic information and statistics on East Asian women who studied in Japan and the U.S. in modern times.

2010

2ND RECIPIENT

Prof. Choi Ki-young, Dept. of History, Sogang University
Ryu Ki-seok’s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in China in the 1920s & 1930s and Anarchism
Professor Choi’s study shed new ligh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in China and anarchism during the Japanese ruling era, with a specific focus on Ryu Ki-seok, a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leader in China during the 1920s and 1930s. Widely known by the pseudonyms Liu Xu and Liu Shuren, Ryu was more famous in China than Korea back in his day. He organized anarchist organizations such as the Chinese Federation of Anarchist Korean Communists, and the Nanhua Federation of Korean Youth. He also played an active role in the Korea-China-Japan anarchist solidarity movement. After Korea’s liberation from Japan, he worked as a history professor at Jiangsu Teachers’ College.

●

Prof. Ham Dong-ju, Dept. of History, Ewha Womans University
Life in the Daisho Period and the Ideal Image of a Woman as Seen through A Housewife’s Friend Magazine
The Daisho period (1912-1926) was a time when Japan starting exhibiting aspects of a modern society in earnest.

Democracy and industrialization were taking firm root at the time. As urbanization moved forward alongside industrialization, women’s lives began to change from what they were in traditional families. Urban families brought with them new lifestyles, and as Western culture became more and more influential, European and American housewives emerged as role models for many Japanese housew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hed light on various aspects and the historic/cultural meaning of modern life in Japan during the Daisho period by examining the urbanization of society and changes in the ideal image of women through a magazine called *A Housewife’s Friend*.

2011

3RD RECIPIENT

Prof. Koo Bum-jin, Dept. of Asian History, Seoul National University

A Study on the Ways of Reading Diplomatic Documents from the Joseon, Ming, and Qing Dynasties

Although there is a huge amount of extant materials from hundreds of years ago that details diplomatic efforts between Korea and China, it is difficult to understand the precise nature of certain material because of the language used in these documents. By studying the terms related to diplomatic documents at the time, this study offered a means to understand diplomatic exchanges between Joseon-era officials and their counterparts in China during the Ming and Qing dynasties. This study is also expected to help provide an important foundation for future researchers to make full use of existing diplomatic materials when looking into Joseon’s international relations. By carefully selecting diplomatic documents and then explaining their specific structures from the past, this study has opened a new window of insight onto Korean and Chinese diplomatic documents.

●

Prof. Min Kyung-hyun & Prof. Cho Myung-chul, Dept. of History, Korea University

The Effect of the Russo-Japanese War on Korea

In the midst of the rapid changes which took place on the international stage and contributed to the outbreak of the Russo-Japanese War, Korea was deemed a “protected” country by Japan. Min, a professor in Russian history, and Cho, a professor in Japanese history, carried out the study together and looked at the situation from an objective and international perspective. While existing studies usually focu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Japan when delving into Japan’s aggressiveness, this study reexamined events from the timeline based on the realities of international politics in East Asia at the turn of the 20th century, which

has helped establish a more precise and factual viewpoint of East Asian history. This study provides immensely useful information dealing with Western powers and their awareness of Korea back then, as well as discussing Japan’s expansionist policy in an objective way.

2012

4TH RECIPIENT

Prof. Nam Dong-shin, Dept. of Korean History, Seoul National University

A Study on Geumseokcheongwan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has in its possession 10 volumes of *Geumseokcheongwan*, a collection of epigraph stone rubbings in Korean compiled by a Korean painter and calligrapher named Jo Sok in the mid-17th century. This is the oldest extant collection of epigraph stone rubbings. *Geumseokcheongwan* is especially well known as an invaluable historical material when studying epitaphs from centuries and millennia ago, as well as information about the late Joseon dynasty’s nobility. This study compared seven volumes from *Daedonggeumseokcheop* with *Geumseokcheongwan* (which it is directly related to and is today housed in Japan’s Tenri University’s library) and other similar collections of stone rubbings. This study corrected and complemented previous lists that sought to decipher Korea’s epitaphs from ancient times and the Middle Ages. Furthermore, the study provided additional basic material that can be used by researchers in related fields by reorganizing the structure of *Geumseokcheongwan*, which up until now did not have any proper accompanying lists with its preface and introduction, which were separated from the collection itself.

●

Prof. Cho Ji-hyeong & Prof. Baek Ok-kyung, Dept. of History, Ewha Womans University

A Study on Gangnido: The World’s Oldest Afro-Eurasian Map

Created by Koreans in 1402, the Honil Gangni Yeokdae Gukdo Jido (“Map of the Integrated Lands and Regions of Historical Countries and Capitals”), and often abbreviated as Gangnido (or Kangnido), is one of the oldest surviving world maps we have today. This study focused on the map now housed at Japan’s Ryukoku University, shedding light on Gangnido in new and important ways through field surveys. Professors Cho and Baek critically examined previously held Europe-oriented views of looking at the early modern era in the age of maritime expansion by applying comparative research on the southernmost parts of Africa, which is marked on Gangnido. After comparing Gangnido with other world maps from the 15th and 16th centuries, which showed the southernmost parts of Africa, results from the study were shared with scholars in Korea and around the world.

2013

5TH RECIPIENT

Kang Eun-ji, Ph.D., Dept. of Chinese Language, Fudan University

A Study on Changes in Language Models as Seen through Immigrants in Shanghai

Historically, Shanghai has had a lot of immigrants, especially through colonization. Today, the area is a multiracial, multilingual society with wave upon wave of people migrating there due to its economic influence. Throughout China, many people use Mandarin, as it is the official language, but some people, especially in Shanghai, use Shanghainese, too. What’s more is that language—and everything connected to it—is constantly changing there. The study paid attention to the history of immigration in Shanghai, changes in language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m. In the first year of the three-year study, Kang will collect data related to changes in language, lifestyle and culture in connection with the history of immigration in the Shanghai region. Then, she will travel to Shanghai and carry out research on how people actually deal with their linguistic reality through one-on-one interviews and surveys. This study is expected to help Korea get prepared for and solve communication problems in a more multicultural society.

2014

6TH RECIPIENT

Lee Bo-go, Ph.D. in Chinese Modern Literature, National Tsing Hua University, China

A Study on How the West Learned about China during the 19th Century

The 19th century was an important era when the West’s attitude toward China was changing from one of envy and yearning to one of contempt. However, not many studies have been conducted on this era in East Asian studies, especially from the Western point of view, so this study focusing on the relation of China’s first English periodicals *Chinese Repository* (1832-1851) and *The Middle Kingdom* (1848) is very meaningful. Lee will analyze Chinese social history as well as changes in contributors’ views on China as they are reflected in the texts of *The Chinese Repository*, the first English periodical published by Protestant missionaries between 1832 and 1851. Many of its editors would later go on to become scholars in the field of Sinology at renowned Western universities. One of these people was Samuel Wells Williams, who published *The Middle Kingdom*, a well-known book about China in those days, based on material from *The Chinese Repository*. This study will also focus on *The Middle Kingdom*,

and will provide an effective way to show how knowledge about China was recorded, changed, and incorporated into the Western knowledge system.

●

Choi Hae-byeol, Ph.D. in History of Song and Tang, Peking University

A Study on East Asian Legislative History

East Asia’s first book of forensic medicine, *Record of Washed Grievances* was published more than 300 years earlier than the West’s first book of forensic medicine. Record of Washed Grievances presents a detailed investigation manual for local officials who are judging a number of murder cases. *Record of Washed Grievances* was written during the Song dynasty and was developed into *Muwonrok* during the Yuan dynasty, establishing the frame of Chinese legislative history. The book was then sent to Joseon and was reorganized to be suitable for the situations of those days, becoming *Sinjumuwonrok* (新註無冤錄). This book was also sent to Japan in the 18th century.

This study will prove the historic space called East Asia that shared the same history in those days through the distribution and translation of books and knowledge in forensic medicine. For this study, Choi will visit China and Japan to examine each country’s legislative history and related studies. Fortunately, we have many extant materials about Joseon’s legislative history, and the level of studies is already high, so comparative studies will be conducted with the help of certain experts. Recently, the coexistence and ties between East Asian countries get more important, and Choi hopes that this study will help people recognize common aspects of these countries and enlarge the scope of their studies on them. This study will look at East Asia as one living zone that shares a common culture and value system, instead of separating countries like Korea and Japan, as influenced by China. Also it will present another example of restoring the regional history of East Asia.

FULL LIST OF PONY CHUNG SCHOLARSHIP RECIPIENTS

역대 포니정 장학생 명단

에콰도르로 처음 수출을 하며 우리가 보낸 것은 단지 다섯 대의 포니뿐만은 아니었다. 포니를 선정한 컨테이너선이 드넓은 태평양을 건너는 동안 세계를 향한 우리의 꿈, 오대양 육대주를 향한 현대의 야망도 함께 실려 갔던 것이다.

- 1976.07. 정세영 명예회장

청년이여, 꿈을 가져라!

꿈이 있는 사람은 스스로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난관에 부딪혔다고 주저하는 법도 없습니다. 다시 일어설 기회를 모색하고, 자신의 꿈을 펼쳐나갈 방법을 찾습니다. 1967년 12월, 미국 포드자동차와의 합작 회사로 출발했던 현대자동차가 고작 7년여 만인 1974년, 고유모델 포니를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 믿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1973년 포드와의 합작이 깨어진 후, 정세영 명예회장이 “우리의 살 길은 고유모델 개발뿐이다” 부르짖었을 때도, “우리는 이때까지 포드에서만 들어준 조립용 도면도 하나 제대로 옮길 수 있는 기술이 없다, 그런데 어떻게 바디를 설계하느냐” 되물으며 반대하는 이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세영 명예회장은, “나는 죽느냐 사느냐 하는 길인데, 이걸 안 가면 나는 죽겠고 그러니까 나는 가야겠다”고 다짐하며 포니 개발에 매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토리노 국제 모터쇼에 포니를 출품, 세계 언론과 자동차 업계의 탄성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이때의 감회를 정세영 명예회장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탈리아 토리노 모터쇼는 포니에게는 잊지 못할 데뷔 무대였으며, 나에게서는 세계를 향해 첫발을 내딛게 해준 희망의 발원지였다.”

절실한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지만 이것은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정세영 명예회장의 궁극적인 목표는 고유모델 개발이 아닌 수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유모델을 만들어야지, 우리 마음대로 수출을 할 수 있다. 이 벽을 뚫지 않으면, 우리 회사는 생존할 수 없다. 살기 위해서 죽으나 사나 해야겠다”고 다짐할 정도로 수출은 정세영 명예회장에게 반드시 완수해야 할 지상과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제는 훌륭하게 완수되었습니다. 1976년 에콰도르 수출을 시작으로, 현대자동차는 오대양 육대주로 뻗어나갔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꿈은 ‘반드시 이루어야겠다’는 절실함을 동반할 때 그 힘이 배가 됩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정세영 명예회장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도 절실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세영 명예회장의 꿈을 이어받은 포니정 재단이 젊은 인재들의 꿈을 응원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절대 가난하지 않습니다. 꿈이 있다면, 그리고 이를 실현하고 싶다는 절실함과 강한 의지만 있다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포니정 재단은 앞으로도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인재들이 자신의 꿈을 활짝 펼칠 수 있도록 지지하고 격려하겠습니다. 포니정 장학금은 높은 이상과 꿈, 포부를 가진 젊은 인재들, 바로 여러분의 것입니다.

When we first exported automobiles to Ecuador, what we sent were not just five Hyundai Ponies. As the container shipped with the Ponies crossed the massive expanse of the Pacific Ocean, it carried with it not just our dreams, but Hyundai’s global ambitions.

- Chung Se-yung, July 1976

DARE TO DREAM!

A dreamer never gives up. Dreamers do not become frustrated in the face of difficulties or challenges, and instead search for opportunities to rise yet again as they realize their dreams. In December 1967, Hyundai Motor Company started its operations as a joint venture with Ford. At the time, nobody could foresee that Hyundai would release its own car model, the Pony, in 1974—just seven years later. When the collaboration with Ford ended in 1973, Honorary Chairman Chung Se-yung declared, “The only way for us to survive is to develop our own car model independently.” However, many of those around him objected to his plan, asking how Hyundai could ever design an automotive body while the company was still having difficulty in creating a Henry Ford-like assembly line. Still, Chung was determined to develop the Pony, and in 1974 the car was unveiled for the world to see at the Turin International Motor Fair, where it was well received by the world’s press and automotive industry. Recalling that time, Chung said, “The Turin International Motor Fair was an unforgettable stage for the Pony to be debuted, not to mention a source of hope in allowing me to take my first step toward the world.”

STAY TRUE TO YOUR DREAMS AND THEY ARE BOUND TO COME TRUE

That was just the beginning, though. Chung’s ultimate goal was not just the independent development of Hyundai’s own car model, but to export it around the world. As he once put it, “We need to make our own car model in order to export automobiles the way we want to. Hyundai won’t survive without making our very own cars. Thus, for the simple sake of survival, this needs to be done no matter what.” Exporting automobiles was a huge undertaking for Chung, yet the task was brilliantly executed when Hyundai Motor Company eventually started exporting automobiles to Ecuador in 1976. Clearly, the power to dream is only strengthened when accompanied by an individual’s unrelenting determination. Chung Se-yung’s dream, which looked impossible to many, came true because of such a determination. Since its foundation, the Pony Chung Foundation has believed wholeheartedly in Chung’s belief to support young people’s dreams. Ultimately, a dreamer is never poor. Any person with a dream—and the determination to see it through to the end—will see that dream come true. The Pony Chung Foundation will continue to support and encourage young talents so that they pursue their dreams to the very end. Pony Chung scholarships exist today for young talents with admirable ideals and ambition.

PONY CHUNG SCHOLARSHIP STUDENTS, DOMESTIC

포니정 국내 장학생

1기

1기 포니정 장학생 (33명)

2006년 선발 / 2007년 장학금 지급

강민구 충북대학교 토목, 국정근 전북대학교 건축, 권오훈 한양대학교 토목, 김경태 고려대학교 토목, 김로사 서울대학교 건축, 김무광 부산대학교 토목, 김상범 연세대학교 토목, 김우주 서울대학교 건축, 김은성 한양대학교 건축, 김창환 부산대학교 건축, 김호택 강원대학교 토목, 두병혁 전북대학교 토목, 박성기 연세대학교 건축, 박승범 충남대학교 토목, 박준현 충남대학교 토목, 박진석 경북대학교 건축, 배태현 경북대학교 건축, 안지훈 전남대학교 건축, 윤진수 한양대학교 토목, 이경무 전남대학교 건축, 이민표 충북대학교 건축, 이소피아 서울대학교 토목, 이재원 연세대학교 건축, 이준희 충남대학교 건축, 임용규 전남대학교 토목, 장윤덕 충북대학교 건축, 전성갑 강원대학교 건축, 정경인 고려대학교 토목, 조현곤 경북대학교 토목, 진성현 부산대학교 토목, 채수환 전북대학교 토목, 최용훈 강원대학교 토목, 풍경아 고려대학교 건축,

1기 포니정 장학생 지급 총 금액 - 1억 8,605만 원

2기

2기 포니정 장학생 (33명)

2007년 선발 / 2008년 장학금 지급

강민구 충북대학교 토목, 강수진 전남대학교 건축, 고승세 한양대학교 건축, 국정근 전북대학교 건축, 김경태 고려대학교 토목, 김로사 서울대학교 건축, 김무광 부산대학교 토목, 김상범 연세대학교 토목, 김창환 부산대학교 건축, 김형구 충북대학교 건축, 김호택 강원대학교 토목, 박성진 강원대학교 건축, 박승범 충남대학교 토목, 박진규 서울대학교 건축, 박진석 경북대학교 건축, 박춘구 한양대학교 토목, 백초롱 부산대학교 건축, 안지훈 전남대학교 건축, 윤진수 한양대학교 토목, 이동현 전북대학교 토목, 이소피아 서울대학교 토목, 이재민 경북대학교 건축, 이준희 충남대학교 건축, 이상현 연세대학교 건축, 임수연 충남대학교 건축, 임용규 전남대학교 토목, 장윤덕 충북대학교 건축, 전찬경 강원대학교 토목, 정다영 연세대학교 건축, 조현곤 경북대학교 토목, 채수환 전북대학교 토목, 풍경아 고려대학교 건축, 하상희 고려대학교 토목,

2기 포니정 장학생 지급 총 금액 - 1억 9,837만 원

3기

3기 포니정 장학생 (24명)

2008년 선발 / 2009년 장학금 지급

김정란 한양대학교 사학, 노수영 이화여자대학교 사학, 류찬호 고려대학교 사학, 문성진 한양대학교 건축, 민혁준 고려대학교 건축, 박상훈 연세대학교 건축, 박수연 연세대학교 건축, 박은영 서강대학교 사학, 박초롱 이화여자대학교 사학, 박춘구 한양대학교 토목, 배수정 서울대학교 사학, 손진배 서울대학교 토목, 여선영 서강대학교 사학, 유지민 한양대학교 사학, 이문섭 연세대학교 토목, 이준혁 한양대학교 건축, 장재경 연세대학교 사학, 전다맥 서울대학교 건축, 정다솜 서울대학교 사학, 조규연 서울대학교 건축, 조현민 연세대학교 사학, 조혜영 고려대학교 사학, 최시훈 고려대학교 건축, 하상희 고려대학교 토목,

3기 포니정 장학생 지급 총 금액 - 1억 8,255만 원

4기

4기 포니정 장학생 (24명)

2009년 선발 / 2010년 장학금 지급

강지호 고려대학교 건축, 김상우 서울대학교 건축, 김예은 한양대학교 건축공학, 김은지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 김진영 연세대학교 토목, 환경공학, 김현중 연세대학교 건축공학, 노수영 이화여자대학교 사학, 박기원 한양대학교 사학,

박상훈 연세대학교 건축, 박호철 서울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공학, 서명석 한양대학교 토목공학, 손상우 고려대학교 사회환경시스템공학, 이나영 연세대학교 건축, 이주영 연세대학교 사학, 이준혁 한양대학교 건축공학, 이홍빈 서강대학교 사학, 전다맥 서울대학교 건축, 정성훈 서울대학교 동양사, 조성민 한양대학교 역사학, 조혜영 고려대학교 한국사, 주수향 서강대학교 사학, 최선영 이화여자대학교 사학, 최정용 고려대학교 사회환경시스템공학, 한준희 고려대학교 건축,

4기 포니정 장학생 지급 총 금액 - 1억 9,322만 원

5기

5기 포니정 장학생 (30명)

2010년 선발 / 2011년 장학금 지급

강명준 고려대학교 건축사회환경공학, 강지호 고려대학교 건축, 김영섭 한양대학교 건축, 김효종 고려대학교 사학, 남기정 이화여자대학교 사학, 도은수 서울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공학, 박기원 한양대학교 사학, 박관용 한양대학교 건축, 박다혜 이화여자대학교 사학, 박선영 연세대학교 토목환경공학, 박시연 서울대학교 동양사, 박진석 한양대학교 토목공학, 백다혜 이화여자대학교 사학, 서영수 서울대학교 건축, 신재희 서울대학교 건축, 양아름 서강대학교 사학, 원상현 서울대학교 건축공학, 이나영 연세대학교 건축공학, 이대진 연세대학교 토목환경공학, 이용훈 연세대학교 사학, 이재연 한양대학교 사학, 이현경 고려대학교 건축사회환경공학, 이홍빈 서강대학교 사학, 장성욱 한양대학교 건축공학, 전선영 서강대학교 사학, 조윤민 서울대학교 국사, 최윤주 고려대학교 건축, 하수현 연세대학교 토목환경공학, 한경애 고려대학교 한국사, 홍성봉 연세대학교 사학,

5기 포니정 장학생 지급 총 금액 - 2억 3,901만 원

6기

6기 포니정 장학생 (30명)

2011년 선발 / 2012년 장학금 지급

고영우 고려대학교 건축사회환경공학, 김두훈 서강대학교 철학, 김세진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 김현아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 남상기 연세대학교 건축공학, 남영진 이화여자대학교 철학, 박관용 한양대학교 건축학, 박선아 서강대학교 사학, 박주연 이화여자대학교 철학, 사회동 고려대학교 건축사회환경공학, 손현선 이화여자대학교 사학, 송호권 한양대학교 건축공학, 안은선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 유설희 고려대학교 철학, 윤성식 연세대학교 토목환경공학, 윤창민 연세대학교 사학, 윤호식 연세대학교 철학, 이광석 한양대학교 건축학, 이선민 연세대학교 토목환경공학, 이용운 서울대학교 동양사학, 이윤수 고려대학교 철학, 이재연 한양대학교 사학, 이진철 한양대학교 철학, 임복규 서강대학교 사학, 장준수 고려대학교 사회환경시스템공학, 정수호 서울대학교 건축공학, 조예민 서울대학교 건축공학, 최유빈 연세대학교 건축공학, 최현호 고려대학교 건축사회환경공학, 한경석 한양대학교 건설환경공학,

6기 포니정 장학생 지급 총 금액 - 2억 3,426만 원

7기

7기 포니정 장학생 (30명)

2012년 선발 / 2013년 장학금 지급

고홍주 서강대학교 철학과, 구건희 고려대학교 건축사회환경공학과, 김미혜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김봉균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김지혜 고려대학교 철학과, 남상기 연세대학교 건축학과, 박병규 서강대학교 사학과, 손민재 고려대학교 건축사회환경공학과, 안태욱 고려대학교 건축사회환경공학과, 우희원 이화여자대학교 사학과, 유환 서울대학교 철학과, 윤창민 연세대학교 사학과, 이주영 고려대학교 건축사회환경공학과, 이상구 연세대학교 철학과, 임경민 연세대학교 건축학과, 정다운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정덕원 한양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정소망 서강대학교 철학과, 조예민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진민지 연세대학교 토목공학과, 차윤지 한양대학교 건축학과, 채한철 한양대학교 사학과, 최규현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최돈영 한양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최민철 고려대학교 철학과, 최유빈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최지웅 한양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표상록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허다운 이화여자대학교 철학과, 황인영 이화여자대학교 철학과,

7기 포니정 장학생 지급 총 금액 - 2억 3,020만 원

8기

8기 포니정 장학생 (30명)

2013년 선발 / 2014년 장학금 지급

고민정 이화여자대학교 사학과, 고지원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구건희 고려대학교 건축사회환경공학부, 김미혜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김은혜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김종승 고려대학교 건축학과, 박병민 연세대학교 건축학과, 박유리 서강대학교 사학과, 박준형 연세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박중현 한양대학교 사학과, 성유민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신동호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신아수 이화여자대학교 사학과, 이구열 고려대학교 건축공학과, 이동현 서강대학교 철학과, 이선영 한양대학교 철학과, 이예슬 서울대학교 철학과, 이은주 고려대학교 철학과, 임경민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전세용 연세대학교 사학과, 정덕원 한양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정연교 고려대학교 건축사회환경공학부, 조유영 서강대학교 사학과, 차윤지 한양대학교 건축학과, 최규현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최지웅 한양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허희연 이화여자대학교 철학과, 황윤정 연세대학교 철학과, 황재진 연세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황준일 고려대학교 건축사회환경공학부,

8기 포니정 장학생 지급 총 금액 - 2억 668만 원

9기

10기

ART SCHOLARSHIP

예술 분야 장학생

1기

김준희 한국예술종합학교 피아노과

장학금 지급 총 금액 - 6,200만 원

2기

2013년 제1회 영창뮤직콩쿠르 장학생 (43명)

이승현 피아노 부문 최우수상, 임기우 피아노 부문 최우수상, 조성일 피아노 부문 최우수상, 김혜수 클라리넷 부문 대상, 김현호 트럼펫 부문 대상 포함 입상자 43명

장학금 지급 총 금액 - 4,350만 원

3기

2014년 제2회 영창뮤직콩쿠르 장학생 (45명)

최영선 피아노 부문 대상, 추민경 클라리넷 부문 대상, 이수정 색소폰 부문 대상 포함 입상자 45명

장학금 지급 총 금액 - 4,940만 원

4기

PONY CHUNG SCHOLARSHIP STUDENTS, VIETNAM

포니정 베트남 장학생

1기

2007 PONY CHUNG SCHOLARSHIP STUDENTS, VIETNAM (20 STUDENTS)

Vietnam National University, Ho Chi Minh City, 20 students

Nguyen Thi Qui Construction Technology and Management, Nguyen Anh Thu Civil Engineering , Phan Luu Minh Phuong Civil Engineering, Nguyen Thanh Van Construction Materials, Dinh The Hung Civil and Industrial Engineering, Tran Thai Minh Chanh Civil and Industrial Engineering, Le Luong Bao Nghi Civil and Industrial Engineering, Tran Vinh Loc Civil and Industrial Engineering, Nguyen Thi Thu Thao Civil Engineering, Huynh Ngoc Thi Transportation Engineering, Bui Phuong Trinh Civil Engineering, Tran Duc Hoang Viet Department & Civil Engineering, Le Hoang Thanh Nam Civil Engineering, Dinh Quoc Bien Civil Engineering, Huynh Thanh Canh Civil Engineering, Nguyen Khac Dung Civil Engineering, Vo Minh Ho Civil Engineering, Nguyen The Truong Phong Civil Engineering, Nguyen Khuong Tin Civil Engineering, Le Tien Trung Civil Engineering,

Total amount awarded for 2007 - USD 10,000 (USD 500 per student)

2기

2008 PONY CHUNG SCHOLARSHIP STUDENTS, VIETNAM (60 STUDENTS)

Vietnam National University, Ho Chi Minh City, 30 students

Nguyen Anh Thu Construction Technology and Management, Le Luong Bao Nghi Civil and Industrial Structures, Tran Quoc Toan Civil and Industrial Structures, Tran Duc Hoang Viet Geotechnical Engineering, Bui Phuong Trinh Construction Materials, Do Tien Sy Construction Technology and Management, Huynh Ngoc Thi Bridge and Tunnel Engineering, Nguyen Quang Truong Water Resources Engineering, Chau Phuong Khanh Mapping, Remote Sensing and Gis, Nguyen Trong Khanh Mapping, Remote Sensing and Gis, Le Thanh Tuyen Civil and Industrial Structures, Nguyen Thanh Tuan Civil and Industrial Structures, Le Nhurt Truong Civil and Industrial Structures, Dang Ngoc Canh Civil and Industrial Structures, Dang Ngoc Loi Bridge and Highway, Dang Thanh Hoai Civil and Industrial Structures, Nguyen Thanh Loc Civil and Industrial Structures, Nguyen Thanh Nghia Civil and Industrial Structures, Nguyen Van Anh Civil and Industrial Structures, Le Minh Tien Civil and Industrial Structures, Do Ba Trong Bridge and Highway, Hoang Cong Luan Civil and Industrial Structures, Nguyen Tan Curong Civil and Industrial Structures, Tran Huy Toan Civil and Industrial Structures, Dang Ngoc Toan Civil and Industrial Structures, Ha Duy khanh Civil and Industrial Structures, Nguyen Trung Kien Civil and Industrial Structures, Tran Duy Khanh Bridge and Highway, Tran Trong Tri Construction Materials, Tien Chi Long Civil and Industrial Structures,

Vietnam National University, Hanoi, 30 students

Le Anh Tin Pedology, Vu Thuy Linh Meteorology Hydrology & Oceanography, Vu Van Minh Geology, Nguyen Thi Thanh Hoang Geography, Nguyen Van De Geology, Nguyen Thi Thu Trang Literature, Nguyen Dinh Hau Journalism & Communication, Nguyen Thi Dung Tourism, Nguyen Thi Dinh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Nguyen Tuan Anh Psychology, Le Hong Hanh Russian Language & Culture, Dao Van Huynh French Language & Culture, Ta Thi Thanh Tam French language & culture, Chu Thi Phuong Nhung German language & culture, Nguyen Thu Ha German Language & Culture, Nguyen Thuy Duong Chinese Language & Culture, Le Huy Tuan Technical Mechanics, Ho Thi Anh Technical Physics, Nguyen Van Chien Technical Physics, Nguyen Thi Dung Political Economy, Phung Thi Hien Political Economy, Bui Due Tien Faculty

of Law. **Vu Thi Luyen** Faculty of Law. **Pham Thi Nhai** Chemistry Education. **Nguyen Hoang Yen** History Education. **Du Vu Viet Quan** Geography. **Tran Anh Tuan** Rational use of Natural resources. **Nguyen Thi Hue** Psychology. **Ngo Thi Minh Thu** Russian Language & Culture. **Bui Dinh Tu** Micro-Nano.

Total amount awarded for 2008 - USD 30,000 (USD 500 per student)

2009 PONY CHUNG SCHOLARSHIP STUDENTS, VIETNAM (60 STUDENTS)

Vietnam National University, Ho Chi Minh City, 30 students

Nguyen Hoang Tuong Nhu Civil Engineering. **Nguyen Ba Quang Vinh** Civil Engineering. **Dinh Quoc Bien** Civil Engineering. **Vang Hieu Quang** Civil Engineering. **Nguyen Tan Tien** Civil Engineering. **Nguyen Tan Cuong** Civil Engineering. **Nguyen The Truong Phong** Civil Engineering. **Pham Minh Tue** Civil Engineering. **Lam Vu Ngo Hung** Civil Engineering. **Hoang Xuan Duc** Civil Engineering. **Nguyen Minh Tri** Mechanical Engineering. **Phan Thanh Duong** Electrical & Electronic. **Nguyen Xuan Binh** Electrical & Electronic. **Le Hong Khiem** Electrical & Electronic. **Bui Duc Tai** Chemical Technology & Petroleum. **Pham Toan Thuc** Chemical Technology & Petroleum. **Vu Huong Van** Chemical Technology & Petroleum. **Lam Ngoc An** Computer Science & Engineering. **Hoang Khanh Hung** Computer Science & Engineering. **Tran Quoc Huy** Computer Science & Engineering. **Dang Ngoc Canh** Civil Engineering. **Nguyen Van Khanh** Mechanical Engineering. **Le Hoang Thanh Nam** Material Engineering. **Nguyen Trong Khanh** Geology and Petroleum Engineering. **Huynh Ngoc Thi** Civil Engineering. **Tran Duc Hoang Viet** Geology and Petroleum Engineering. **Bui Phuong Trinh** Material Engineering. **Phan Dinh Tuan** Mechanical Engineering. **Truong Tuan Anh** Computer Science. **Phan Dinh Khoi** Computer Science.

Vietnam National University, Hanoi, 30 students

Dang Thi Ngoc Anh College of Science. **Nguyen Van Tang** College of Science. **Pham Hoai Thu** College of Science. **Ngo Thi Huyen Trang** College of Science. **Trinh Thi Kieu Trang** College of Science. **Dang Van Doan** College of Science. **Tran Anh Tuan** College of Science. **Mai Linh** College of Social Sciences & Humanities. **Nguyen Thi Anh Hong** College of Social Sciences & Humanities. **Le Hong Nhung** College of Social Sciences & Humanities. **Vu Thi Ngoan** College of Social Sciences & Humanities. **Le Thi Bich Phuong** College of Social Sciences & Humanities. **Nguyen Son Minh** College of Social Sciences & Humanities. **Nguyen Hai Ha** College of Foreign Languages. **Nguyen Thi Ngoc Diep** College of Foreign Languages. **Nguyen Thi Dung** College of Foreign Languages. **Chu Thi Luong** College of Foreign Languages. **Nguyen Thi Huong** College of Foreign Languages. **Nguyen Thuy Duong** College of Foreign Languages. **Nguyen Xuan Truong** College of Technology. **Vuong Quoc Trung** College of Technology. **Tran Bao Thai** College of Technology. **Nguyen Van Hiep** College of Technology. **Vu Nguyen Thuc** College of Technology. **Doan Quoc Dung** College of Economics. **Nguyen Thi Mai** College of Economics. **Bui Thi Hoai** College of Education. **Tran Thi Phuong** College of Education. **Nguyen Thanh Ha** Faculty of Law. **Le Thi Thu Hang** Faculty of Law.

Total amount awarded for 2009 - USD 30,000 (USD 500 per student)

2010 PONY CHUNG SCHOLARSHIP STUDENTS, VIETNAM (60 STUDENTS)

Vietnam National University, Ho Chi Minh City, 30 students

Huynh The Vi Civil Engineering. **Le Thanh** Civil Engineering. **Nguyen Tan Tien** Civil Engineering. **Ho Anh Tuan** Civil Engineering. **Ngo Thanh Nhan** Civil Engineering. **Le Nhat Toan** Mechanical Engineering. **Tran Van Manh Hung** Mechanical Engineering. **Tran Van Linh** Mechanical Engineering. **Huynh Thanh Phuc**

Mechanical Engineering. **Hoang Viet Ha** Electrical & Electronic. **Truong Huu Phuc** Electrical & Electronic. **Nguyen Thanh Minh** Electrical & Electronic. **Do Tien** Electrical & Electronic. **Thai Chi Minh** Computer Science & Engineering. **Le Hai Son** Computer Science & Engineering. **Nguyen Thien Tin** Computer Science & Engineering. **Vo Duc Vinh** Computer Science & Engineering. **Dang Thuy An** Industrial Management. **Mai Thi Dieu** Industrial Management. **Pham Dang Khoa** Material Technology. **Trinh Cong Luan** Civil and Industrial Structures. **Nguyen The Truong Phong** Civil and Industrial Structures. **Nguyen Tan Cuong** Civil and Industrial Structures. **Dang Ngoc Canh** Civil and Industrial Structures. **Phan Dao Hoang Hiep** Civil and Industrial Structures. **Nguyen Trung Kien** Geology and Petroleum Engineering. **Nguyen Thanh Tu** Construction Technology and Management. **Ho Thi Phuong Dung** Construction Technology and Management. **Vang Hieu Quang** Construction Technology and Management. **Nguyen Tang Thanh Binh** Bridge and Highway Construction Civil Engineering.

Vietnam National University, Hanoi, 30 students

Nguyen Thi Quynh Trang Geography. **Dinh Van Thin** Physics. **Nguyen Thi Huyen Trang** Environmental Science. **Nguyen Van Huynh** Biotechnology. **Pham Dinh Hieu** Mathematical Assurances for Computers and Computing Systems. **Nguyen Thi Mai** Oriental Studies. **Nguyen Thi Nga Mi** Oriental Studies. **Le Thi Ngoc Anh** Library and Information. **Nguyen Hai Anh** Philosophy. **Pham Van Hue** Psychology. **Vu Hai Trang** Science and Technology Management. **Nguyen Hong Hanh** Western Languages and Culture. **Vu Thi Mai Loan** Korean Languages and Culture. **Nguyen Thi Hai Ly** Korean Languages and Culture. **Nguyen Thi Tu Linh** French Language and Culture. **Nguyen Nhue Giang** English Language Teacher Education. **Nguyen Thuy Duong** Chinese Language and Culture. **Truong Thi Dung** Theoretics and Russia Teaching Method. **Pham Hai Dang** Information Technology. **Chu Xuan Cuong** Information Technology. **Dang Huu Trien** Mechatronics. **Do Thi Hong Hanh**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Nguyen Dinh The Anh**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Chu Thi Nhuong** Development Economics. **Trinh Tuan Anh** Business Administration. **Vinh Bao Ngoc** International Economics. **Le Thi Xuyen** Literature Education. **Pham Dinh Luong** Education Management. **Nguyen Hong Ngo** Business Law. **Pham Thi Hai Yen** Law.

Total amount awarded for 2010 - USD 30,000 (USD 500 per student)

2011 PONY CHUNG SCHOLARSHIP STUDENTS, VIETNAM (60 STUDENTS)

Vietnam National University, Ho Chi Minh City, 30 students

Lam Vu Ngo Hung Civil Engineering. **Do Thi Thuy Phuong** Korean Studies. **To Ly Diem Truc** Economics. **Phan Khoa Thuong Trieu** Medicine. **To Ung Vu** Information Technology. **Lam Ngoc An** Computer Science & Engineering. **Vo Duc Vinh** Computer Science & Engineering. **Nguyen Phuoc Nguyen** Civil Engineering. **Nguyen Phi Gia** Civil Engineering. **Nguyen Thien Huynh** Civil Engineering. **Nguyen Vu Hoang Giang** Civil Engineering. **Truong Thanh Hiep** Civil Engineering. **Le Thanh** Civil Engineering. **Nguyen Minh Phan** Geography. **Nguyen Thi Khanh Ly** Journalism. **Nguyen Huu Hien** Cultural Studies. **Tran Quang Tanh** Information Technology. **Nguyen Cong Thanh** Information Technology. **Nguyen Thi Cam** Finance and Banking. **Nguyen Thi My Thanh** External Economics. **Nguyen Trung Kien** Civil Engineering, Master’s Course. **Nguyen Tan Cuong** Civil Engineering, Master’s Course. **Ho Thi Phuong Dung** Industrial System Engineering, Master’s Course. **Nguyen The Truong Phong** Civil Engineering, Master’s Course. **Le Hoang Minh** Electronic – Telecom, Master’s Course. **Nguyen Thanh Trung** Geology, Master’s Course. **Tran Thi Nhu Hoa** Thin film material, Master’s Course. **Nguyen Thanh Long** Information Technology, Master’s Course. **Le Van Chanh** Analysis, Master’s Course. **Kieu Huu Dung** Analysis, Master’s Course.

Vietnam National University, Hanoi, 30 students

Hoang Thi Le Nhung Meteorological Oceanographic. **Nguyen Huyen Trang** Geography. **Doan Thi Kim Anh** Geography. **Dinh Nhu Chien** Chemistry.

Vu Son Tung Physics. **Dang Van Doan** Chemistry. **Ngo Duc Tinh** Journalism and Communication. **Hoang Nghia Thanh** Political Science. **Dang Thi Kim Ngan** Philosophy. **Hoang Thi Ly** Sociology. **Duong Van Thang** Journalism and Communication. **Nguyen Thanh Mai** Archive and Office Management. **Le Thu Trang** Chinese Language and Culture. **Pham Thi Thu Hang** French Language and Culture. **Nguyen Thi Quyen** English Language. **Vuong Thu Hang** English Language. **Mac Thi Kim Oanh** French Language and Culture. **Tran Thi Hong Dieu** Information Technology. **Pham Hai Dang** Information Technology. **Nguyen The Tuyen**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an Tuan Minh** Mechatronics Technology. **Chu Xuan Cuong** Information Technology. **Do Ngoc Chung** Materials engineering and nanotechnology. **Nguyen Thi Nhu Ngoc** Banking – Finance. **Chu Thi Nhuong** Economic Development. **Pham Van Anh** Business Administration. **Nguyen Van Phan** Education Mathematics. **Nguyen Thi Thanh Tam** Education Management. **Le Thi Nga** Law. **Dang Ngoc Ha** Vietnamese Study.

Total amount awarded for 2011 - USD 30,000 (USD 500 per student)

2012 PONY CHUNG SCHOLARSHIP STUDENTS, VIETNAM (60 STUDENTS)

Vietnam National University, Ho Chi Minh City, 30 students

Nguyen Trong Khoa Information Technology. **Tu Nguyen Thai Son** Mathematics & Informatics. **Pham Thuong Hai** Computer Science. **Vo Hoai Len** Information Technology. **Nguyen Ngoc Hien** Computer Science. **Ly Trong Nhan** Computer Networking. **Le Duc Thien Vuong** Electrical & Electronics Engineering. **Nguyen Dinh Huy** Mechatronics Engineering. **Tran Thi Phuong Loan**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Nguyen Thi Tuyet Mai** Urban Studies. **Nguyen Thi Nu** Education. **Nguyen Ngoc Chau Sang** Computer Science. **Doan Anh Dung** Information Technology. **Tran Thanh Nhat** Civil Engineering. **Nguyen Quang Dieu** Civil Engineering. **Tran Nguyen Minh Tri** Civil Engineering. **Nguyen Thi Chung** Civil Engineering. **Nguyen Van Ut** Civil Engineering. **Le Thi Thu Hang** Civil Engineering. **Le Van Tu** Civil Engineering. **Pham Chi Cuong** Math & Computer Science. **Nguyen Cao Luan** Chemistry. **Do Minh Huy** Chemistry. **Le Quoc Hoa** Computer Science. **Chau Hong Hoa** Chemistry. **Nguyen Xuan Thuan** Electronics & Telecommunications. **Hoang Nam Hai** Biology. **Hua Vy Ngoc Anh** Probability Theory & Statistics. **Nguyen Hoang Lam** Civil Engineering. **Pham Ngoc Thoai** Probability Theory & Statistics.

Vietnam National University, Hanoi, 30 students

Kieu Thi Thuy Linh Mathematics. **Nguyen Thi Phuong** Nuclear Technology. **Le Thi Mai Linh** Chemistry. **Pham Quang Nam** Meteorology. **Do Thi Kim Chi** Environmental Science. **Cao Vu Hung** Environmental Chemistry. **Nguyen Minh Dieu** Linguistics. **Bui Thi Vien** Literature. **Nguyen Hong Hoi** Tourism. **Nguyen Thi Thuy History**. **Nguyen Thi Tuyet Mai** Management Science. **Hua Ngoc Tan** Linguistics. **Vu Thi Kim Lien** English. **Le Thi To Quyen** French. **Pham Gia Ngoc Diep** Chinese. **Dang Thu Ha** Japanese. **Duy Thi Hoa** Korea. **Luong Thanh Hong** English. **Chu Xuan Cuong** Information Technology. **Nguyen Ha Thanh** Information Technology. **Pham Duc Huy** Mechatronics Engineering. **Bui Duc Tung**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Nguyen Trong Trung Anh** Computer Science. **Do Ngoc Chung** Engineering Physics and Nanotechnology. **Nguyen Thi Hien** Finance - Banking. **Trinh Hong Thai** Development Economics. **Tran Thi Hong Bich** Economic Management. **Nguyen Thi Duyen** Mathematics Education. **Do Thuy Linh** Biology Education. **Nguyen Anh Thu** Law.

Total amount awarded for 2012 - USD 30,000 (USD 500 per student)

2013 PONY CHUNG SCHOLARSHIP STUDENTS, VIETNAM (60 STUDENTS)

Vietnam National University, Ho Chi Minh City, 30 students

Dam Nguyen Trong Nhan Information Technology. **Dinh Quang Tuan** Computer Science. **Duong Quoc Phong** Medicine. **Hoang Thi Ly** Business Administration. **Huynh Le Thao Trinh** Biotechnology. **Huynh Thi My My** Enviremental anagement. **Huynh Thi Tu Linh** Literature and Linguistics. **Le Dinh Khai** Geology and petroleum engineering. **Le Hoang Hoa** Computer Networks and Communications. **Le Khac Huyen** Technology of material. **Le Thanh Danh** International Relations. **Le Van Anh Thong** International Economic Relations. **Nguyen Dang Khoa** Chemical Engineering. **Nguyen Huu Phu** Civil Engineering. **Nguyen Thi Binh** History. **Nguyen Thi Hoang Hieu** Business Administration. **Nguyen Tri Hai** Computer Science. **Nguyen Tri Phuc** Computer Science. **Nguyen Van Quoc Thai** Urban Studies. **Pham Dang Lam** Physics. **Pham Hoang Long**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 **Pham Ngoc Y** International Economics & International Economic Realtions. **Pham Nguyen Truong An** Computer Science. **Pham Quang Truong** Business Administration. **Pham Toan Truc** Chemical Engineering. **Tran Cong Nguyen** Information Technology. **Tran Hung Nghiep** Computer Science. **Tran Thi Bao Trang** Industrial Management. **Tran Thi To Loan** Business Administration. **Vo Van Phung**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ing.

Vietnam National University, Hanoi, 30 students

Bui Thien Sao English. **Chu Hoang Linh** Law. **Dang Ngcc Due** Law. **Dang Thuy Duong** French. **Do Dac Phuong** Economics Management. **Doan Phuong Thuy** English. **Hoang Nhu Dong**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La Thi Van Anh** Korea. **Le Thi Thanh** Journalism and Communication. **Ngo Thi Hoa** Physics Education. **Ngo Thu Trang** Law. **Nguyen Chi Trung** Library and Information. **Nguyen Dinh Chinh**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Nguyen Duong Nguyen** Physics. **Nguyen Ha Thanh** Information Technology. **Nguyen Huong Ngoc** Literature. **Nguyen Minh Truong** Literature. **Nguyen Thi Minh Hong** Nano Magnetic Materials and Devices. **Nguyen Thi Nhan** Accounting. **Nguyen Thi Thu Mai** Environment Science. **Nguyen Thi Thu Thuy** Chemistry. **Nguyen Thuy Huong** Environment Science. **Pham Van Kim** Political Economics. **Phung Thi Thanh Lam** Vietnamese Studies. **Tran Hung Quan** Computer Science. **Trieu Thi Bich** Nguyet Oriental Studies. **Trinh Thi Nga** Sociology. **Truong Minh Nguyet** Chinese. **Vu Huy Hien** Computer Science. **Vu Thi Hien Thu** International Economics.

Total amount awarded for 2013 - USD 30,000 (USD 500 per student)

PONY CHUNG INVITATION SCHOLARSHIP, VIETNAM
포니정 초청 장학생

2012 PONY CHUNG INVITATION SCHOLARSHIP, VIETNAM (1 STUDENT)

Korea University Graduate School

Nguyen Huyen Trang VNU, Hanoi Nature Resources Management.

2013 PONY CHUNG INVITATION SCHOLARSHIP, VIETNAM (2 STUDENT)

Korea University Graduate School

Nguyen Quyen VNU, Hanoi English Education. **Do Thuy Linh** VNU, Hanoi Biology Education.

포니정 연보

PONY CHUNG'S BACKGROUND

지난 32년 동안 한 번도 나 자신과 현대자동차를 따로 떼어놓고 생각해 본 일이 없었다.

그 만큼 혼신을 다 바쳤기에 현대자동차는 영원히 내 마음속에 남아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원칙과 소신으로 일관해왔듯이 앞으로도 어느 곳 어느 자리에 있건 바른 길을 걷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비록 정상에 서지 못해도 바른 길을 택해 산에 오른다면 그 자체가 올바른 산행(山行)이요, 정도를 지켜 산에 올랐다면 하산(下山) 또한 당연한 일이다.”

— 자서전 '미래를 만드는 것이다' — 2000.11

For the past 32 years, I've never thought of myself and the Hyundai Motor Company separately. As such, I've fully devoted myself to the company, and know that the company will always hold a special place in my heart. Just as I have pursued fair business principles and a firm belief in what I do, I will do my utmost to pursue a righteous path wherever I am or whatever I may be doing. I recognize that even if one cannot stand atop a mountain, as long as he chooses a mountain worth climbing it is the right thing to do, as he who climbs a mountain following fair principles will also be proud when going down that same mountain.

— from Chung Se-yung's autobiography, *The Future is What We Make of It* (2000)



포니 개발, 미국시장 진출, 독자엔진 개발 등 포니정이 걸어온 길은 고스란히 우리나라 자동차의 역사이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 굳건한 의지와 투지로 일궈낸 포니 개발은 현대자동차가 국내 시장을 석권하고 세계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는 교두보가 됐다.

- 5주기 화보집 <꿈과 희망을 남긴 선구자> 중 -

The path that Pony Chung took during his lifetime, including the development of the Pony, Hyundai Motor Company's entrance into the American market, and the independent development of automotive engines, is truly representative of the history of Korean automobiles. When people told him it would be impossible to accomplish, he developed the Pony using nothing more than his indomitable willpower and fighting spirit. Ultimately, this provided a bridgehead for Hyundai Motor Company to dominate the Korean automobile market and successfully advance overseas as well.

- from *The Pioneer Pony Chung's Dream Goes On*, a book marking the 5th anniversary of his death



01

02

03

04



01. 1967.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취임

02. 1977. 파나마 대리점(Motores Colpan) 개업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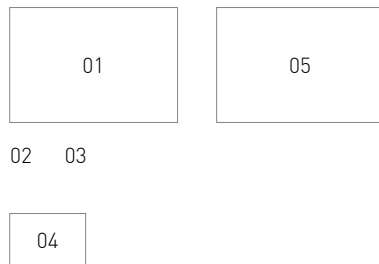
03.04. 1974. 토리노 국제 모터쇼, 첫 고유모델 '포니' 발표

01. Chung Se-yung was inaugurated as Hyundai Motor Company's president in 19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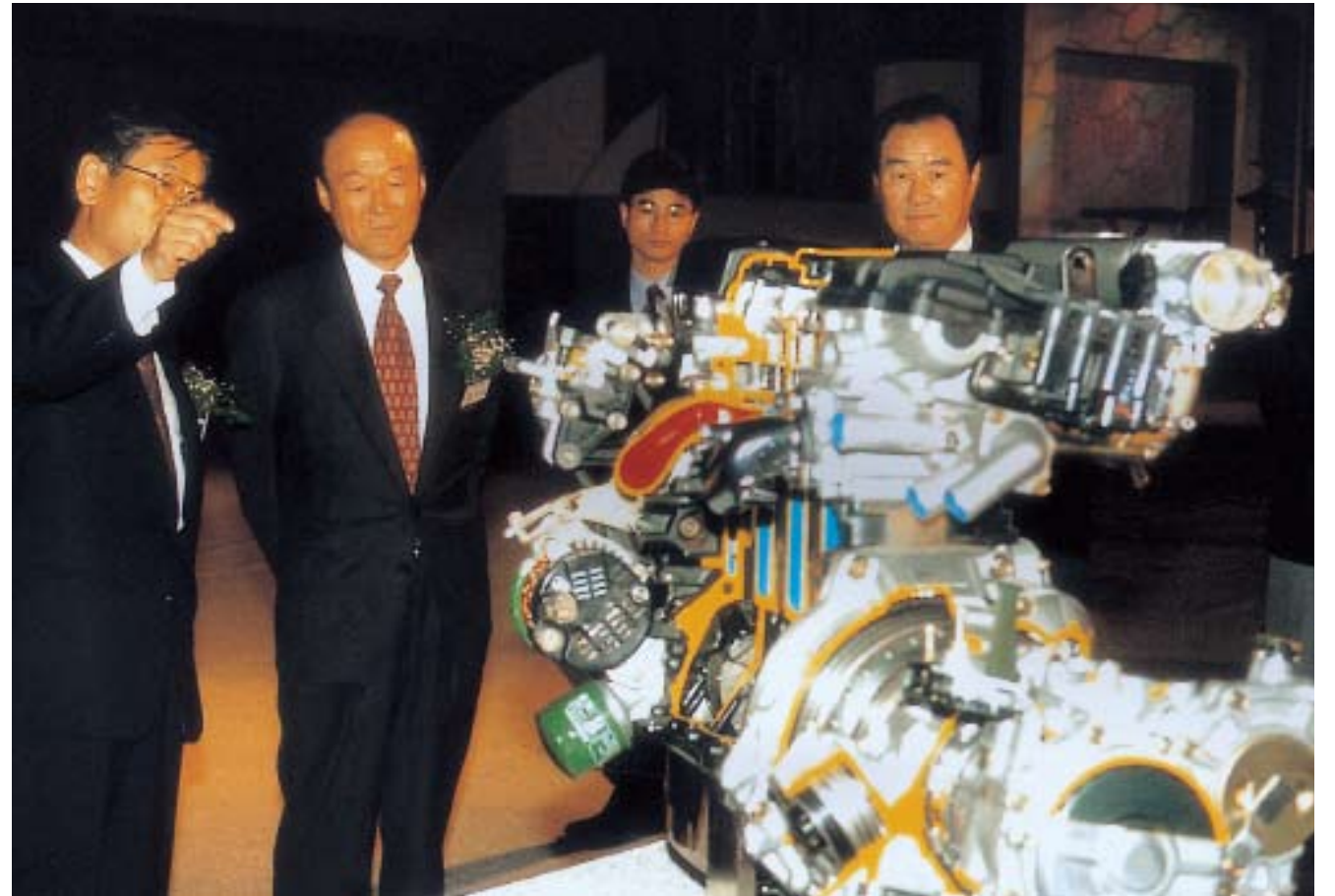
02. The opening ceremony at the Panama dealership (Motores Colpan) in 1977

03.04. The Pony's international debut at the Turin International Motor Fair in 1974





-
- 01. 1985. 오토모티브 뉴스의 '세계자동차인 대회'에서 강연
- 02. 1995. 오토모티브 뉴스의 '오토모티브 올스타'로 선정
- 03. 1986. 뉴욕타임즈의 '미국 산업계의 숨은 영웅'으로 선정
- 04. 1989. 동경 모터쇼, 쏘나타, 엑셀 출품
- 05. 1996. 스포츠카 티뷰론 신차발표회, 독자 엔진 개발과 성능 향상
-
- 01. Chung Se-yung giving a speech at the Automotive News World Congress in 1985
- 02. Selected as an "Automotive All-Star" by Automotive News in 1995
- 03. Chung was named one of the New York Times' "1986 Heroes in Industry"
- 04. Hyundai Sonata and Excel unveiled at the Tokyo Motor Show in 1989
- 05. Launch of the Tiburon sports car in 1996; independent development of an automotive engine and improved performance
-



LA 모터쇼에 엑셀을 출품했을 당시, 오래 전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할머니 한 분이 엑셀을 자랑스럽게 쓰다듬으며 '전쟁으로 폐허가 된 조국에서 어떻게 이런 좋은 차를 만들어 미국까지 수출하게 되었느냐'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그 할머니 눈에 흐르던 눈물의 의미가 오래도록 잊혀지지 않는다.

- 자서전 <미래는 만드는 것이다> 中 -

When we unveiled the Excel at the LA Auto Show, an older Korean woman who had immigrated to the U.S. long ago touched the car with pride and actually wept, saying she was amazed how a war-devastated country could produce and then export such a nice car to the U.S. I'll never forget that woman's tears.

- from Chung Se-yung's autobiography, *The Future is What We Make of It* (2000)



우리는 한미 양국 간의 파트너십이 전후(戰後)의 성공 스토리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새 시대를 맞아, 우리는 분쟁에 의해서가 아니라
 더 위대한 글로벌 기업을 향한 희망으로 규정될 수 있는
 성공 스토리를 써 나갈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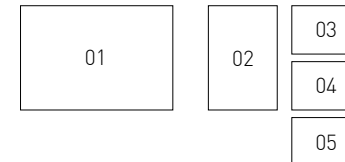
- 한미재계회의연설 - 1990. 1. 22

We should remember that the partnership between Korea and the U.S. was a success story after the Korean War. In this new era, we need to cooperate with one another so that we can bring about yet another success story, one that can be defined by hope towards a greater global company, not one based on conflicts.

- Chung Se-yung, from a speech at the U.S.-Korea Business Council, January 1990



To S.Y. Chung - With Very Best Wishes & Regards, Ronald Reagan



01. 1987. 현대그룹 회장 및 현대자동차 회장 취임 기자회견

02. 미국 레이건 대통령과의 만남

03. 1995. 레득안 베트남 주석과의 면담

04. 세계적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와의 면담

05. 싱가포르 수상 고척동과의 면담

01. Inauguration as Chairman of the Hyundai Group and Hyundai Motor Company in 1987

; a scene from a press conference

02. At a meeting with U.S. President Ronald Reagan

03. At a meeting with Vietnamese President Le Duc Ahn in 1995

04. Meeting with Alvin Toffler, an internationally renowned futurologist

05. Meeting with Singapore's prime minister, Goh Chok Tong





현대자동차가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가장 기여한 점을 꼽으라면 기계공업 발전과
자동차의 수출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 자서전 〈미래는 만드는 것이다〉中 -



01

02

03



01. 1977. 석탑 산업훈장 훈장 수훈

02. 1986. 외국인 최초 마이애미대학 명예박사 학위 취득

03. 1983. 명예 대영제국 훈장 '커맨더 장' 수훈

01. Recipient of the Stone Tower Order of Industrial Service Merit in 1977

02. The first foreign recipient of an Honorary Doctorate
from Miami University, Ohio in 1986

03. Chung was named an Honorary Commander of the Order
of the British Empire in 1983

If someone asks me how Hyundai Motor most contributed to Korea's economic
development, I reply with confidence that it was the development of mechanical engineering
and the exporting of automobiles.

- from Chung Se-yung's autobiography, *The Future is What We Make of It* (2000)

꿈과 희망을 남긴 선구자

돌아보면 늘 길 위에 선 삶이었습니다. 온갖 역경이 예견된 길이었지만
마다하지 않았고, 난관을 오히려 성장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해외 공사인 태국 파타나나라티왓 고속도로도, 대한민국 최초
의 고유모델 포니도, 그 길 위에서 완성했습니다. 정세영 명예회장은 그
렇게 과감한 추진력으로 꿈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뒤돌아볼 여유가 없
었고 돌아볼 수도 없었다. 경영자나 근로자, 한국인이나 외국인, 일단
현대차에 동승한 이상 그 누구도 예외일 수는 없었다. 목표달성만이 지
상명령이었고 그 외에는 어떤 변명이고 이유고 없었다.” 자서전 〈미래
는 만드는 것이다〉에서 밝혔던 것처럼, 정세영 명예회장은 언제나 꿈과
목표를 향해 거침없이 내달렸습니다.

앞선 해안과 남다른 결단력

정세영 명예회장은 또한 남다른 결단력의 소유자이기도 했습니다.
1976년 포니의 본격 생산과 에콰도르 첫 수출 등 가슴 벅찬 성공에
만족하기는커녕 기술 독립을 위한 과감한 행보를 지속해 나갔습니다.
1978년 2월 외국에 기술 독립의 차원에서 공작기계사업부를 발족한
것도 그 때문입니다. 그가 자서전에서 “외국 회사들이 기술 유세를 할
때마다 나는 기술 없는 나라, 기술 없는 회사의 설움이 어떤 것인지 뼈
저리게 실감할 수 있었다. 정말이지 밥 먹은 게 소화가 안 될 지경이었
는데,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었다. 마음 같아서는 독자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싶었지만, 그러자니 몇 년이나 걸릴지 알 수 없었다. 기술 연
구소나 공작기계사업부 설립의 필요성을 깨달은 것이 바로 그때이다”
라고 회고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1984년 2월 국내 최초로 자
동차 종합 주행시험장을 준공한 것도, 1998년 10월 국내 최초의 해외
자축형 종합 자동차 공장인 인도공장을 준공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였
습니다. 언제나 한 발 앞서서 결단을 내렸고, 남이 가지 않은 길을 먼저
걸어갔으며, 기술 독립과 수출 우선 등 큰 틀에서 미래를 예견하고 설
계했습니다.

기본과 원칙 중심의 리더십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정도경영’이라는 원칙과 소신만은 잊지 않았습
니다. 공평하고 곧은 길을 지향했고, 경영진의 책무를 늘 강조했습니다.
현대그룹 회장 시절 그룹 사장단과의 간담회에서, “독이 무너질 때에는
항상 조그만 구멍에서 시작되는 법이다. 경영자가 조금만 책무를 게을
리 하면 알게 모르게 기업에는 구멍이 나게 마련이다”라고 말했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자신 또한 정직과 성실이라는 기본 덕목에 충실했고, 우
연이나 행운 따위는 절대 믿지 않았습니다. 정세영 명예회장이 이루고
자 했던 꿈의 대부분을 현실로 만들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미래를 향해 열린 꿈

평생 창조적 혁신에 몰입했고, 꿈과 미래를 개척했던 정세영 명예회장.
그는 다른 데 눈 돌리지 않고 기업경영에만 매진한 참 경영인이었고, 앞
선 해안으로 대한민국 발전에 헌신했던 혁신가였습니다. 비록 2005년
향년 78세로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우리 기업사에 남긴 족적은 오롯합
니다. 고유모델 포니의 개발로 대한민국을 16번째 자동차 공업국의 반
열에 올려놓았고, 현대자동차를 세계적인 자동차 메이커로 성장시켰습
니다.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를 통해 이 땅에 아파트의 역사를 새로이 창
조했고, IPARK로 아파트 브랜드 시대를 열었습니다. 언제나 한 발 앞
서 생각했고, 한 발 먼저 달려나갔습니다. 금탑 산업훈장, 국민훈장 목
련장, 대영제국 커맨더 장 등은 이 같은 정세영 명예회장의 삶에 바치는
영예로운 헌사입니다.
길 위에 선 삶은 이미 막을 내린 지 오래입니다. 그러나 그의 꿈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포니정 재단이 있는 한, 정세영 명예회장이 평생 쌓
아온 혁신의 궤적과 가슴에 품었던 꿈은 영원히 현재이고 미래입니다.

A PIONEER WHO BEQUEATHED ALL HIS DREAMS AND HOPES TO US

Although Honorary Chairman Chung Se-yung faced adversity at every step of his life, he managed to turn this into opportunities for growth. Korea’s first overseas construction project, the Pattani-Narathiwat Highway (Thailand), and Korea’s first automobile model, the Pony, were just two of his notable accomplishments. In his autobiography, *The Future is What We Make of It*, he wrote, “I never had time to look back on my life. Whether they were managers or plant workers, Koreans or foreigners, achieving goals was of paramount importance and excuses were never an option.” As such, Chung always strove to make his dreams and goals a reality.

FORWARD-LOOKING INSIGHT AND EXTRAORDINARY DETERMINATION

Chung Se-yung was also a person of extraordinary determination. Even after he proved himself successful in business, which included exporting the Pony to Ecuador in 1976, he never grew complacent but instead worked hard to acquire independent technology for Hyundai. So as not to rely on foreign technology, he launched Hyundai’s Machine Tool Division in February 1978. In his autobiography, he wrote about this, saying, “Whenever foreign companies exercise power over us with their technology, it really hit home with me because it was a sad situation to see a company without any advanced technology. To be honest, it physically affected me, nearly causing indigestion, but I was determined not to give up on our goal. I wanted to develop Hyundai’s very own technology, yet nobody knew how long it would take. That was the moment when I realized we needed to establish an R&D center and a Machine Tool Division at Hyundai.” Later, in February 1984, Chung built Korea’s first automotive proving grounds. Then, in October 1988, he built the first overseas general automotive factory run by a Korean company in India. Chung was consistently making forward-looking decisions earlier than his competitors when it came to important issues such as independent technology and exports.

LEADERSHIP BASED ON A FAIR BUSINESS PHILOSOPH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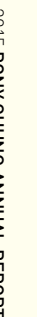
At the same time, he never put aside his beliefs and business philosophy when pursuing a fair, righteous way of doing business, and always emphasized the responsibility management had in business. As chairman of the Hyundai Group, he once said to presidents of Hyundai affiliates, “Even the slightest weakness can bring a bank to its knees. When an executive is just the tiniest bit lazy or neglectful, it can lead to a sizeable flaw within the company.” Honorary Chairman Chung Se-yung was always honest and hardworking, and someone who did not rely on chance or luck. That is how he made his dreams a reality.

A LEGACY NOT SOON FORGOTTEN

Honorary Chairman Chung Se-yung was a businessman who focused intently on managing his businesses, an innovator who contributed to Korea’s development with his advanced insight. Although he passed away in 2005 at the age of 77, he left behind a significant legacy with respect to Korean companies. He helped turn Korea into the world’s 16th country able to produce its own automobiles by developing the Hyundai Pony. He also played a huge role in making Hyundai Motor a global automaker. Later, he spearheaded the project to build a Hyundai apartment complex in Apgujeong-dong, Seoul, and later ushered in a new era of apartments with real brand power when he began construction of IPARK apartments throughout Korea. Always one to come up with new ideas and act on them ahead of others, Chung was the recipient of the Gold Tower Order of Industrial Service Merit, the Order of Civil Merit (Mokryeonjang) from the Korean government, and was named an Honorary Commander of the Order of the British Empire (CBE). Honorary Chairman Chung Se-yung’s dreams and ambitions did not end when he passed away. The Pony Chung Foundation ensures that his innovative spirit and dreams will live on forev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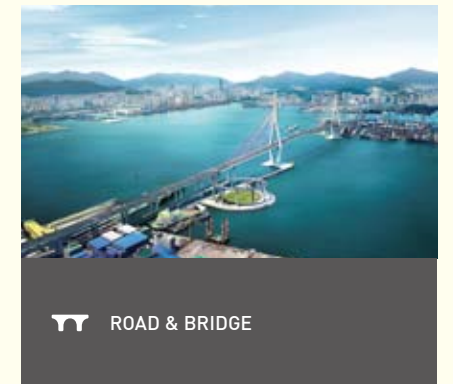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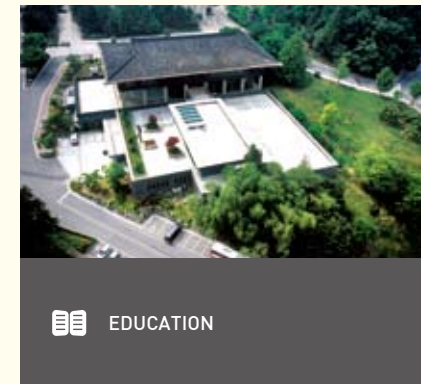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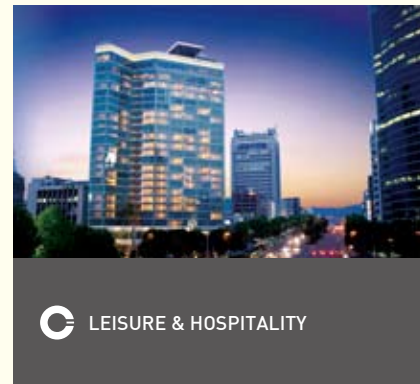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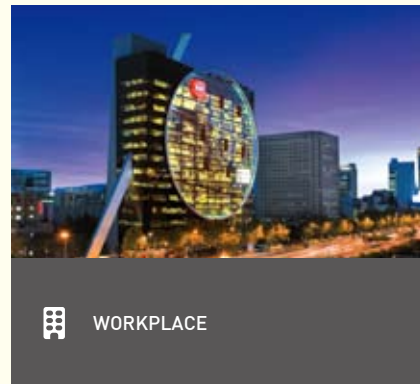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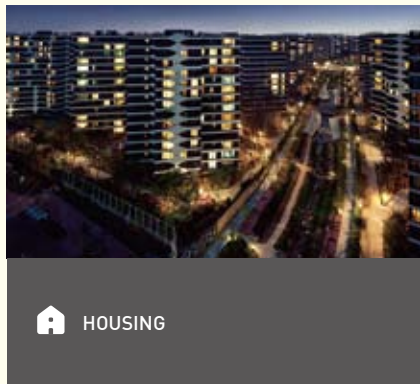
1928	강원도 통천 출생
1953	고려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1954	미국 콜럼비아 대학교 입학
1955	미국 오하이오주 마이애미대학교에 전액 장학생으로 이적
1957	미국 오하이오주 마이애미대학교 정치학 석사
1965	현대건설 태국 초대 지점장 부임 및 파타나-나라티왓 공사 수주
1967	현대자동차 설립 및 초대 사장 취임
1974	한국 최초 고유 모델인 ‘포니’로 토리노 국제모터쇼 참가
1976	포니 본격 생산 및 에콰도르에 첫 해외 수출
1977	한·영 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1977-1995)
1983	영국 왕실로부터 명예 대영제국 훈장 ‘커맨더 장’ 수훈
1985	금탑 산업훈장 수훈
1986	〈뉴욕타임즈〉, ‘산업계의 숨은 영웅’ 선정
1986	미국 오하이오주 마이애미대학교 명예 법학 박사
1986	미국에 포니 엑셀 첫 수출
1987	현대그룹 회장 및 현대자동차 회장 취임(1987-1995)
1987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1987-1997)
1991	국내 최초 독자 엔진인 알파 엔진 및 트랜스미션 개발
1993	고려대학교 교우회 회장(1993-1999)
1995	미국 〈오토모티브 뉴스〉 선정 ‘아시아 최우수 경영자상’ 수상
1996	연세대학교 명예 경영학 박사
1997	고려대학교 명예 경영학 박사
1998	국민훈장 목련장 수훈
1998	한미협회 회장(1998-2002)
1999	현대산업개발 명예회장 취임
2005	향년 78세로 영면

1928	Born in Tongcheon, Gangwon-do
1953	Graduated from Korea University with a B.A. in Political Science & International Relations
1954	Admitted to Columbia University, NY, USA
1955	Transferred to Miami University, Ohio, USA on a full scholarship
1957	Graduated from Miami University, Ohio, USA with an M.A. in political science
1967	Established Hyundai Motor Company and was subsequently inaugurated as its first president
1974	Participated in the Turin International Motor Fair, where Korea’s first independently made automobile model, the Pony, was unveiled
1976	Started mass production of the Hyundai Pony and began exports of the model to Ecuador
1977	Elected Chairman of the Korea-British Economic Cooperation Committee (1977-1995)
1983	Named an Honorary Commander of the Order of the British Empire (CBE)
1985	Recipient of the Gold Tower Order of Industrial Service Merit award from the Korean government
1986	Named one of the <i>New York Times</i> ’ “Heroes in industry in 1986”
1986	Recipient of an Honorary Doctorate in Law from Miami University, Ohio, USA
1986	Began exporting the Hyundai Pony Excel to the U.S.
1987	Inaugurated as Chairman of the Hyundai Group and HMC (1987-1995)
1987	Elected as Vice Chairman of the Federation of Korean Industries (1987-1997)
1993	Elected as Chairman of the Korea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1993-1999)
1995	Recipient of <i>Automotive News</i> ’ Asia’s Top Businessman of the Year award
1996	Recipient of an Honorary Doctorate in Business Administrations from Yonsei University
1997	Recipient of an Honorary Doctorate in Business Administrations from Korea University
1998	Recipient of The Order of Civil Merit (Mokryeonjang) from the Korean government
1998	Elected Chairman of the Korean-American Association (1998-2002)
1999	Inaugurated as Honorary Chairman of the Hyundai Development Company
2005	Passed away (age 77)



영원한 선구자를 기억하며

- 현대산업개발 1999년 신입사원 하계수련회 특강



After carefully examining the Hyundai Development Company, I felt the company excelled in human resources and many other aspects in comparison to other Hyundai affiliates, and that was very promising. Hyundai Development Company believes in hard work, frugality, and kindness. While honesty and diligence are basic virtues all of us should follow, it is important not to rely on chance or luck. Success should be sought after, not expected. Success will never be realized if you depend on luck.

- Chung Se-yung, at a special lecture for new employees' summer training program, 1999

지난 1999년 현대산업개발의 명예회장으로 취임한 정세영 명예회장은 현대산업개발에 도전정신과 개혁정신이라는 소중한 유산을 남겨주셨습니다. 그 뜻을 이어받은 현대산업개발은 지금까지 그래왔듯, 앞으로도 이 땅의 건축문화를 선도하며 미래를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선진 기술과 인간 중심적인 건축 문화에 공헌하는 세계 초일류 기업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Honorary Chairman Chung Se-yung, who was appointed Honorary Chairman of the Hyundai Development Company in 1999, left the company a most precious legacy: a pioneering spirit. The Hyundai Development Company aspires to follow in his footsteps and will continue to boldly play a critical role in the future of Korea's architectural culture. To date, we have been leading the domestic industry. Today, we are determined to grow into one of the most respected and competent companies in the world as we continue moving forward in making contributions to the development of advanced technology and human-oriented architectural culture.